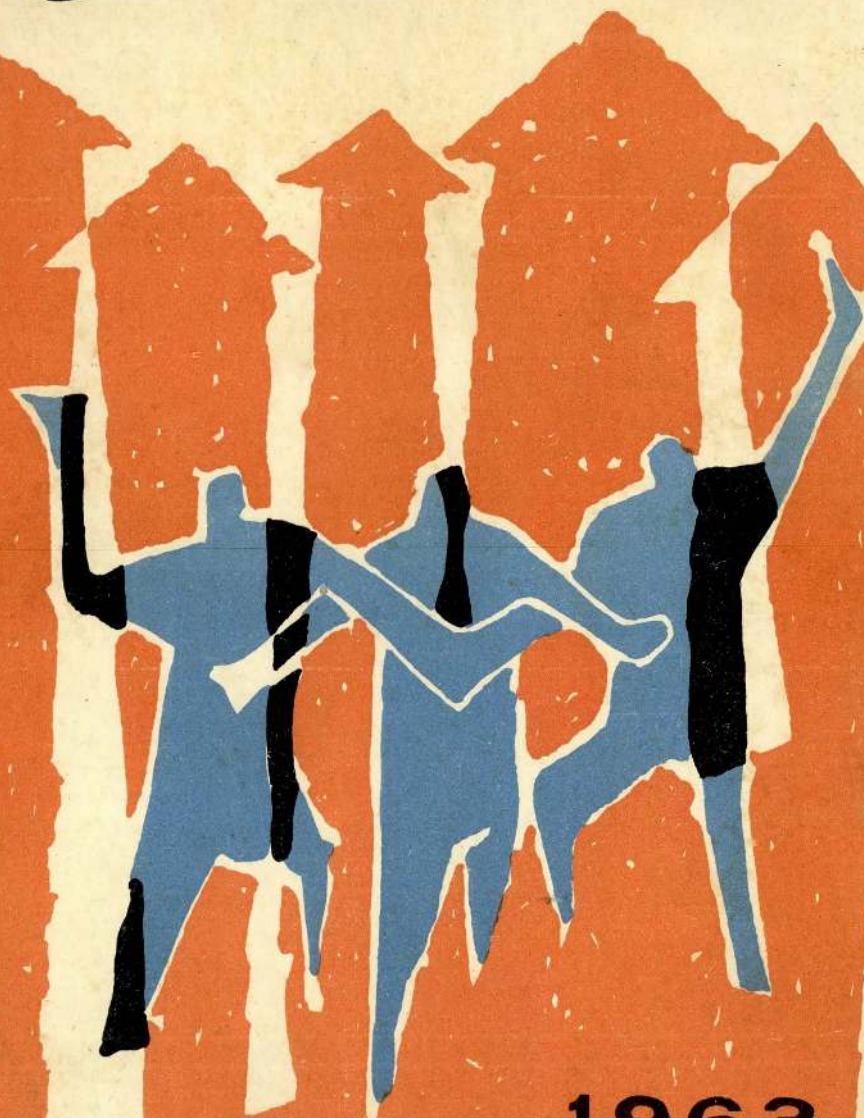


1963年 10月 25日 印
1963年 11月 1日 發

명사

11

第 80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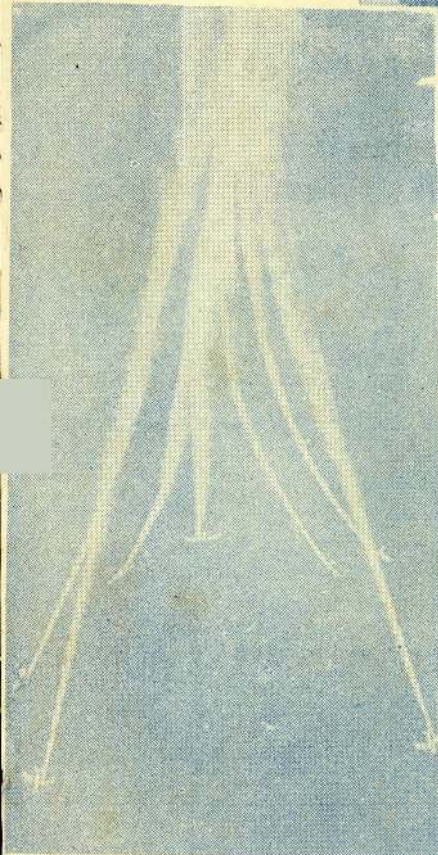
1963



**建軍 15 周年 맞아
漢江上空서 「에어·쇼」 盛舉**

건군제 1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우리 공군의 「에어·쇼」가 10월 2일 수십만의 시민이 참관한 가운데 한강 상공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사진: 上 張참모총장이 박의장을 안내하여 사열대로 걸어가고 있다. > <左 제트편대의 곡예비행 >



有功將兵에 叙勳 表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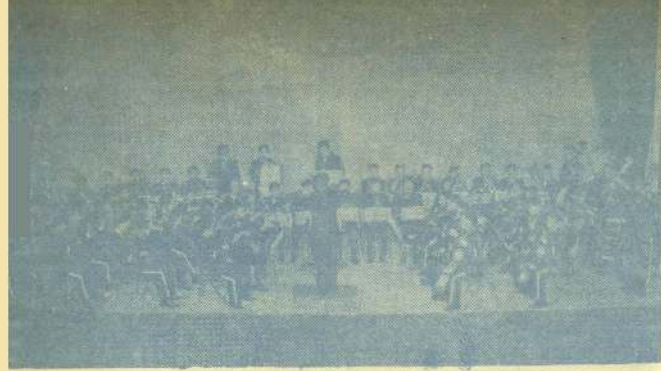
건군 제 15주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군발전애 공헌한 유공 장병에게 10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근무공로훈장과 방위포장을 수여하였다.

<사진은 박 의장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는 소작전참모부장 >



美軍太平洋地區
司令官「스미트」
將來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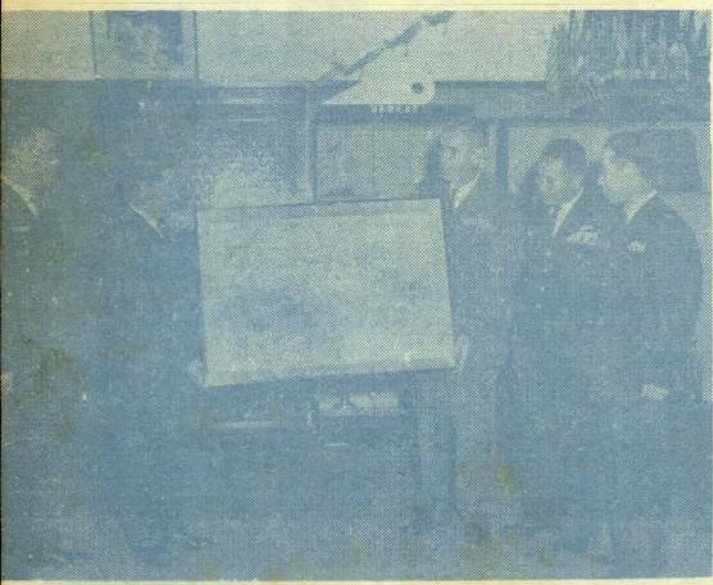
평양지구 미공군
관「스미트」대
사령관 취임이
예하부대 초도순
찰 지난 6일 특별
신으로 내한하였다.



중학교학생 80명이
10월 28일 부터 1주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도
시에서 순회연주회를 베풀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갈채를 받
았다.

空士優勝, 三軍士體育
典式

3군사관학교 체육대
회가 9월27일부터 3일
간 서울운동장에서 거
행되었는데 공군사관학
교가 해사와 동승 우승
하였다.



美空軍勤務監
「니-스」將軍來
韓

미공군의 의무
감「오리버·K·니
-스」소장이 10월
18일 특별기편으
로 내한했다.
<張總장이
「니-스」장군
에게 그림 한폭을
선사하고있다.>



空軍美術展示會盛況

제2회공군미술전시회가
정훈감관주최로 9월 24일 부
터 1주일간 중앙공보관 화랑
에서 개최되어 큰 성황을 이
루었다.

◇ 畫報 表紙 2·3 面

第三共和國와 軍人의 姿勢 朴廷培 (八)
國會議員 選舉法 概要 金仁煥 (一五)

特輯 士氣昂揚을 위하여

士氣向上을 위한 諸問題 丁海瑛 (二一)

軍士氣와 健康 桂元喆 (二八)

레크리에이션과 士氣 沈珍 (三四)

一線戰鬪操縱士의 士氣實態 馬鍾仁 (四一)

士氣昂揚을 위한 나의 提言 朴致坤 (五一)

^{63年度} 犯罪 및 軍紀違反分析 李仁榮 (五六)

軍隊와 階級 申午鉉 (六四)

◇ 소련을 推理한다 申 晷 (九九)

◇ 나의 反共詩 朴琦遠 (三三)

◇ 이러한 反共노래가 있었다 朴 琦 (三三)

自由의 품으로 李 克燦 (八六)

民主主義 原理 金昌順 (九三)

共産主義 批判 林語堂 著 河正玉 譯 (一〇〇)

名 第四回

未來의 建築 朴 晝 載 (一〇〇)

未來의 動力 李 宗 守 (一〇九)

未來의 衣服 金 允 燾 (一一三)

우리의 敵을 알자 趙 誠 植 (七一)

詩 五年間의 이야기: 심 수 명 (二篇) 트란저스터 오 윤 환 (四)
수필 女子가 사랑할 때: 김 영 태 (二篇) 친구야! 이 창 운 (四)
碧空의 片想: 김 우 남 (二篇) 山 김 석 철 (一四)

第三帝國의 興亡 第五部 李 伊 麗 (三)

內部の 敵(上) 유 기 영 (二六)

◇ 後 記 (一七)



<코메트, 미사일 統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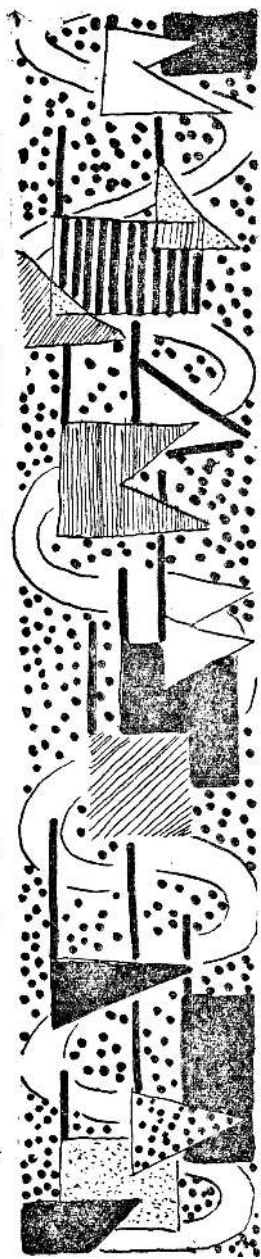
제 80 호

혁 명 공 약

1.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신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빈축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인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다.

1963

發 行 處 · 空軍本部 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 · 空軍大領 金榮浩
 印 刷 處 · 空軍 敎材 廠
 印 刷 人 · 空軍大領 白春得



第三共和國軍人의 姿勢

朴 廷 培

△再建國民運動 中央教育院長 署理▽

第三의 運命

언제 누가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지금 아무 별다른 생각 없이 「第三共和國」이라는 現實的 意識을 지니게 되었다.

光復 十八年에 두차례 革命을 치루고 세번째 고쳐 만든 나라를 가르켜 第三共和國이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다 더 멋지게 表現하기 위하여 수나스린 수식어들을 그것머리에 붙이고 있다.

아무리 화려한 형식을 갖추어 세로 다듬는 나라를 말하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半萬年의 歷史를 엮었다는 우

리들에게 너무나 어기찬 試練과 또 슬픔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해의 달력을 펴놓고 보라. 거기 얼마나 많은 기념일들이 표지되어 있는가 말이다.

〈三·一運動〉、〈四·一九〉、〈五·一六〉、〈六·二五〉、〈六·十萬歲〉、〈八·一五〉、〈九·二八〉、〈開天節〉：분노, 반항
필기, 치욕, 환희, 이러한 감정들이 엇갈린 세월 속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새 출발, 새 결심, 새 희망을 다짐하였
으며 그리하여 이제 또 다시 第一、第二의 총계를 올라와 第三共和國이 우리의 문패가 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연속한 자세로 돌아왔다.

實로 世界가 보고 들는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時點에서 새로 그려 부친 표어 몇마더로 간단히 지난날의
불행에 대하여 自虐的인 辯明이나 복수를 다 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三十六년 동안 짓밟힌 식민지 노예의 사슬에서 풀려나던 그날도 그러하였었고 赤色帝國主義의 侵略
에서 우리의 財産과 血族의 生命을 빼앗기고 마침내 남의 나라 도움으로 屍山血海로 뒤덮인 故郷을 다시 찾아
痛哭하던 그때도 그러하였고 十餘年間 民主主義라는 허울아래서 民生의 基本權을 고스란히 좀먹히다 못해 맨주
머의 어린 生命들이 총부리 앞에 쓸어져 그로하여 있었던 第二共和國 그날에도 여전히 못지않는 口號와 찬란한
表現들이 그러하였었기 때문이다.

이제 第三共和國……그것은 殺伐한 赤侵의 危險과 國際間의 默秘의 不安을 무릅쓰고 일어난 不幸하였던 우리
들의 悔悟와 決心과 設計어야 할 것이지만 政變의 口號로 수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三」그것은 東洋的 思
考에서 完全數요 또한 終末을 뜻하는 數值기도 하다. 그래서 「마지막 革命」이라고 強調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우리들의 氣力과 良心 또한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人類는 보다 더 큰 價値의 創造를 위하여 革命이란 手段을 가져 왔다. 革命을 經驗하지 않은 나라로서 發展
한 類例를 찾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革命을 자주 치른 나라를 두고 보다 더 發展한 現象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革命은 決定的 手段임과 同時에 그것은 本質的 根源의 因 것을 다루워 놓아야 할 責任과 또 意義가
수반되어야 하며 革命은 昨日에의 복수가 아니라 來日을 위한 오늘의 自己修正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決定的 手段과 自己의 現實的 生活를 直結시킬 수 있는 本質的 自己省察은 國民的、民族的、人

間的、自己에 立脚해야 할 것이지 결코 身分的、派閥的、政見的、偏見에 依해서 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第三共和國를 맞는 오늘날 軍人만이 唯獨한 姿勢가 마련되거나 強調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자기 위치에서」 하나의 大觀的 意志로 調和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三의 價値는 解決의 意義를 가진 때 認定될 수 있다는 말이다.

처음은 仲介일 수도 있다.

두번째는 속울 수도 있다.

그러나 셋째는 自己의 意志와 判斷을 土臺로 한다. 거기에는 뒤우침도 회피도 천가도 있을 수 없다.

처음에는 解放軍에 依存하였고 다음에는 政黨 政客를 믿었으나 이제 는 우리들 스스로가 解決해야 한다.

여기 또 한번의 失手が 있을 때……다시 말하자면 第四의 可能을 醜造할 수 있는 餘裕가 있다면 그는 또한 不運의 逆境을 反芻할 것이요 이제 希望이란 한갓 우연에 기대는 道理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祖國을 지키는 者

「네게 무엇이 必要하냐」

하고 묻는 아버지 앞에서 제일 작은 늙은 과자를 달라고 했고, 다음 늙은 연필, 다음은 책, 또 그 다음은 신발, 마지막으로 제일 큰 늙은 〈논〉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오」

아버지는 그 아내에게 물었다.

「저는 당신이 계시면 되요」

은 國民을 한자리에 모으고 네게 必要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본다면 모두 자기 다른 요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만일 軍人인 당신에게 묻는다면 무엇이냐고 답변할 것인가?

「나는 권력이 있어야 하오」

애국 하겠다 하는 거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답변일 것이다.

「나는 外換이 필요 하오」……장사꾼

「나는 더 많은 봉급이」……셀러리맨

그러나 軍人인 당선 말이다.

오늘날 後進國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실제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러한 불음에 대한 「아내」같은 답변이 軍人들에게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안정된 나라가 필요 하오」 그래야지만 그들이 꽃다운 목숨을 걸어 놓고 외적과 더불어 싸울 수도 있고 또 죽음에의 보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정치적 불안과 民生의 危機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민은 나라보다 먼저 利己의 邪心에는 멀고 있기 때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우선 권력」

「우선 돈」

「우선 명성」

그런 것들이 한 나라의 국민된 자가 할 일과 공지를 버리게 하여 마침내 나라는 주인을 잃게 되고 제할일 다 못하는 자를 꾸짖을 수 있는, 罪없는 者로서 돌을 든 軍人이 곧잘 革命의 主體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五·一六 革命의 可能과 國民의 支持도 이와같은 一般의 狀況이 만든 不可避의 인 것이라 해서 무방할 것이다.

먼저 나라가 있어야 한다.

나라없는 權力—한가지 살아있는 例證이 있다면 韓帝末에 日本으로 불모 되어간 李根公같은 이가 있을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權力은 그 명색에 있어서 日本의 皇太子만 못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는 悲運의 平生을 보내었다. 나라없는 돈—그것은 학대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도 그러하거나와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슈타인들이 과연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가를 생각할려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 오늘의 이 스

라열을 재건했던가를 도리켜 보아 알 일이다.

나라없는 민족, 그러나 그 자존 때문에 몇백만의 피가 나치스의 손으로 참살당하였으며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 보상되었는가 말이다.

나라를 再建하기까지 한사람의 나치스도 벌할 수 없었고 또 벌을 대신하여 줄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최후의 권력자는 그 나라를 최후까지 지킨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무리없는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軍人은 가장 高次元에 位置한 權力者이며 또 賣國的 政治에 대한 審判者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나라 第三共和國이 가장 必要로 하는 것은 많은 政黨이 아니고 말 잘하는 政客도 아니다.

비록 싸우는 정치가 있고 못 믿어운 경영이 있고 색은 도의가 황개치더라도 마지막 위기를 모면케 하는 祖國을 지켜 殉하는 者가 必要한 것이다.

軍人은 옛 사람들이 別仙、善人이라고 불렀다.

그 뜻은 無慾의 苦行者요 그가 善을 이루기에 區別된 자리에서 일한다 함이다.

참으로 祖國을 사랑하는 者、祖國을 지키는 者요, 그 힘을 가진 者며, 그는 權力을 탐하지 아니하고 物慾에는 멀지 아니한 者이다.

「너에게 무엇이 必要하냐」

「나는 당신 祖國만 있으면 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다.

자랑스러운 立像

人間의 本能에 가장 強한것 하나는 親和性이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同類的 親和性은 第一次的인 것이다.

韓何雲의 詩에 「문둥이끼리 만나면 반갑다」하는 어느 한 귀절이 있듯이 사람은 제게 가까운 것 부터 理解하게 되고 親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性向이며 이것이 擴大되어 人間社會를 構成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가진 고약한 病的 하나로서 가까운 것부터 理解하려 하지 않으면 것부터 親하려는 경향은 여간 不幸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國民間의 分裂을 造成하였고 또 事大根性이 되었으며 마침내 自己 破裂이 지나쳐 自我상심이 아니면 自己멸세까지 확대되어 나왔다.

韓國사람이 韓國사람을 멸시하고 軍人이 軍人을 친시하는 따위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보아오는 터이다.

外國旅行을 하고 돌아온 人士들의 입에서는 마치 天國이나 왔다 온 것처럼 말하는 비웃을 한결같이 배우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言動이나 심지어는 國民의 生活樣式 全般에서 異國風을 본 따고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접촉한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은 무슨 우리에게 관하여 놀라운 사실을 말할 때라도 우선은 제나라나 제나라 사람들의 것을 첫째로 꼽아 놓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 같다.

그리하여 韓國은 韓國 아닌 것으로 자꾸만 변모하여 가고 마침내 우리는 마음의 고향을 잃게 되었다.

美國式 日本式 西歐式 이렇듯 政治、經濟、文化、社會、全般의 不條理가 調和를 잃어 사뭇 混亂한 것은 느낌 뿐만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세나라 第三共和國에 가장 앞서 할 일은 어찌 되던 하나로서 調和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사람의 마음들이 한곳으로 얽혀 든든한 세살림의 바탕을 마련해야 하겠는데 그 밑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첫째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선 자랑스러운 것을 못가진 연고를 깨달을 수 있다. 이 자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온 국민에게 확대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자랑할 것을 잃고 또 잃었다.

지금 韓國의 軍人은 이토록 자랑을 못가진 우리 국민들에게 唯一하게 남은 하나의 자랑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도루 찾는데 하나로서의 協同統一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자랑을 밑바탕 삼아야 하고 軍人은 바로 자랑의 對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순서는 지금과 같단하다. 그것은 國民에게 理解되는 軍人이 되는 길이고, 理解되기 위해서는 가까워져야 하고 가까워지면 本能的 親和가 可能하게 될 것이다.

우리軍은 國民안에 있으면서도 國民과의 거리를 멀리 느껴왔다.

그것은 軍의 질서가 國民生活의 무질서를 방관하였고 國民의 희박한 愛國心이 軍의 意義를 沒知覺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스스로를 친시한 軍人들의 反省도 아울러 促求되어야 할 重大한 문제도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高貴한 使命感으로 스스로의 矜持를 誇示하고 喜모의 對象이 되지 못한 軍을 國民은 親密하게 對할 수가 없었던 사실 말이다.

韓國을 지키는 것이 韓國軍人이요 그는 韓國民族에 의하고 韓國民族을 위할진대 어찌 民族的 親和의 中心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韓國人의 자세 그것은 곧 우리 民族의 자세이며 스스로 자랑스러이 서는 그 모습은 불행운 이기고 새로운 나라의 再建을 다짐하여 일어난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擴大되고 말것이다.

第三共和國、그것은 새로 단장한 간판이 아니라 內容이며 이의 成長 繁榮을 위해 軍人은 殉國의 誠으로 똘똘 뭉쳐 빛나야 한다.

- 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 돌 셋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울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겨이 받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추다.
- 인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다.
- 의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신중한다.
- 군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國會議員選舉法概觀

— 特히 比例代表制의 解說을 中心으로 —

金 仁 煥

一、序 言

一九六二年 二月 二六日 改正公布된 憲法는 國會를 單院制로 함과 동시에 政府 形態도 또한 大統領中心制을 채택하고 國會議員의 實數 및 候補者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條件을 規定하였을 뿐 아니라 選舉管理의 公營化를 위한 基本的인 事項을 規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改正憲法에 의한 第三共和國의 國會議員選舉를 위하여는 舊國會議員選舉法을 廢止 乃至는 改正하여 改正憲法의 취지에 따르는 選舉制度를 確立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이러한 事情下에서 改正憲法에 부합되는 國會議員의 選舉制度를 確立하

기 위하여 舊憲法의 國會議員選舉法을 廢止 하고 一九六三年 一月 十六日 새로이 制定 公布된 것이 곧 이번 國會議員選舉에 適用된 새 國會議員選舉法이다.

廢止된 舊國會議員選舉法이 制定된 當時의 憲法은 國會의 兩院制와 內閣責任制의 權力構造를 規定하고 國會議員의 選舉를 비롯한 選舉管理에 관하여는 아무런 規定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國會議員의 選舉에 관한 事項은 普通·平等·直接 秘密選舉를 保障하는 데 두리안에서 法律에 맡겨졌었다. 이에 따라 舊國會議員選舉法은 國會의 兩院制와 政府形態에 있어서 內閣責任制를 전제로 하였으며 選舉運動은 候補者中心의 體制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改正憲法에 기초된 新憲法 國會議員選舉法은 憲法에 規定된 基本的인 事項은 물론 選舉方法에 있어서 地域代表制(多數代表制)와 比例代表制를 아울러 채택한 것, 選舉運動에 있어서 철저한 公營制로 選舉運動을 엄격히 制限하고 있는 것, 地域選舉區가 人口 二〇萬을 기준으로 하므로써 과거의 二二三三個區에서 一三一個區로 大幅 減少된 것 등 많은 特徵을 지니고 있다.

이하 새 國會議員選舉法을 설명함에 있어 특히 우리나라 選舉制度에서 는 처음으로 채택된 比例代表制에 대한 설명을 重點으로 하여 새 選舉法의 特色을 概觀코지 한다.

二、選舉權과 被選舉權

二〇세 이상의 國民은 選舉權이 있고 二五세 이상의 國民은 被選舉權이 있다고 規定한 것은 舊法과 다찬가지다. 그러나 新法에서는 選舉犯으로 處罰된 者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의 停止期間을 延長하고 兵役義務를 忌避하여 禁錮以上の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일정한 期間 被選舉權을 制限하는 것等 選舉權 및 被選舉權의 停止事由를 확장하고 있다.

三、選舉區域과 議員定數

(地域代表와 比例代表)

과거 우리나라의 國會議員選舉制度는 小選舉區에 의한 多數代表制로 一貫하여 왔다. 選舉區는 區、市、郡을 單位로 하여 一選舉區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人口가 十五萬을 넘는 경우에는 그 超過 人口 十萬人마다 一選舉區를 增設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새 國會議員選舉法은 從來의 選舉制度에 一大 轉換을 가져와 選舉區를 地域選舉區와 全國選舉區의 二元制로 하여 前者에는 小選舉區에 의한

多數代表制로 하고 後者에는 大選區에 의한 比例代表制를 채택하였다. 改正憲法은 國會議員의 定數를 一五〇人 이상 二〇〇人 이하로 制限 規定하고 있으므로 國會議員選舉法은 그 범위 안에서 地域 選舉區에서 多數代表制로 選出된 議員數를 一三人으로 하고 이의 三분의 一에 해당하는 四四人은 全國選舉區에서 比例代表制로 選出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比例代表制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채택된 制度이므로 이에 대한 理解를 돕고자 여기서 比例代表制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을 가하고자 한다.

四、比例代表制의 意義

比例代表制는 政黨의 存在를 전제로 하고 各政黨의 得票數에 比例하여 當選者를 選定하는 選舉制度이다. 이것은 一選舉區에서 多數人을 選出하는 大選區制와 必然의 結果로 結託된다. 比例代表制에 있어서는 各政黨의 得票數에 比例하여 그 當選者를 選定하므로 多數代表制에서 보는 바와 같은 多數者와 少數者의 對立과 勝敗는 없고 다만 各政黨은 平行的으로 그

得票數에 比例하여 代表되고 있는 데 불과하다.

比例代表制에 있어서는 政黨, 즉 純粹한 人的 團體가 全體系의 基礎가 되고 있는 까닭에 選舉區의 區分에 있어서와 같이 選舉人을 地域의 團體로 分裂하는 것은 比例代表制와 矛盾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比例代表制에 있어서는 選舉區에 의한 制約을 解消한 目的으로 단일 一選舉區에서 當選에 필요한 票數가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票數를 死票로 하지 않고 全國의 選舉區에서 同種의 票數를 모아 그 票數에 比例하여 當選人을 獲得케 하는 方法이 使用되고 있다. 그런데 近代國家에 있어서 比例代表制가 채용되고 있는 가장 큰 理由는 그것이 個人主義的 自由의 原理이며 또한 純正한 民主主義의 原理를 意味한다는 데 있다. 「켈젠」이 말한 바와 같이 自己가 참가하고 議決한 法律에만 服종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原理라고 한다면 比例代表制에 있어서는 自己는 國家意思構成에 있어서 自己의 代表者로 選任한 者만을 設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比例代表制가 民

主義의 原理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하는 理由의 하나는 그것이 少數者의 保護를 의미하는 데 있다. 그것은 投票에 참가한 者는 동일한 정도로 議會의 구성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리적 理由와 함께 比例代表制는 또 일종의 倫理의 要請에 對應하고 있다. 즉多數代表制에 대하여 比例代表制는 得票數에 비례하여 當選者를 결정하므로 그것은 人間의 보편적인 정의관에 對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理由에서 1770年 佛蘭西 國立學士院(Académie Royale)의 一會員인 「드 보르다」(De Borda)에 의하여 案出된 이 제도는 第一次大戰 이후로 歐洲各國의 選舉制度를 지배하여 왔다.

五、比例代表制에 대한 批判

그러나 比例代表制도 理論의 옳으나 實踐의 옳으로 各種의 결합을 내포하고 있다. 理論의 옳으로 比例代表制는 國民主權의 原理가 규정하고 있는 全體로서의 國民의 개념과 모순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한다. 그것은 比例代表制에 있어서는 國會議員은 政黨에 의하여 指名되고 또한 議會에 있어

서서의 그 활동도 엄격히 政黨에 의하여 구속되므로 실제로 있어서 全體로서의 國民의 代表가 아니라 一政黨의 代表로서의 성격이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比例代表制에 있어서는 立候補者의 선택이 選舉人의 自由에 의하지 않고 政黨에 의하여 行하여 지므로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 代表를 선출하는 直接選舉와도 모순되고 있다. 다음 實踐的으로 比例代表制에 있어서는 少數政黨의 亂立을 초래하여 政局의 安全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게 하는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二次大戰 이후의 구라파에 있어서는 점차로 比例代表制에서 이탈하고 오히려 多數代表制로 接近하려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六、立法例

比例代表制에 대한 立法例 중에서 우리 選舉法의 理解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일의 선거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본래 第二帝國時代(1871~1918)에는 帝國議會(Reichstag)의 議員選舉時의 單一議員選舉區(小選舉區)에 의한

絕對的 多數代表制(過半數得票制)를 채택하고 있었다. 다음의 「바이말」共和國時代에 와서 비로서 政黨당이 제출하는 候補者名簿에 의거하는 엄격한 比例代表制가實施되었다. 이 時代에 채택된 比例代表制는 소위 固定「쿼터」식 比例代表制로 議員定數를 定함이 없이 六萬票마다 一議席을 政黨에 配定하였다. 이 時代의 選舉制度는 너무나 政黨中心의 엄격한 형태에 比例代表制였던 까닭에 그 결과는 群小政黨의 亂立을 招來하였으므로 이는 또한 政局의 不安定, 政權樹立의 곤란 등 좋지 못한 혼란을 가져와 마침내 「히틀러」에 의한 獨裁政權(第三帝國時代)을 내두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二次大戰後 독일은 국토가東西로 兩分되어 西獨(獨逸聯邦共和國)에서는 치열한 論爭 끝에 새로운 選舉法이 마련되었으므로 政黨들도 軍政當局의 認可를 얻어 새出發을 하게 되었다.

戰後 西獨의 選舉制度는 單純多數代表制와 比例代表制와의 混合型을 채택하고 있다. 즉 聯邦民議院의 法定議員數인 五一六名中 半數는 單一議員選舉制(Person-

enwhl)에 의하고 나머지 半數는 政黨의 比例代表制(Verhältnisswahl)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國民은 二個의 投票權을 가진다. 單一議員選舉制는 우리나라의 地域區選舉와 대체로 동일한 제도이나 無所屬도 立候補할 수 있는 點이 다르고 比例代表制에서는 政黨만이 提出할 수 있는 州選舉區候補者名簿(Landesliste)에 의 한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이 州選舉에서 各政黨의 州名簿가 얻은 投票數에 의거하여 議席을 配定한다. 그리고 西獨에서는 比例代表制의 가장 큰 短點이라고 할 수 있는 政黨亂立을 방지하기 위하여 群小政黨 沮止規定을 두고 있다. 즉 全國投票의 五% 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規定과 全國小選舉區에서 三人 이상의 當選者를 가져야 한다는 規定이 그것인데 이 群小政黨 沮止規定을 充足하지 못하는 政黨은 比例代表制에 의한 議席配當을 받지 못한다.

七、우리 國會議員選舉法에서의

比例代表制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새 國會議員選舉法은 地域選舉區에 의한 多數代表制와 全

國選舉區에 의한 比例代表制를 混合 채택 하여 多數代表(地域代表)로 選出될 議員을 一三人으로 하고 그의 三分의 一에 해당하는 四十四人은 比例代表로 選出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比例代表者의 選出은 前述한 西獨의 選舉制度에 있어서와 같이 國民이 二個의 投票權을 갖는 것이 아니고 各地域區에서의 有効投票을 集計하여 各政黨의 得票比率에 따라 政黨에 全國區議席을 配分하는 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새 選舉法이 規定한 全國區議席의 配分方法을 보면 第一位로 得票한 政黨(第一黨)의 得票比率이 百分의 五十 이상 일 때에는 各政黨의 得票比率에 따라 全國區議席을 配分하되 第一黨에 配分되는 議席數는 全國區議席定數의 三分의 二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第一黨의 得票比率이 百分의 五十未滿일 때에는 第一黨에 全國區議席의 二分의 一을 配分하고 나머지 議席을 第二黨이하의 政黨에 得票比率로 配分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第二黨의 得票가 第三黨 이하의 政黨의 得票總和의 二倍를 초과하지 못할 때에는 第二黨에게 나머지 議席의 三分의 二를 配分하고 그

나머지 議席을 第三黨 이하의 政黨에 그 得票比率로 配分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또한 比例代表의 議席配定에 있어서 우리 國會議員選舉法도 西獨의 그것과 같은 群小政黨 沮止規定을 두고 있다. 즉 地域區選舉에서 三席以上の 議席을 차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有効投票總數의 百分의 五를 得票하지 못한 政黨은 全國區議席을 配分받을 수 없도록 規定한 것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이 새 國會議員選舉法이 多數代表制에 重點을 두면서 比例代表制를 混合 채택한 것은 多數代表制의 가장 큰 短點이라고 할 수 있는 個人主義와 立候補者의 死票에 관한 諸問題를 政黨中心의 比例代表制를 混用함으로써 解決하고 反面에 比例代表制의 가장 큰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選舉人の 個人意思의 無視(政黨中心)、群小政黨의 亂立等 諸問題를 多數代表制를 重點의 으로 채택 混用함으로써 效果的으로 解決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八、議員候補者

國會議員의 候補가 되려는 者는 所屬政

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 改正憲法第三十六條第三項의 規定에 따라 國會議員選舉法은 政黨의 추천을 候補者登錄의 必要의 要件으로 하고 있다. 종래에는 議員候補者가 되려는 個人이 候補者登錄의 主體였으나 새로운 選舉制度에 있어서는 政黨이 黨의 主體가 된다.

政黨은 選舉日이 公布된 날로부터 七日 이내에 地域選舉區에 있어서는 候補者推薦書와 候補者의 承諾書를, 全國選舉區에 있어서는 政黨에서 順位를 定한 그 政黨의 全國區候補者名簿와 各候補者의 承諾書를 첨부하여 各各 地域區選舉管理委員會와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등록을 申請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各 校選舉權者는 政黨의 추천을 받아서만 候補者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無所屬의 立候補는 許容되지 아니한다.

九、選舉運動

選舉運動이라 함은 當選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選舉運動은 選舉를 純化하고 選舉結果를 選舉制度 本來의 意義에 부합되게

할 수 있는가의 與否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 選舉法은 과거의 議員候補者中心의 選舉運動制을 止揚하고, 철저한 公營制選舉運動의 원칙을 채택하여 많은 公營事項과 制限事項 및 禁止事項等を 規定하고 있다.

十、選舉日과 投票

새 國會議員選舉法에는 國會議員總選舉는 議員의 任期滿了日前 六十日로부터 二十日까지에 실시하되 選舉日은 늦어도 選舉日 三十日전에 大統領이 公告하게 하였다. 改正憲法附則 第二條는 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의 選舉 및 최초의 國會의 集會는 이 憲法의 公布日로부터 一年以内に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一九六三年 十二月 二十五일까지는 새 選舉法에 의한 國會議員選舉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에 의한 政府의 결정에 따라 今年十一月 中에는 새 國會議員選舉法에 의한 國會議員選舉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새 國會議員選舉法에 의한 選舉方法은 中選과 같이 記票方法에 의한 投票로서

하녀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를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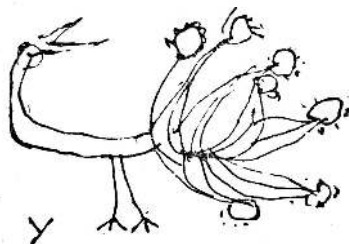
十一、當選人

새 國會議員選舉法은 多數代表制와 比例代表制를 混合하여 채택하였음으로 當選人의 決定에도 이 두個의 原理가 各各 단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地域選舉區에서는 小選舉區에 의한 多數代表制로 當選人을 정하므로 그 地域選舉區에서 有効投票의 相對的多數를 얻은 候補者가 當選人으로 되며 得票數가 같은 地域區 候補者가 二人이상인 場合에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가 결정된다.

全國選舉區에서는 全國區議席을 配分할 수 있는 政黨의 得票比率를 算出하고 원칙적으로 그 得票比率에 따라 全國區議席을 配分하여 그 政黨의 全國區候補者中에서 그 政黨에 配分에 議席數에 해당하는 者가 등록된 候補者名簿의 順位에 따라 當選人으로 된다.

軍士氣란 軍의 生命이오 命脈인 것이다. 戰爭
터에서 勝敗를 左右하는 焦點이 오직 그 士氣에
달려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록 戰場
이 아닌 平常時의 어느 때 어느 場所를 막론하고
라도 그 軍隊 組織과 秩序를 뒷받침하는 것은 오
직 士氣에 달려있는 것이다.



- ◇ 士氣向上을 爲한 諸問題
- ◇ 軍士氣와 健康
- ◇ 레크리에이션과 士氣
- ◇ 一線戰團操縱士의 士氣實態
- ◇ 士氣昂揚을 위한 나의提言

軍士氣의 實態와 提言

士氣向上을 爲한 諸問題



丁 海 瑛

一、序 論

現代를 가리켜서 管理의 時代라고 한다. 管理의 窮極的인 目標은 人力과 物資의 最少限支出로 賦課된 業務를 가장 効率的으로 完遂하는 데 있다.

한편 人事管理란 「從業員의 內在의 能力을 最大限으로 發揮케 하여 最大限의 成果를 確保할 수 있도록 그들을 待遇하고 組織하는 方法에 關한 規範體系이다」라고 이分野의 指導者인 Thomas G. Spates 氏는 定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좋은 人事管理란 各사람의 能力을 最大限으로 發揮케 하여 個個人이 自己職務에서 充分한 滿足을 얻고 그가 屬하는 作業集團의 一員으로서 滿足할 수 있도록 助力하는 일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圓

滿한 人事管理 없이는 組織의 目標을 合理的이고 効率性 있게 達成할 수 없을 뿐더러 統率이 어렵게 되고 따라서 管理의 目標達成도 不可能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여기서 우리가 注目할 點은 非單 人事管理擔當者뿐 아니라 모든 經營階層의 管理層으로부터 一線監督官에 이르기까지 圓滿한 人事管理를 爲한 責任이 메워져 있다는事實이다. 美空軍便覽(USAF. GUIDE)에도 「部下를 指揮하는 모든 管理者가 그 職務를 有效하게 遂行하기 爲하여는 人事管理上의 施策과 節次를 使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指摘하고 있다. 왜냐하면 個人 或은 集團의 精神狀態에 影響을 주는 모든 要素가 곧 軍隊士氣의 諸要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士氣의 定義부터 始作해서 士

氣啓發에 關聯된 全般的인 問題에 對한 考案을 함으로써 人事管理를 通한 士氣業務의 比重을 確認해 보는 것도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二、士氣의 定義

먼저 士氣의 定義를 要約해 보면 自信에 對한 信念、戰友에 對한 信賴、그리고 自己의 任務를 効果的이고 能率의 으로 履行하려는 決心、即 各兵士로 하여금 各自의 環境에 滿足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러한 心的 狀態라고 表現할 수 있다.

三、士氣의 性格

士氣가 높으면 다음과 같은 傾向을 取하게 됨으로써 能率의 인 일을 할 수 있다.

(1) 힘찬 努力(業務에 對한 關心과 熱誠이 大端하다)

(2) 高度의 自發的 協力(任務에 對한 獻身의 努力과 忠誠心이 充滿하다)

(3) 紀律에 關한 問題減少(服從心이 良好하다)

(4) 入院患者 減少(身心이 健全하다)

(5) 不安除去(安全性이 있다)

反對로 士氣가 낮으면 다음과 같은 傾向을 取하게 됨

으로 非能率의 이다.

(1) 被動的 勤務意識(殘餘服務期間을 따지고 있다)

(2) 不平不滿(團結이 안 된다)

(3) 競爭의 態度의 減退(勤務意慾이 없다)

(4) 不服從狀態의 發生

(5) 訓戒와 權限行使에 依한 成果維持

(6) 直接的인 監督에 依存

(7) 上司에 對한 露骨의 憎惡

따라서 높은 士氣의 效果란 士氣狀態가 組織에 寄與하는 價値의 證據라고 定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效果面을 다음과 같이 列舉할 수 있다.

(1) 熱意에 차 있다.

規程에 依한 皮相의 服從限界를 넘어서 自己의 任務를 다 하려는 自發的인 態度 即 調和된 創意力.

(2) 軍紀가 嚴正하다.

團體의 利益을 爲하여 自發的이며 各個人의 理解깊은 服從.

(3) 自己信念에 차 있다.

職務의 嗜好如何에 關한 實質的 評價와 過去의 訓練 및 現在의 統率力에 對한 實質的 評價에 따르는 個人的 價値라는 基本的 觀念.

(4) 滿足하고 있다.

不滿과 걱정에서의 解放 即 戰爭遂行에 있어서나 自己의 日常的인 生活部面에 있어서의 基本的 滿足.

(5) 組織에 對한 自負心이 있다.

自己가 屬하고 있는 組織이 가장 훌륭한 組織이라고

믿는 確固한 信念.

(6) 忠誠心이 있다.

負課된 任務에 對한 業務以上の 깊은 誠實性이 있다.

이것은 家族間의 忠誠과 近似한 것이며 高度의 責任

感을 隨伴하여야 한다는데 그 特徵이 있다.

四、軍隊士氣의 諸要素

個人或은 集團의 精神狀態에 影響을 주는 모든 要素

로서 다음 事項을 列舉할 수 있다.

(1) 統率力

(2) 信 念

(3) 任務完遂에 對한 認定(褒賞)

(4) 集團의 一致團結과 部隊自負心

(Team意識, 競爭意識, 傳統)

(5) 訓練과 教育

(6) 安逸과 休養

(7) 才能을 發揮할 수 있는 機會(適材適所)

(8) 外部的 影響(家族狀態, 書信)

(9) 組織機構(T/O)의 適格性, 意思疏通)

五、士氣測定の 意義

士氣發達을 爲한 先決問題로서 有型的인 資料의 蒐集 分析, 統計 評價結果에 對한 時間的 變位에 다른는 優劣을 識別하여 士氣發達의 動機를 提供함에 있다. 即 企業의 規模가 크면 클수록 經營層이 從業員과 直接的으로 接觸해서 그 業務意欲을 높이기란 어렵지 않기 때문에 科學的 調查方法을 통해서 從業員의 不平이나 不滿을 미리 알아내고 從業員의 勸務意欲의 狀況을 把握해 보려는데 그 意義가 있다.

六、士氣測定方法

士氣調査(Morale Survey) 態度調査(Attitude Survey) 또는 組織調査(Organization Survey)라고도 하는데 그 具體的 方法에는 다음 두가지가 있다.

(1) 面接法

從業員을 直接(面接)하여 그들이 갖는 不滿滿足의 狀況을 알고 그들이 지닌 情感(Sentiment)을 把握하려는 方式으로서 다음 두가지로 다시 分類된다.

가, 指示的 面接法(Directive Interview) 質問事項

을 準備해 가지고 調查係에서 質問하면서 用紙에 記入하는 方法.

나, 非指示的 面接方法 (Non-directive Interview) 質問事項의 準備없이 從業員에게 自發的인 不滿감은 것을 이야기시키는 方法.

(2) 質問紙法 (Questionnaire) 質問事項을 적은 用紙에 O×式 解答을 얻는 方法.

그러나 學者에 따라서는 生産高, 여론조사, 出退勤狀況 離職率等을 分析하는 方法도 없지 않다. 그러나 軍隊 라는 特殊性에 立脚하여 軍隊에 適用하기 爲한 方法으로 다음과 같은 區分을 適用하고 있다.

(1) 略式方法 (Informal Method)

다음 9 個乃至 14 個 項目의 測定要素를 蒐集, 分析, 評價함으로써 時間的 變位에 따르는 士氣의 程度 또는 傾向을 識別한다.

- 가, 軍法會議件數
- 나, 性病發生率
- 다, 轉屬要求者數
- 라, 民事事件數
- 마, 無斷缺勤과 脫營件數
- 바, 入院件數와 脫營行爲(入院中)
- 사, 不注意로 因한 裝備品の 損失

아, 敬禮

자, 整髮을 包含하는 服裝狀態

但 戰鬪地區에서는 다음 事項을 追加

차, 部隊目的 完遂失敗回數

카, 假病者數

타, 神經病者數

파, 落伍者數

하, 自己過誤로 傷害를 입은 者數

(2) 直接方法 (Formal Method)

質問紙法과 同一한 方法으로 다음과 같은 着眼點에 對한 各構成員의 感情에 關한 獨特한 質問을 試圖한다. 따라서 同質的 單位部隊에 對한 答案을 同時에 作成케 함으로써 各着眼點間의 指數差異를 分析 評價하여 士氣의 程度 또는 傾向을 識別할 수 있다.

- 가, 食堂
- 나, 娛樂施設
- 다, 訓練計劃
- 라, 進級
- 마, 組織, 統率力
- 바, BX便宜
- 사, 一般內務生活
- 아, 自己自身の 組織

자, 軍事編制

이 때 質問의 形態는 OX나 "Multiple choice"로 하되 簡略하고 明白한 말을 써야하며 各質問은 單하나의 問題에 局限시키되 無記名으로하여 率直한 答을 保障하고 모는 質問에는 點數를 定하고 採點하여야 한다. 문제의 核心은 士氣의 效果만이 士氣測定의 眞實한 指標가 되는 것임으로 士氣調査結果에 對한 過信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士氣란 어디까지나 相對的이기 때문에 가령 優秀한 管理者 밑에 있는 某職場이 最低의 勤務意慾指數를 나타냈다는 實例를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機關에는 熟練工이 壓倒적으로 많은 代身에 給與를 비롯한 諸般保價에 對한 不滿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當局者가 調査할 때에 없던 不平도 第三者를 介入시켜서 調査하게 되면 많이 쏟아져 나오는 心理的 傾向도 없지 않은 것이다.

七, 士氣啓發策

測定된 士氣程度나 傾向을 批判하여 適期에 是正事項을 提示 또는 警告를 發함으로써 士氣의 低下를 未然에 防止하고 (人事施策의 是正) 나아가서는 積極的인 士氣啓發策을 保全케 함은 勿論이름 果敢히 遂行시킨다.

(1) 提案制度 (Suggestion scheme)

從業員으로부터 作業 其他에 關한 改善案을 提案케 하고 이를 審査하여 獎勵金을 주는 制度이다.

이 制度의 意義는 提案된 內容自體를 利用하는 것으로 提案을 하기 爲한 思考行爲自體에 目的이 있다는 點에 意義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缺陷事項이 있다.

가, 提案課程은 共同的 性質이나 榮譽과 獎勵金은 提案人에게 限定됨으로 同僚와의 關係에 龜裂을 이룬다.

나, 上官과 相談치 않음으로 上下關係의 惡化가 念慮된다.

다, Hint를 秘藏하려는 傾向때문에 Idea 發展上에 沮害가 된다.

라, 創設初期에는 活潑한 것 같으나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서 有名無實해지기 쉽다.

(2) 人事相談制度 (Personnel counseling program)

從業員의 職場 또는 家庭에 있어서의 苦悶, 煩悶, 苦情 등을 듣고 從業員 自身이 그것을 解決하도록 援助하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非公式組織과 그 集團의 情感 (Group sentiment)을 把握하도록 強調하고 있으나 모든 管理層이 (특히 將校) 果然 어느 程度 이와 같은 職能에

副應하고 있는지는疑問이다.

가령 指示的 相談(Directive Counselling)보다 한層 새로운 非指示的 相談(Non-directive Counselling)을 驅使해 가면서 要는 本人의 自發的인 解決을 돕는데 寄與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士氣를 向上시키는 一般的 方法(라테나의 5個 項目)

가, 各者에게 自己職務遂行能力에 對한 反省을 갖게한다.

나, 部下에게 影響을 與한 變更事項을 事前에 알리라.

다, 個人의 才能을 最大限으로 利用할것(適材適所)과, 職務分擔을 公正하게 지킨도록 한다.

라, 權力을 濫用하려는 誘惑에 抵抗할것(上司의 權力濫用에 抵抗)

(4) 士氣維持機構

그러면 軍內部에 士氣維持機構란 어떤 것인가. 美空軍MANUAL에 依하면 士氣維持機構를 通常 個人士氣面과 部隊士氣面으로 區分하고 있다. 이제 같은 區分 밑에서 當軍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져야 할 기구나 제도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가, 個人士氣를 爲한面.

(가) 安全에 對한 慾望을 爲한것.

定期俸給支拂

各種手當支拂

休暇費支拂

軍人 및 公務員年金業務(軍人年金法)

軍人保險業務(軍人保險法)

郵便貯金業務(國民貯蓄組合法)

生命保險業務(Chico)

各種補償金

轉役給與金 및 轉役者被服費

長期入院士兵轉役特別給與金

(閣令 239號)

軍人死亡給與金

軍人戰死給與金

航空獎勵金

軍事援護補償金

入院加添

個人의 權利保障(軍法會議懲戒委員會)

家族 및 財産의 保護

遺族年金 및 傷害年金

赤十字社

慈善協會

戰沒軍警遺子女保護(推薦)

軍事援護對象者定着貸付(推薦)

軍牧業務(告白可能)

監察業務(摘發 또는 是正)

(나) 基本的인 慰安에 對한 慾望을 爲한것.

營內食堂(Cub) 洗濯所、理髮所、劇場、

基地 B X

娛樂室

나、部隊士氣를 爲한 面

(가) 部隊運營基金의 活用

B X를 通한 利益金

褒賞

파티

體育競技를 爲한 裝備

休息室裝備

(나) 赤十字社의 奉仕(利用)

(다) 基地援護事業基金(全員의 福利)

(라) 空軍慈善協會

(마) 娛樂施設

다、基地 特殊奉仕

(가) 軍 牧

(나) 法務官

(다) 監察官

八、結 論

지금까지 所謂 管理時代에 사는 軍人으로서 士氣業務가 차지하는 人事管理上의 比重을 考察해 보았다. 士氣를 向上시킬 一般的 方法에 對한 科學的인 運用은 公正한 人事管理에서 出發하고 있음을 再論한 餘地는 없다. 그러나 軍隊士氣의 諸要素에서 볼수 있다싶이 個人 또는 集團의 精神狀態에 影響을 주는 모든 要素를 充足시키려면 어느 特定職階의 職能遂行에만 期待할性質의 課題가 아니라 는 點에 우선 首肯이 갈 것이다. 卽 높은 士氣의 效果를 올리기 爲해서는 各種集團의 모든 長들이 士氣向上을 爲한 諸問題에 보다 많은 理解와 關心을 가지고 보다 積極的인 士氣啓發策을 試圖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個個의 GROUP 士氣向上의 結局 全空軍의 士氣昂揚을 意味해 주기 때문이다. 兼하여 우리空軍이 隊內에 가지고 있는 士氣維持機構에 對해서 可及的인 是대를 紹介하고 下士官以上의 모든 管理層이 지녀야 할 士氣向上의 共同目標을 再認識함으로써 보다 나은 空軍의 士氣가 保障되기를 願하는 마음懇切하다.

☆ 參考文獻

國防을 爲한 軍事通信 John Robert Belshire

現代經營學 坂本藤良

經營を生かす人間關係 堀川直義

人事管理論 (Part P. Gors)

人事行政論 (Charles A. Myers) 朴東緒

軍士氣와 健康

— 精神的 肉體的 健康이 軍士氣에 미치는 影響 —



桂 元 喆

序 言

軍隊에 있어서 『士氣』의 旺盛程度를 測定하는 한가지 尺度로서 그 部隊 將兵의 『性病 罹患率』과 『遊休兵力率』을 利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兩者가 모두 軍風紀 確立 卽 規程 및 指示의 履行狀態와 直接 關聯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諸規程과 指示를 제대로 지키고 軍風紀가 確立되어 있으면, 性病率이나 遊休兵力率이 低下되는 것이며, 이와 反對로 健全한 精神이 缺乏되어 있거나 士氣가 低下되어 있으면 軍風紀가 弛緩되어 諸規程 및 指示를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精神的 肉體的으로 不節制를 함으로써 性病에 罹患된 者가 많아지고 또한 傷病으로 勤務에 從事치 못하는 者 所謂 『遊休兵力』이 增加하게되며, 나아가서는 部隊의 機能과 戰力을 癱痺시켜 軍事運用을 非效果的으로 이끌어나가게 된다.

따라서 이 性病率과 遊休兵力率은 그 部隊의 訓練되어 있는 程度와 士氣의 旺盛程度를 表示하는 것이되며, 同時에 精神的인 健康과 肉體的인 健康 如何를 알려주는 것이다. 또 한편 이 諸規程 및 指示의 履行狀態는 卽 命令에 服從하는 形態를 알려주는 것으로 命令이 내

리자마자 自律的으로 이를 지키는 習性을 測定함에 있어서 命令이 行動으로 옮겨지기까지의 時間 卽 反應時間이 짧으면 贊을수록 訓練이 잘되어 있고 士氣가 旺盛한 軍隊라고 볼수 있으며 그와 反對로 命令에 對한 反應時間이 늦으면 늦을수록 訓練이 未熟하고 士氣가 低下된 軍隊라고 볼수 있다. 이는 戰平時를 莫論하고 上司로부터 『命令』이나 『指示』를 받았을 때에 健全한 精神力과 強健한 體力을 가질수록 直刻的으로 재빠르게 復命과 責任完遂를 하게되나 萬一에 그 復命者의 精神力이나 體力이 健全치 못할 境遇이 命令에 對한 反應이 敏活치 못하게 되며 또한 어려운 命令일수록 또는 周圍環境與件이 고루지 못할 때일수록 더욱 敏活치 못해진다. 이는 곧 그 部隊의 士氣가 低落된 것을 立證하는 것이며 戰鬥力의 弱化를 招來하고 나아가서는 그 部隊의 機能을 麻痺시키게 된다.

賢明한 軍의 指導者들은 이 士氣昂揚 問題를 取扱할 때 恒常 精神 및 肉體의 健康과의 關聯性을 銘心하고 있으며 第一 손쉽고 經濟的이고 効果的인 方案인 이 健康增進에 對하여 많은 關心을 갖이고 部下將兵으로 하여금 恒常 明朗하고 快活한 軍隊生活를 維持케 하며, 士氣를 昂揚시키고 있다.

이 機會에 筆者는 『士氣』를 그와 密接한 關係를 갖인

健康而에서 檢討하여 보고자 한다.

健康의 意義

옛부터 『健全한 精神은 健全한 身體에 깃든다』라고 했다. 그러던 그 『健全한 精神』과 『健全한 身體』란 무엇인가? 두말 할것 없이 健康한 精神과 身體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病이 났을 때에만 비로소 自己 몸을 걱정하고 돌보게 되며 平素 健康히 지낼 때에는 自己 身體의 健康에 對해서 고마움을 잊어 버리고 지낸다. 通俗的으로 『健康』이라 함을 『무탈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決코 이것이 『健康』에 對한 完全한 解決이라고 볼수는 없다. 다시말해서 『健康』이라는 것은 單只 『心身에 故障이 없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健康』이 넘쳐흐르며 卽 透徹한 軍人 精神이 융솟음치는 狀態를 말하며 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나 어떠한 어려운 일은 先한 일이라도 率先해서 堪當할 態勢를 갖춘 狀態를 말한다.

如何든 첫째로 疾病이나 異常이 없는 것이 第一條件인데 이것은 다만 肉體的인 面에서 뿐만이 아니라 精神的인 面社會的인 面에서도 異常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재아무리 肉體가 健康하더라도 天癩

바보인境遇에는 絶對로 그 사람을 健康하다고 볼수 없으며 또 精神面에 있어서 疾病이 없다 하더라도 性格異常 때문에 同僚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協助가 안되어 團體生活을 維持해 나가기 어려운境遇 또한 健康하다고 볼수는 없다. 둘째로 活動力 作業能力이 正常的으로 維持 되어야만 健康하다고 할수 있다. 即將兵을 莫論하고 말은바 軍務를 充分히 遂行할수 있어야 한다.

「나는 恒常 事務空勤務만을 해야한다」라든가 또는 그와 反對로 「나는 行政業務에는 趣味가 없으니까 全然할수 없다」는 等等的의 自己本位의 軍隊服務를 願하는 者들은 活動力 作業能力面에서 健康하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

士氣低下—疾病—士氣低下의 惡循環

(健康維持의 失敗로 作戰機能이 痲痺된 戰例)

個個人的의 健康維持의 失敗는 個個人的의 士氣低下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全部隊의 士氣를 低下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全作戰을 失敗로 몰아가게 한 戰例가 許多하다.

一八五四年 「크리미아」 戰役時 聯合軍 部隊內에 『콜레라』가 大流行하여 作戰機能이 痲痺된적이 있었고 또한 二次大戰當時 「뉴기니아」와 「과달카날」 方面에서는

戰傷者數 보다 『마라리아』 患者가 훨씬 더 많았으며 이 때문에 戰鬪를 해보지도 못하고 遊休兵力이 續出되어 美軍의 士氣가 極度로 低下되므로써 苦戰을 한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例를 들더라도 六二五前 智異山 共匪討伐作戰때, 經驗 및 訓練不足과 衛生施設 및 衛生觀念不足으로 因하여 많은 國軍이 冬傷에 걸려 손발의 機能이 痲痺되어 士氣가 떨어지고 또한 士氣가 떨어짐으로써 더욱 冬傷 및 其他의 患者가 續出되어 戰力이 低下되었다. 또한 韓國戰亂中 共產軍에 있어서도 衛生施設 및 衛生觀念不足과 訓練不足으로 因해서 士氣가 低下되고 多數의 冬傷 其他의 病傷者가 發生하였음이 알려져 있다.

이 戰爭과 冬傷은 健康과 士氣와의 關聯性을 가진 좋은 例이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戰史를 들추어 보면 傳染病과 冬傷은 一八一二年 『폴렌드』에서 『나폴레온』軍이 敗戰한 直接原因으로 되어있고 또한 一八五四年 「크리미아」 戰役 當時 「티벤」 救世軍의 失敗의 原因으로 되었으며, 一次大戰當時에는 佛軍의 所謂 『塹壕足』으로 많은 苦戰을 한것이 記錄으로 남아있다.

이 傳染病과 冬傷은 特히 士氣와 重大한 相關性을 가지고 있으며, 士氣가 旺盛한 軍隊에 있어서는 容易하게

이를豫防할수 있으며, 그와反對로 士氣가 墜落하여 弱
는 軍隊에는 大端히 發生하기 쉬우며, 따라서 士氣는
더욱 低下된다.

그 理由는 士氣가 旺盛한 軍隊에서는 모든 規程의 履
行狀態가 (例를 들면 豫防注射接種, 身體檢査, 個人衛
生) 철저하기 때문이다. 反對로 士氣가 墜落한 軍隊에
있어서는 모두가 萎縮되어 있어 動作이 게으러지고 命
令 指示에 對한 履行狀態가 不良하여 傳染病이나 冬傷
等に 걸리기 쉬우며, 따라서 士氣는 더욱 墜落하고 患者
는 더 많이 생긴다는 疾病과 士氣低下의 惡循環을 되풀
리하여 결국 戰意가 없어져 部隊는 無力化되고 만다.

强健한 身體와 士氣

제아무리 明朗하고 快活하며 堅實하고 萬事에 協調
的이면서 積極의 이념 將兵일지라도 一旦 身體가 虛弱해
지면 自然히 沈鬱해지고 注意力이 散漫해져서 無氣力
하게 되며, 모든 일에 消極의 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제아무리 天才라도 業務能率이 墜落하며 따라서 士氣
가 低下되고 士氣가 低下되면 더욱 사람이 萎縮되고 마
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個人이 屬하고 있는 集
團에 까지도 좋지 못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即 身體가
健康치 못하면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눈살을 찌푸리

게 되어 相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不愉快한 感을 주
게 할 뿐만 아니라 團體活動에 있어서도 消極의 이고 責
任感이 稀薄해진 獨善의 이고 非協調的, 非調和的인 사
람이 되어 自然히 團結을 破壞시키고 同僚에게 공연
한 負擔을 줌으로써 은 部隊의 士氣를 墜落시키게
한다.

反面에 身體가 强健하면 自然히 性格面에서 明朗快活
해지고 勇敢하며 일 處理에 果斷性이 있고 正義感이 强
해지며 積極의 이면서 責任感이 旺盛함으로써 個人의
作業能率을 向上시킬 뿐만 아니라 團體活動에 있어서
도 集團의 명량한 雰圍氣를 造成함으로써 그 集團의 士
氣는 더욱 昂揚되며 나아가서 그 集團의 團結力은 더욱
鞏固히 된다.

그러므로 健康은 指揮官이나 上官으로서의 必須要件
이 될뿐만 아니라 集團의 構成分子 個人이 다같이 지
녀야 할 必須要件인 것이다.

健全한 精神과 士氣

健全한 精神은 强健한 肉體에 못지 않게 士氣에 重要
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精神面에서 健康
치 못한 사람은 自然히 性格에 缺陷이 생기며, 그 缺陷

의 度를 지나치면 行動異常으로 나타나게 된다. 即 躁鬱的, 忘想的, 緊張的, 히스테리의, 사디스트의, 同性愛的인 行動으로서 軍隊의 團結을 破壞하고 士氣를 墜트럽으므로 軍運營上의 失敗를 가져오게 된다.

軍에 있어서 그 部隊指揮官의 統率力 如何에 따라 部下將兵의 士氣가 크게 左右되며 그 部隊의 運命이 決定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部隊指揮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視되어야 할 것은 그 部隊指揮官의 올바른 統率力인 것이며 올바른 統率力이 이루어질 때 部下들의 服從心은 至誠으로 되고 따라서 그 部隊의 士氣는 高調되고 軍紀가 確立되며 戰力이 向上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이 統率力은 그 指揮官이나 上級者의 그때 그때의 精神健康狀態에 많이 左右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健康한 精神力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올바른 統率力을 發揮할 수 있으나 精神健康에 缺陷이 생기면 이것은 統率力에 貧困을 招來하게 되며, 또한 拙劣한 統率力은 連鎖反應의 軍士氣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다 같은 人間이기 때문에 恒常 周圍環境에 따라 感情이 左右된다. 卑近한 例를 들어서 알기 쉽게 말해보기로 하자. 어떤 家庭的으로도 圓滿한 上級者가 自己집 꼬마들의 餽送을 받고 明朗하고

快活한 氣分으로 出勤했다면 말나는 사람마다 明朗한 微笑를 分配해 줄 수 있어 그 部下되는 사람들도 自然히 明朗해지고 部隊 全體가 明朗한 가운데 活氣를 띄고 하루의 첫 出發을 하게 되며 相互間에 尊敬心과 協助心이 旺盛해지고 따라서 上下左右의 團結이 鞏固하게 되어 그 部隊內의 士氣는 衝天하고 部隊任務遂行을 成功的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그러나 지난밤의 過飲으로 睡眠不足인 불은 눈과 아침도 못먹은 쓰라린 속을 가지고 집을 나올때도 귀여운 아이들의 餽送代身 아내의 不平을 듣고 울근했다면, 이 上級者의 마음속에는 不安과 慾求不滿이 多分히 造成되어 自然히 이맛살은 찌푸러지고 말나는 사람과 和氣에 찬 人事는 커녕 萬事가 못마땅 하다는 듯 神經質을 부리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그 날 하루 業務의 스타트는 알아볼만하다 이것은 비단 營外者의 境遇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營內者의 境遇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어떤 한 사람이 라도 精神의인 面에서의 健全성을 잃어 버리고 缺陷을 가지게 되면 連鎖反應의 軍士氣가 明朗성을 잃고 침울해지며 相互間的 融和團結이 破壞되고 마는 것이다. 이 밖에도 精神의인 不健全으로 因하여 不平不滿을 일삼는 사람은 모두가 團結을 破壞하고 軍의 士氣를 低下시키는 精神健康에 있어서의 落伍者가 되는 것이다.

健康維持의 方法

앞서 말한 士氣와 關係를 가지고 있는 精神的、肉體의、健康을 維持하고 向上시키기 위해서 몇가지 主要 方法을 말해 보기로 한다.

먼저 健康이란 單只 『病이 없다』는 것이라는 消極的인 觀念을 고쳐야 하며、軍隊生活에 있어서의 健康의 標準을 強健한 體力과 健全한 軍人精神임을 銘心하고 이 目標에 到達하도록 努力하는 마음이 必要하다.

둘째로 위선 病에 걸리거나 몸이 虛弱해지지 않도록 個人衛生에 留意하고 環境衛生 管理를 徹底히 하여 健康診斷을 通하여 身體의 異常을 早期發見함으로써 豫防을 徹底히 해야 할 것이다. 軍風紀가 確立된 軍隊에 있어서의 健康管理에 對한 諸規程을 履行함으로써 健康이 容易하게 維持된다.

셋째로 強健한 體力の 維持를 爲하여서는 規則的인 兵營生活뿐만 아니라 平素에 適當한 스포츠를 通하여 身體를 鍛鍊해야 한다. 同時에 過勞를 避하고 休日을 利用하여 充分한 休息을 加함으로써 健康을 維持해야 할 것이다. 疲勞의 蓄積은 健康을 害치는 要因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健全한 精神을 維持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宗敎的인 信仰生活은 精神의 修養을 俾하고 마음의 平和를 얻음으로써 個個人의 精神健康의 均衡을 維持하는데 最適의 方法이다. 또한 團體의 功勳을 運動競技中 可及的 여러사람이 參與할 수 있는 球技等을 장려하여 上下左右가 團結함으로써 『팀웍』(Teamwork)을 이룰때 上下가 渾然一致되며 協同精神、犧牲精神、敢闘精神等을 旺盛하게 發揮하며 明朗한 雰圍氣 속에서 目標達成을 爲해 모두가 邁進하게 되는 것이다.

結 言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健康은 軍隊의 士氣를 左右하는 原動力이 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肉體의 健康뿐만 아니라 精神面에 있어서의 健康도 大端히 重要하다는 것을 우리 將兵들은 잘 認識해야 할 것이다. 特히 指導의 立場에 있는 將校나, 下士官들은 恒常이 健康과 士氣低下의 惡循環 相關關係를 充分히 理解하고 銘心한 것이며, 이에 對한 解決點을 恒常 研究改善함으로써 軍士氣를 振作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 透徹한 軍人精神과 強健한 身體는 旺盛한 士氣를 振作시킴으로써 團結을 이룩하고 그 部隊를 勝利의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레크리에이션과 士氣



沈 珪

인간의 문명은 의기권 밖까지 미치지 시작했다.

이 급진적인 문명의 발달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우주병이라든가 원자병, 노이로제 같은 것들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대표적 부산물들이다.

자동차가 달리는 데 연료만 있고 물의 냉각 장치가 없다면 과열로 기관의 기능이 상실 된다는 것은 너무 평범한 상식이다.

우리들도 이 급진적인 문명에 게 피해를 입고 있어서 정신과 육체를 냉각시키는 작용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 냉각과정을 말해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은 우리들에게 단체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현동심이나 넓은 마음을 키워 꿈과 의

욕을 주는 공급기관의 역할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과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공군은 창공의 동경자와 애국의 청년들도 조직된 단체이다. 원대한 장래의 꿈을 이루고 부잡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하며 발전과 강군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면 명령일하에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개인 개인의 힘이 필요 하다. 힘을 가리켜 사기라 한다면 높은 사기의 필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강력한 명령계통의 확립을 촉자는 강제하는 것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시대감과 뒤떨어진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만한 인간관계와 알맞는 레크리에이션,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뚜렷한 인식이 잘 조화될 때 비로소 높고 왕성한 사기가 형성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

들은 협동하는 마음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 자기가 소속한 단체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남을 높여 자기를 침묵할 수 있는 야량이 없다는 얘길 것이다.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볼때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나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올바른 생활자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겠다.

우리들의 생활조건들이 너무도 복잡하다는 것은 거칠 수 없다.

구름 속에서 제기의 움직임과 수신되는 신호만을 믿고 비행하는 조종사들, 까마귀떼 같이 날아드는 항공기의 교동정리를 하고 있는 관제사들, 시동중인 제트엔진 앞에서 잘못 일선 했다가는 흡입관 속으로 빨려들어갈 정비사들, 쌍이고 쌍인 서류봉테기, 대인관계의 복잡한 신경전, 여기에 마누라의 바가지까지 걸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초과열상태임에 틀림 없다. 냉각제인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긴장감으로 팽창된 두뇌, 불안과 울분과 피로함, 이와 같은 생활의 잔재들을 어떻게 배설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술도 좋고 여자도 좋다. 뻘지르르한 기생 오레비의 대갈뿔을 후려치는 것도 좋다. 맥주병을 던져서 빗쪼가리가 되어도 좋다. 그러나 현명한 지성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현대 이전의 방법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멋과 즐거움과 지성을 겸비한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하다.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는 마음, 거짓말을 심자하게 들어줄 수 있는 아량과 지성인의 멋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우리의 정신이나 신체에 미치는 압력사제가 섬세하고 묘한 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리하는 우리의 방법도 멋과 기술의 묘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역시 뉴튼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시대와 분야를 초월한 질자품임에 틀림없다.

현재 공군에서 많은 종류의 운동을 레크리에이션과 효과를 위하여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배구, 정구, 탁구, 배드민턴 같은 가벼운 운동들은 신체의 단련에도 좋겠지만 흥미도 진진하여 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크나 할 수 있는 운동들이다.

공군납사회에서는 주말마다 안내용 포스타를 통하여 세력을 빼스에 싣고 떠나곤 했다. 바둑부도 부원을 모집하여 행사계획이 다채롭다. 공군장교 합창단의 발족을 위해 애쓰는 몇분이 계시다. 이렇듯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내일의 전투를 위해 크게 기여하는 일이라 하겠다.

여기저 우리는 개인들이 이러한 모임의 필요성을 깨닫고 자기의 취미와 단체의 멋을 높이기 위한 참여의욕을 높여야겠다.

미국의 전대통령 후버(Hoover)씨는 「납치는 밝은 물속에서서 잔잔한 물결과 신선한 공기, 발짝이는데 야아래 내 영혼의 잠든것을 찾아버리는 시간」이라고 남시를 찬양한 글이 있다.

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풍겨 주는 것인가.

공군 기본훈련 과정에서 성행하고 있는 기마전이나 투구 같은 게임도 신체와 정신의 단련에 다시 없는 재미이다.

어느 한사람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체진 단체의 투지가 승리를 약속하는 게임이다.

훈련에 지친 신체와 긴장된 정신은 이 피와 피의 대결이라는 규칙없는 게임을 통하여 말끔히 발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 투구의 가슴속에도 이 게임을 통

한 뿌듯한 추억거리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후보생 교육을 받은지 7년이 가까워오니 그리 많지 않은 동기생들의 얼굴도 삼삼해 진다. 일전에 서울역으로 J대위를 마중 나갔다가 복잡한 사정이 일어났다.

J대위와 나란히 걸어 나온 안경집이 공군대위가 어린애처럼 반가워 하는 것이 아닌가. 딱한 노릇이다.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도 알 수 없는 얼굴이다. 우물쭈물 얼버무리고는 J대위와 함께 합승을 타고 앉아서 물었다.

1구대 8번 K 몰라?.....도 모르겠다. 기마전 할때 3번 기수 말이야.

나는 7년전 훈련복 속의 기마전 기수 K의 얼굴을 찾아냈다.

—아하 KSK 말이냐. —|흥지|

J대위의 맞장구로 확인은 했지만 이 친구 쓰지 않던 안경을 쓰고 그렇게 으척해 졌으니 알아볼 수가 없을밖에.

역에서 이 친구의 정체를 알았다면 기마전의 적으로서가 아니라 가까머리 동기생으로서 겨안아 주었을까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이렇듯이 내가 가슴속 엠번속엔 기마전과 투구와 눈싸움을 통한 생생한 스냅들이 아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공군에서는 이러한 계입과 병행하여 진정한 테크리에이션이 육성된다면 불굴의 투지와 왕성한 사기가 형성되고 성장되어 갈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종류와 방법들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정적인 것이라면 바둑, 장기, 화단, 가꾸기, 합창단 활동, 음악감상, 그림, 사진, 서도 같은 것을 들 수 있겠고 가벼운 운동이나 등산, 낚시, 연날리기, 씨름 같이 동적인 것도 좋다.

그 밖에 서구적인 포크댄스도 피 흥을 돋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연날리기 같은 것은 공군과 일련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경비가 필요치 않으니 전군적인 취미물로 장려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항공공기를 모방하여 여러가지 연을 만들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학술적인 리를 정리하여 취미인과 전국의 애호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일년에 한번 정도의 대회를 계속 유지한다면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등산이 또 한 쉽고 장쾌한 테크리에이션이다.

이제 가을이 짙었다.

멋쟁이 내무반장이라면 급양대에 교섭하여 증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게다.

일주일의 잡다한 생각들을 털어 버리고 새벽을 밝히려 영내를 떠난다. 가을 하늘, 꽃피어 붉은 단풍잎, 물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이 풍성한 자연에 싸여 지난주의 잡념을 털어 버리고 젊음을 발산한다면 그 아니 좋겠는가.

모닥불 노리도 또한 흥겨운 것이다. 달 밝은 가을밤에 환주로 끝이나 연병장 모퉁이에 어린 동심으로 모여 앉아 모닥불을 피우고 손뼉치며 흥타령을 불러 보자. 부풀어 오른 마음으로 공군의 팽가명을 불러도 좋다. 이어져 멋쟁이 공군들의 흥취가 아니겠는가.

멋쟁이 군인이란 말은 공군아저씨들에게 보내는 어여쁜 아가씨들의 애칭이다. 유니폼도 멋지지만 유니폼 속의 동물성 옷걸이가 일품이라는 것이 정평이듯이 많은 지성들이 내무반에 모여서 살고 있다.

내무반 단위로 대대 단위로 취미 강좌 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다.

순번적으로 강사를 정하여 자기의 취미있는 소재이거나 연구한 결과를 발표토록 하여 반원 전체의 취미를 향상시킬 수 있다. 내무반장이나 선임하사관이 강력한 힘으로 추진한다면 소개하는 사람이나 소개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소양은 자기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해줄 것이다.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우는 일에는 그만큼 가치와 이상이 있어서이다. 나라 없는 민족을 위하여 싸울 조국이 없다.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 함은 조국한국이 있기 때문이다.

내 뼈가 크고 조상이 문헌 땅 한국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사기는 이렇게 발생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라와 공군을 위하여 싸운다는 정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고 싶은 공군이 있어야 한다. 존경하고 싶은 상관이 있어야 한다.

애착을 느끼는 내부반이 있어야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다.

때문에 공군이 라는 긍지를 높일 수 있는 공군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나는 이 육성이라는 말을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면을 떠나서 멧파 레크리에이션을 중심으로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이것을 전환 시키는 PR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년에 한번 정도의 공군장병 취미전같은 것을 시내

의 알맞은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공군 장병중에는 예술과 취미, 오락 부분에서 일가견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체불사건을 열어 찬사를 한몸에 지닌 Y장군을 비롯하여 그림, 조각, 서도, 시화 등의 취미인은 얼마든지 있다. 공군의 신형기 모형과, 유도부기 모형, 정성은 화분, 시화, 사진, 그림 특별히 준비한 인쇄물 같은 것들을 잘 조화시켜 시민에게 공개한다면 성공은 눈앞에 있을 것이다.

또한 공군 음악회를 화려하게 장식할 수도 있다. 교향악단과 장병합창단, 공군장병의 자녀중에서 소양이 높은 어린이들, 여기에 구보적 회구 배우 과규석(후라이 보이)씨 같은 공군에 비역 연예인을 초청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대외 활동이 되겠는가.

국민들의 공군에 대한 정이 두터우면 두터울 수록 공군장병의 사기는 높아질 것에 틀림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군벌 시론자들에게 무게 있는 일격을 가할 수도 있어 통쾌할 것 같다.

이렇듯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얻어진 마음의 여유와 진정한 문제의식은 자기를 현실에 철저히 적응토록 해준다. 또 한번 훈련받던 때의 얘기를 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훈련은 이른 겨울에서 이른 봄 까지 계속했다. 그러더니 고성도 컸지만 내 일생의 제일 흐뭇한 크리스

머스를 보면 해이기도 하다.

네개의 내무반으로 편성된 병사에서 이들 밤을 뜬눈으로 크리스마스 잠치를 준비했다. 재르란 부엌이나 귀한 때라 된 씨트를 이용해서 침상 끝에서 창문을 가리며 높이 올라 벽색 아취를 만들었다. 동로 걸음으로 두문솔을 깔고 촛불을 120개 줄지어 켜다. 씨트의 곳곳에 별과 하늘을 달았다. 앞에 세운 동방박사의 그림이 서를기는 했지만 경건한 맛이 있었다.

하루밤을 연습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배운 48명의 구대원은 모두 씨트 뒤에 숨어서 「하밍 코러스」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추부해 주었다.

누가 눈물을 흘렸을지는 모를 일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 뿐이다. 다음날은 H학교 학생들이 특별부토를 가지고 군인들을 위문왔기에 우리는 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보여주고 100명의 훈련병들은 모여서서 노래를 불러 주었다.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여학생들의 대화를 들었다. 「애 저사람들 영어 노래를 다 할 줄 안다?」 「글쎄 말이다」 하는 얘기가 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건들이 뒤엎킨 크리스마스를 지나

고는 나머지 훈련기간을 고달픔도 지루함도 모르고 지냈다. 그저 즐겁게 돌아치며 4개월의 훈련을 마쳤다. 지금 이 일을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레크리에이션의 덕이었다고 생각되어 새로운 고마움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할 때 레크리에이션과 사기는 선후가 없이 서로 관계 있는 한 쌍인가 보다.

강제함으로써 사기가 높아지기 보다는 알맞는 레크리에이션과 서로의 개인을 존중하는 데서 자발적인 사기가 높아질 것이다.

많은 부하를 다스리는 지휘관은 지휘관으로서의 특별한 연구와 좋은 계도를 실시해 주기 바람직하며 관계관은 관계관으로서의 책임을 깊이 느껴 지휘관과 부하들을 잘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레크리에이션을 받아들여 소화시켜야 할 개인들은 개인으로서로 노력을 계속하여 상사가 요구하는 사기라는 위대한 힘을 작용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껴주기 바란다.

다시 되풀이 한다면 레크리에이션이란 고무줄이 오물어든 현상과 같은 것이다.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 고무줄은 또 다시 새로운 일을 위해서 팽팽해져야 하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만일 쉬지 않고 팽팽한 채로 일마를 지

난다면 이미 고무줄로서의 생명은 없어지고 말것이 아
닌가.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업무에 열중하고 피곤한 상태
가 휴식없이 오래 계속 된다면 활동인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되어 병원 침대나 조용한 요양소의 나그네가 될 것
이 분명하다.

전전한 봄과 전전한 정실만이 우리의 재산이다. 또
그러한 젊은이가 필요한 천대다. 문명이 외기권을 침범
한 오늘날기에 레크리에이션의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
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레크리에이션은 사기와 기분전환을 위하여 다
시없는 묘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 中共人民이 尊敬하는 人物

英國의 某新聞 香港特派員은 最近 다음
과 같은 사실을 보도하였다.

모두가 「中共社會主義學院」에 收容되어
洗腦教育을 받고 右派分子라는 멧뚤에서
벗어났다. 이 가운데에는 北京의 「光日新
聞編輯局長 儲安平、農工民黨主席、章伯
約 등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 右派人物中
에서 단 한사람이 中共政權의 온갖 壓力
에도 불구하고 自己의 志操를 굳건히 지
켜나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前國務院

食糧部長 章乃器다.

다른 右派人物들은 모두가 「自己批判」

에 굴복했다. 그러나 章乃器만은 굴복하
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食糧部長에서 쫓
겨나 政治協商會議 要員으로 떨어져났다.

그는 끝내 「自己批判」을 拒否했기 때문에
드디어 政治協商會議에서도 追放되었다.

一九五七年, 이른바 整國運動이 일어나고
右派人物들에 「鳴放」을 要求했을 때 章乃

器는 社會主義改造의 以上の 深化를
反對했던 것이다. 그는 오늘날도 그의 이

主張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가 副主任要
員으로 屬해 있는 中國民主建國中央常務

委員會는 그를 追放하는 提案文을 다음과
같이 發表했다.

「부르조아 階級이거 右派分子인 章乃器
는 여전히 中國共產黨을 反對하며 社會主
義에 反對하고 있다. 本會 中央委員會는
章乃器의 中央委員職을 剝奪하는 동시에
本會의 會籍으로부터 追放한 것을 決議한
다.」

그러나 章乃器는 毅然한 態度를 取하고
있다고 香港으로 빠져나온 難民들은 말하
고 있으며 많은 人民들이 그를 尊敬하고
있다고 傳하고 있다.

一線戰團操縱士의 士氣實態

馬 鍾

仁



序 論

士氣는 軍紀의 源泉이며 軍紀는 命令의 服從으로서 나타난다. 軍에 있어서는 任務完遂가 그 生命이며 生命을 活發하게 약동시키는 生々한 鮮血이 軍紀라고 볼때 士氣야말로 피를 造成하는 모든 要素의 結合이며 總體的인 것이 아닐 수 없다.

士氣는 따라서 軍紀와 같이 精神的이며 心的 狀態로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것이며, 人間의 모든 行動을 自發的이며, 意慾的으로 하겠끔 誘出하는 原動力이며, 그 要因이라고 본다.

어느 集團의 士氣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것은 이디까지나 그 集團의 統率의 結果로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決코 그 原因이 될 수는 없는 것임에 그 原

인이 될수 있는 士氣의 要因에 對하여 알기 위해선 人間의 基本的인 事項을 知得하고 研究해야 될 것은 勿論이고 높은 士氣를 確保 維持하는 唯一한 主要要素는 統率力量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임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恒常 指揮官으로서 또는 指導的인 立場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組織體의 階序制의 階層이 높을수록 下位와의 通信이 困難해지는 反面에 이에 反比例해서 統率의 結果로서 나타나는 影響範圍는 매우 커지고 決定的인 任務에의 成敗를 左右케 하는 것임에 指揮官으로서는 自身の 統率力과 이에 關係되는 當面한 여러 課題에 對하여 언제나 正確히 把握하고 또 適切히 解決하는데 研究 努力해야 할 것이다.

특히 指導者, 集團員, 狀況(환경)의 統率의 三要素中

어느 하나라도 달라지면 이에 따라서 다른 統率上의 問題가 惹起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아마 同一한 人間性을 지닌 指導者는 이 世上에 없을 것이고 또한 同一한 集團도 있을 수 없을 것이며 同一한 集團의 環境이나 狀況도 있을 수 없을 것임에 역시 同一한 統率方法도 있을 수 없고 適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보아도 指導者가 人間인 以上 千態萬變하는 環境下에서 無窮無盡한 統率力量을 發揮한다는 것은 極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에 接近하고 近似한 位置에서나마 適應시키고 自己 스스로의 統率上의 指針이 되고 基準이 되어 줄 수 있는 그 集團內의 個個의 人間을 알고 事實을 正確히 直視하고 不斷하며 꾸준한 自身の 統率力에 對한 改善 向上에 힘씀으로써 보다 能率의 이며, 效果的인 任務完遂를 爲하여 寄與한다는 것을 指導層에 있는 사람은 自覺하고 이것이 또한 하나의 큰 義務이고 同時에 權利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特別 直接的으로 戰鬥力量을 發揮하고 軍의 모든 努力과 資源이 統合적으로 여기서 集約發揮되는 一線戰鬥 操縱士의 士氣의 實態把握을 試圖하

여 未備하나마 發表한다는 것은 時期尙早하나 앞으로의 보다 높은 戰鬥操縱士의 士氣를 維持하기 爲한 하나의 발판으로서 또는 現在의 統率力量의 評價檢討와 아울러 보다 向上되고 改善된 統率力의 質的 姿勢로의 轉換을 爲해서도 意義가 있다고 보아 여기다 감히 적어 볼까 한다. 調査方法으로서는 一線戰鬥部隊(大隊級)에서 勤務하는 現役 戰鬥操縱士를 對象으로 하여 特別히 勤務나 出張中인 操縱士를 除外하고서 全員에게 實施하였으며, 比較的 協助의 이며 積極的인 支援下에서 配表調査로서 直接個人에게 分配되었으며, 그 內容은 二八個의 疑問項目으로서 構成된 質疑表로서 作成된 것이며 그 結果에 對하여 (1)大隊의 役割(位置) (2)協同心 (3)信賴性 (4)職責에 對한 滿足度 (5)休養 및 健康으로 大別하여 評하였고 마지막으로 全體的인 評을 結論으로 맺었다.

戰團大隊의 役割(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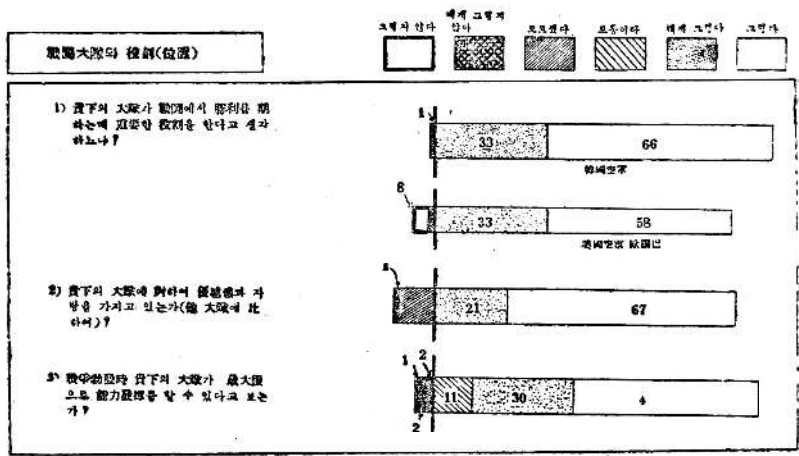
戰鬥大隊는 軍에 있어서 直接戰力을 發揮하여 敵과 對戰하는 最尖端에 位置하고 있는 單位部隊이며 軍의 모

士氣昂揚을 위하여

은 支援의 總決算이 여기저기 이루어지는 것임에 戰術的인 位置에서 보나 또는 操縱士個人에 對한 軍에서의 配慮나 或은 그를 自身이 軍의 「에리트」로서 國軍의 어느 兵科 보다도 學術的이며 身體的으로 他에 比하여 選拔된 優秀한 人員으로 構成되고 技術面으로도 最先端의 高價한 裝備를 普通 사람으로서는 힘든 難關의 教育訓練을 격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는 「프라이드」等으로 그 重要性에 對하여는 매우 높이 認識하고 있으며 實際적으로 戰備態勢에 있어서나 그 能力維持 및 發揮面에 있어서도 自他가 共認하고 있는 바와 같이 最良의 作戰可能狀態를 確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單的으로 말해서 空軍의 戰團部隊가 얼마나 높은 士氣를 維持하고 있으며 戰團操縱士들이 自己任務의 重要性과 位置가 戰團에서 얼마나 重要な 役割을 하는가를 잘 認識하고 있음을 如實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이것을 第二次 大戰中の 美空軍 戰團操縱士의 實情과 比較해 보면 勿論 그 與件이나 여러가지 面에서 差는 있으나 우리 空軍에 있어서 보다 높은 狀態에 있음을 圖表(I)로서 알 수 있다.



圖表-I

協同心

部隊任務遂行에 있어서 協同은 모든 資源과 努力을 集中發揮하여 最大의 成果를 獲得하기 爲한 必要不可缺한 手段으로서 指揮官의 能力에 依하여 크게 左右되는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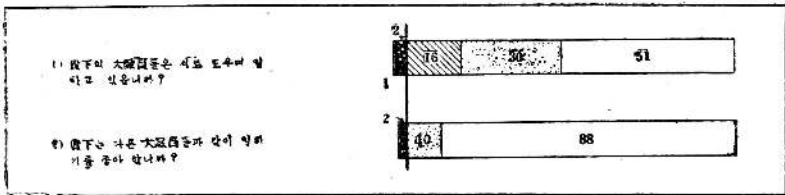
따라서 協同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強力하고 統合된 一糸不亂한 戰鬥力의 發揮가 可能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自發의이고 相扶相助하여 圓滿하고 溫和한 雰圍氣속에서 戰鬥任務의 遂行이 可能하다고 본다.

특히 戰鬥大隊內의 戰鬥操縱士 相互間의 協同心과 서로 도와 일하려는 精神的 肉體的 狀態는 直接敵을 섬멸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勝利의 「바로메다」라고 볼 수 있다.

圖表(II)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戰鬥大隊內의 操縱士間의 協同心은 매우 堅固하며 이것은 空中에서의 戰鬥가 單獨으로서 遂行될 수 없다는 現實을 充分히 나타내고 있으며 더구나 集團(即「팀」(Team))으로서 訓練되어온 操縱士의 特徵을 如實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下記 圖表(II)는 現在の 協同狀態를 正確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現大隊員間의 和睦狀態가 좋으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協同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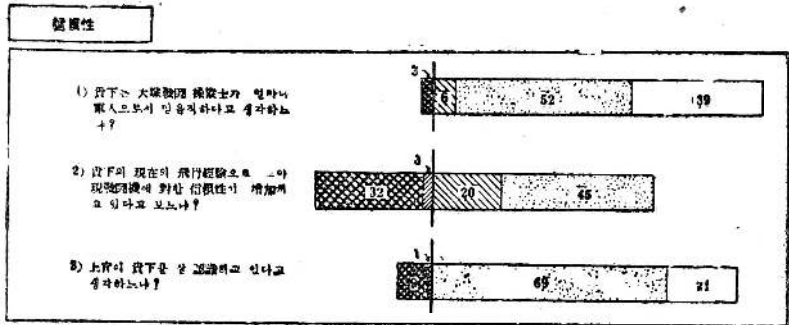


圖表-II

信賴性

戰鬥飛行大隊에 있어서 勝利의 굳은 信念과 이를 堅持할 수 있는 自信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精神的 面에서 敵보다 優越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모든 任務遂行上의 難關과 隘路를 克服할 수 있는 心的 態度를 갖게하고 肉體的 面이나 量的인 不足을 補充하고 능가할 수 있는 重要한 要素라고 본다.

특히 이번의 調查結果軍人으로서 믿음직하다고 거의 全大隊의 戰鬥操縱士들이 서로 評하고 있었으며 上官이 自己를 認識해줌으로써 人間의 基本的 欲求의 하나인 他人(特히 上官)으로 부터의 認定을 받는데서 오는 下級者로서 任務達成을 爲하여 努力한 보람을 크게 느끼는데서 갖는



기쁨은 더 일층 士氣를 높이는 要因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戰團機에 對한 信賴性에 있어서는 若干 疑訝한 感覺을 갖고 있는 便이기는 하나 大略 좋은 便이라고 본다.

職責에 對한 滿足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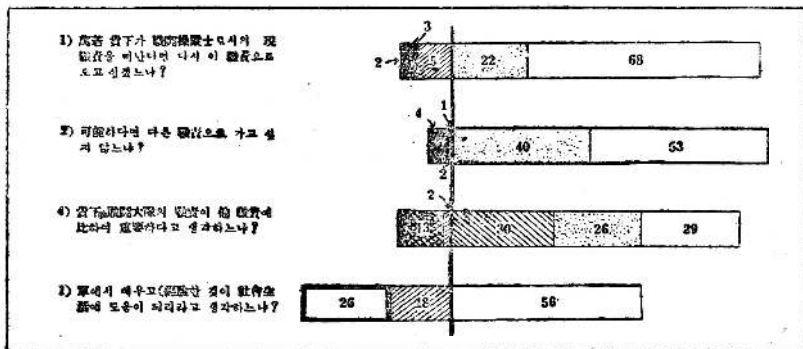
軍人으로서 自己 職責에 對하여 滿足 感覺을 갖는다는 것은 任務完遂를 爲하여 重要한 것이며 特別히 軍隊內의 他 職責에 比較하여 自己 職責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보람을 느낄 때 또는 社會的 面에서 보아

自己의 軍隊 職責이 모든 面에서 他로부터 憧憬이나 渴望의 的이 되는 職責이며 더욱 더 나아가서 그것이 國家나 社會面에 奮與하는 것이 크다고 느낄 때 그 滿足度는 더욱 增大하리라고 본다.

이런 點으로 보아 戰團 操縱士라는 美譽의 이며 普通의 能力이나 努力으로서 는 도저히 不可能한 그 技術과 또 한 國防上의 重要한 存在에 있다는 것은 勿論 一旦 戰團 操縱士로서 戰團 部隊에 配屬되어 作戰을 遂行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國家의 莫大한 投資는 어떠한 다른 部門보다도 比較의 對象이 안되리만큼 큰데다가 그들이 操縱하고 있는 戰團 機의 價格만 하더라도 億臺에 가까우니 이모저모로 그 滿足度는 매우 높은 狀態라고 보며 젊은이로서 하늘을 마음껏 날으며 지킨다는 그 용솟음치는 血氣를 發散시킬 수 있는 일터임에 現在의 戰團 操縱士 職에서 他 職責으로 가기를 願하지 않는 것도 當然하다고 보며 더 나아가서 오늘날까지 걸려온 國家에 對한 義務感에서도 더욱 무치고 더욱 힘내어 戰技 練磨에 猛進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은 軍戰力 向上과 最高度의 戰團 態勢를 確保하고 敵의 攻擊에 對備하여 적멸할 수 있는 位置에 있다는 좋은 證據도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軍에서의 戰團 操縱士로서의 제트 機의 操縱이나 技術이 아직 社會에서 活用될 수 있는 分野가 없어 圖表(IV)에서 그러한 點이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民航空界도 제트化 되고 하던 더욱 活潑한 航空에의 躍進을 期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職業에 의한 充足度



圖一

休養 및 健康

人間の 基本 的인 欲求中의 하나가 休息 (休養) 이라고 본다.

특히 戰鬥操縱士로서는 그 任務로 보아 空中射擊, 對地射擊 또는 惡天候飛行等 兇險에 對한 危險에 直面하고 있는 데다가 各種의 飛行計器 裝置를 警戒하며 操縱해야 하고 不意의 空中故障에 對 備해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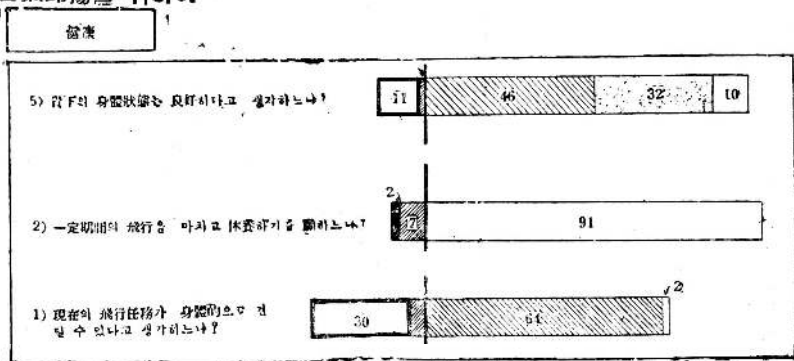
無限한 空中 全域을 兇險에 對한 探索하여 敵機나 或은 다른 航空機의 接近을 發見하여 攻擊 또는 回避해야 하기 때 문에 精神의 緊張이 二四時間 飛行中은 勿論 飛行後 에도 繼續되며 때로는 不安感도 갖게 되기 때문에 他職 實이나 業務와는 달라 適切한 休養이 必要한 것이며, 特別히 高空飛行에나 緊張에서 오는 過勞가 積치는 데서 오는 여러가지 欲求의 減退는 健康上 害를 미치게 되며 자칫하면 無理한 飛行을 하게 되어 身體的인 不完全性 을 招來하기 쉽다고 본다.

따라서 戰鬥操縱士로서는 大部分 一定期間後 休養을 갖는 것을 原則으로 알고 있으며 願하고 있는 것은 事實 이다.

그러나 現在 定期休暇(年暇) 自體도 部隊 實情上 難로 實施치 못하고 있어 매우 任務에 過重을 느끼고 있는 形便이라고 본다.

여기에 圖表로서는 表示치 않았으나 操縱士의 特別 兇險이라든지 營養攝取面에서 보아 不滿足한 表示를 했고 또한 醫務支援面에서도 좀더 積極性을 要求하고 있 었다.

그리고 其他 航空加俸이나 操縱士의 個人 特殊補給面 에도 많은 意見이 있었음을 添加한다.



結 論

全般的으로 보아 戰 闘操縱士의 士氣는 매우 높으며, 그 任務로 보아 어느 職責보다도 危險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滿足하고 있었으며, 自己職責의 重要性과 作戰任務遂行上 다른 것에 앞서서 考慮되어야 할 勝利의 關鍵임을 굳게 보고 있었다.

특히 그들이 精密한 節次와 方法에 依해서 特別히 人選되고 高度의 專問的 技術을 習得하고 오늘날 國軍의 「에리트」로서 科學의 尖端에 있으며, 또 젊음의 보람있는 勇敢하고 모

든 사람이 憧憬하는 職責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現實情下의 不足한 補給面이나 其他 모든 支援要素의 缺乏을 克服하고 있으며 戰爭時를 莫論하고 生命의 危殆을 받고 있으며, 不可避한 事故로 같은 銀翼을 어찌까지 맞대고 날으던 戰友를 잃는 일이 이따금 생겨도 오히려 奮發하여 同僚의 高貴한 犧牲이 헛되지 않게 自身을 가다듬어 더욱더 冲天하는 反共意識과 一擊必勝의 技術練磨에 餘念없이 祖國의 하늘을 지키려고 하늘을 일터로 싸우고 있음을 正確히 나타내고 있었다.

끝으로 戰闘操縱士의 士氣는 모든 要素가 統合되어 그 結果로서 나타나는 것임에 앞으로 特別히 留意해야 할 것은 適切한 營養攝取, 生活安定을 爲한 特別手當(加俸) 및 飛行用 個人支給品等에 對하여 繼續하여 檢討하고 改善하여 日進月步 發展하는 科學에 뒷지지 않도록 對備해야 할 것이다.

깨끗한 한 표에

굳어지는 새 나라

선거 표

士氣昂揚을 爲한 나의 提言

朴 在 浩



現代戰의 樣相이 아무리 科學化되고 武器의 戰力이 高度化되었다 하더라도 古今을 通하여 戰爭을 하는 것은 武器가 아니고 사람인 것임으로 優秀한 裝備와 能動的인 火力만이 必勝을 期할 수 있는 唯一한 與件이 되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現代戰이 核戰爭 體制로 轉換됨에 따라 強力한 思想的이고 精神的인 敵對意識의 高揚과 戰鬪意識의 造成이 차지하는 比重도 점차 높아져서 軍士氣의 重要性이 더욱 重視되고 있다.

士氣는 部隊의 團體精神狀이며 그 氣風을 말한다. 將兵 各己의 士氣가 旺盛하여야만 部隊는 活氣를 띌을 수 있고 強力한 戰鬪力을 保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高度의 士氣는 危機와 困難에 逢着했을 때 勇氣와 忍耐力을 賦與하여 줌으로 期待하는 바 以上으로 積極的인 奮鬪과 奮發로서 莫重한 大成事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士氣의 要素는 價値觀과 義務感 그리고 協調精神에서 이루어진다. 士氣의 昂揚은 指揮官의 用兵之術이며 또한 戰略的인 要素이기도 하다. 그럼으로 各 指揮官은 確固한 信念을 가지고 崇高한 精神과 人格으로 部下統率指揮에 임하여야 하며 特別 個人 및 部隊의 士氣에 對한 責任感을 認識하고 充分한 狀況 把握과 士氣昂揚術 講究가 切實히 要求됨으로 다음 몇가지 生覺하는 바를 列學하여 본다.

一、敵對意識과 戰鬪意識의 強化

戰爭의 價値와 그 目的을 充分히 認識하였을 때 비로

士氣가 高度로 振作되는 것이다. 戰鬪에 있어서도 將兵으로 하여금 그 役割의 價値를 잘 理解시켜 正確한 目的意識을 가지게 함으로써 目的達成을 期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由民主主義 信條를 確立시키고 國家의 理念과 軍의 使命을 爲하여 獻身할수 있겠음 祖國의 生存圖確保에 對한 教化 戰鬪目的의 感化等 精神武裝 強化를 期하여야만 한다. 이는 部隊教育訓練과 政訓 教育을 通해 共產主義의 發狂的인 武力侵略 兇計를 暴露하이 그 虛偽欺瞞의 宣傳煽動을 粉碎할수 있는 敵에 對한 憎惡感과 抵抗意慾을 고취시켜야 한다.

二、陣頭指揮로 率先垂範

指揮官의 一舉一動은 部隊士氣에 絶對的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戰鬪을 勝利로 이끌어 가는 捷徑이 될을 우려하는 首肯할수 있을 것이다.

指揮官은 恒時 行動으로서 率先垂範하고 最先端에서 部下로 하여금 絶對的인 信賴感과 強靱한 人間性的인 紐帶로서 無言中에 뒤 따르지 않을수 없겠음 한는 精神的인 氣風을 불어 넣어 士氣에 영향을 줌으로 成功的인 任務遂行을 할수 있다.

三、信賞必罰로 嚴格한 軍紀維持

軍紀確立은 戰鬪의 勝敗를 左右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軍紀는 軍隊의 命脈이며 그 基本要素가 되는 것이다. 軍隊만의 特徵인 從的인 統帥系統은 嚴格한 軍紀로 制約하고 軍人精神을 涵養시킨다. 軍紀는 強壓의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士氣振作에서 우러나는 自律的인 行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信賞必罰은 嚴格한 軍紀維持와 指揮統帥를 行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며 特히 表彰과 褒賞은 將兵의 戰鬪意慾과 積極性을 助長시키는데 緊要한 것이다.

四、能力에 適合한 任務賦與

部下의 能力과 個性에 따라 適切한 任務를 賦與하여야 한다. 人間은 自己의 任務가 適切하게 遂行된 것을 봄으로써 自信이 생기고 自尊心이 強해지는 것이다. 指揮官의 權威와 명예심을 爲하여 能力以上の 任務를 無利하게 賦與함은 禁해야 한다. 何時何處에서나 各當해 낼수 있는 能力爲主의 任務賦與와 同時 適切한 權限을 賦與하여야 한다. 이는 指揮官의 認定을 받고 있다는 데서 成功的인 任務遂行과 士氣振作의 必須條件이 되는 것이다.

五、士兵福祉

士兵에 對한 福祉는 士氣와 任務遂行能力에 주는 영
 향이 큼으로 指揮官은 食事 衛生 休養 娛樂 公正하고
 迅速한 人事行政 粗雜한 周圍環境의 除去 明朗한 兵營
 生活의 營爲 그리고 公務以外 個人事情의 積極的인 協
 助等에 對하여 眞摯한 關心을 가져야 한다. 士兵들은
 민감하여 些少한 上官의 關心에도 곧잘 感激하여 士氣
 가 振作된다.

그리므로 指揮官은 그들로 부터 尊敬과 信賴를 한 몸
 에 받아 그들로 하여금 有事時에는 指揮官앞에서 自身
 을 賭할을 不辭한다는 決意를 굳게 갖도록 士兵들과 生
 死苦樂을 같이하는 雅量을 가져야 한다.

六、部下로부터 信賴와 服從

이미 信賴와 服從에 對하여는 言及한 바 있으나 士氣
 를 昂揚시키고 維持하는데 있어서 指揮官의 儉素하고
 淸飮한 生活 高潔한 人品 模範的인 率先垂範이 部下의
 忠實 服從을 誘發하고 참된 尊敬과 畏敬 그리고 絶對的
 인 信賴感을 이르게 한다. 따라서 命令이나 指示가 없
 어 도 自發的인 意思로 任務에 充實하게 될 것이다.

七、高度의 裝備 및 最大의 兵站補給

大量報復의 現代戰에 있어서 優勢한 兵力을 保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符合適應한 裝備와 兵站補給이 隨
 伴되지 않을 境遇軍의 士氣는 크게 左右된다. 따라서
 新裝備의 保有 兵站補給의 充足은 軍事的인 優位뿐 아
 니라 크게 士氣에 영향을 미치며 戰鬪意慾과 必勝의 信
 念을 굳게 하여 준다. 아울러 科學技術 發展에 適應한 個
 人 및 部隊의 教育訓練을 通해 管理運營 및 技術向上에
 徹底를 期하여 戰鬪力을 培養함으로 士氣를 크게 昂揚
 시킬 것이다.

八、一般社會 環境

周圍의 一般社會環境이 墮落되는 影響 피해한 經濟의
 影響 政治影響等 國內情勢가 士氣에 끼치는바 영향이
 至大함으로 警戒하여야 할 重要한 要素이다.

反對로 敵國의 腐廢한 政治相 및 社會諸般相에 對한
 批判으로 將兵의 戰鬪意慾을 刺戟시키 士氣昂揚을 期할
 수 있다. 그리므로 共產主義의 眞相暴露를 爲한 政訓教
 育의 徹底를 期하여야 한다.

士氣昂揚을爲한 나의提言



俞致坤

一、人間組織의 性格

組織이란 서로 相異한 사람들이 一定한 目的을 到達하기爲한 特定한 機能을 遂行하는데 適合하도록 一定한 秩序속에 結合하고 있는 規則的인 相互作用의 樣態를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組織이란 人間相互間의 活動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이 人間活動을 보다 效果的으로 協同시키는 것이고 人間相互間의 어떠한 目的을爲한 合理的 手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組織은 公式的(形式的) 組織과 非公式的(非形式的) 組織으로 크게 分類할 수 있다.

公式的(形式的) 組織이 職務上 權限上 制度上 規則上의 人間集團인데 比하여 非公式的(非形式的) 組織은 權

限이나 制度規則에 依하지 않고 日常的인 接觸을 通한 人間의 情緒的이며 自然發生的의이고 內面的인 人間集團이다.

따라서 形式的 組織에 있어서는 人間個人的 主體的 滿足이 考慮되지 않고 있지만 非形式的인 組織에 있어서는 個人的의이고 보다 自然스러우며, 人間の인 個人的 主體的인 滿足이 積極的으로 追究되고 考慮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形式的인 組織이라고 하더라도 人間의 情緒的이며 內面的 結合인 非形式的 組織의 要素를 全然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이 要素를 積極 活用하므로써 形式的 組織成員의 主體的 滿足을 圖謀하고 組織의 能率을 提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所屬하고 있는 軍隊組織은 再言할 必要도 없 이 代表的 組織이다.

國防이란 嚴肅한 目標遂行을 爲해 主觀的인 依法的 支配 服從關係를 가장 重要視하고 있는 從的인 組織體 係이다. 그것을 戰鬥에 나가 見敵必滅의 信念으로 生命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가장 效果的인 組織形態가 形式的인 것이어야 함은 勿論 指揮官의 한 命令에 數千數萬部下가 一舉에 움직일 수 있는 縱的인 統帥系統의 確立이 무엇보다도 必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形式的인 組織인 수를 形式的인 組織原理인 法律規則이나 權威 強制만으로는 所期的인 全目標을 達成할 수가 없다. 組織을 形式하고 있는 成員의 主體的 滿足이 考慮되어야 하며 自主的이며, 內面的인 組織要素가 適切히 活用될 때 보다 더한 成果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指揮官들은 數千 麾下將兵을 統率함에 있어 人間組織 原理인 形式性과 非形式性을 充分히 活用해야 하겠다. 軍의 命脈인 軍紀의 維持와 鐵石같은 團結이 衝天하는 將兵의 士氣에 뿌리를 박고 있다면 軍士氣昂揚을 爲한 效果的인 試圖는 앞으로 論及하게 될 非形式的인 人間關係의 錦密한 活用에서 出發해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二、士氣의 意義

士氣에 對해서 一定하고 明白한 定義를 내릴 수는 없

으나 集團에 屬해 있는 成員들의 歸屬感(Group Identification) 自己職務에 있어서의 滿足感(Job satisfaction) 등을 하려는 積極的 意志(Willingness to work) 등 多様な 意味內容이 담겨져 있는 말이다. 代表的인 産業社會學 및 社會心理學者들의 見解에 依한 定義를 내린다면, 士氣란 어떤 集團乃至 組織의 成員들이 自己 自身들의 主體的 滿足을 爲한 結束으로서 集團乃至 組織의 共同目的을 達成시키기 爲하여 積極的인 努力을 아끼지 않는 感情 및 態度이다.

이렇게 定義를 내린다면 軍士氣란 將兵들이 軍隊라는 組織體內에서 自己에게 주어지는 地位와 任務에 對하여 느끼는 感情, 지니는 態度의 程度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原來 士氣는 인할 意欲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對한 組織成員의 勤勞意欲의 문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軍士氣란 한마디로 表現하여 戰鬥意欲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의 問題일 것이다.

그러므로 軍士氣의 昂揚이란 戰時體制에 있어서서는 必勝의 戰鬥意欲을 보다 더 불려 일으키는 일일 것이요 平時體制에 있어서는 戰鬥態勢의 確立이란 至上目標을 爲하여 展開되는 將兵을 執務勤勞意欲을 鼓舞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士氣의 構造的 성안이 어떠한 것인가를 分析해 보므로써 士氣昂揚을 爲한 具體的 方

案이 案出될 것으로 믿는다.

三、士氣의 構造

人間的 行動이란 어떤 一定한 動機나 外部의 어떤 刺戟에 따라서 일어나는 反應의 全體的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卽一例로서 人間個體가 지니는 獨特한 諸性質과 自己를 둘러싸고 있는 社會的 對象(他者)이 주는 影響各樣의 刺戟에 依해서 形成되는 一定한 動機에서 一連의 反應이 나타날 때 이를 社會的 行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때 C.H. Graham의 公式만 리라 쓴다면 $B(S) = f(a, b, c, d, \dots, n, t, \dots, x, y, z)$ 와 같은 簡單한 式이로 人間行動을 公式化할 수 있는 것이다. B는 行動 S는 反應 a, b, c, d는 외부의 形리가 지 영향(자극) 또는 자극의 回數 t는 行動의 時間, x, y, z는 介體의 主體的 條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社會的 對象인 他者에 對하여 어떤 一定한 行爲를 期待할 때에는 于先 個體의 條件을 正確히 把握한 다음 그 行動을 誘發할 수 있는 刺戟을 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士氣도 그때그때의 自己의 主體的 狀況과 客觀的으로 自己를 둘러싸고 있는 他者와의 諸般 人間關係

에서 오는 社會倫理的 要請 및 物質的인 條件에 따라 士氣의 樣相이 規定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例를 들어 보자. 한 整備士가 整備의 任務를 부여 받았을 때 이 整備士自身이 整備技術과 經驗이 豊富하고 이 일을 遂行하는 것이 將來 自己實現(成功)의 좋은 機會가 되어(主體的 狀況) 上官이나 戰友나 下級者가 自己가 아니면 이 任務를 맡을 수 없다는 또 말아야만 된다는 絶對的인 信賴와 要請이 있고(社會的 또는 倫理的 要請)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必要한 設備과 環境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物質的 條件)이 整備士의 執務意欲 곧 士氣는 最高潮에 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士氣의 構造的인 面을 좀더 仔細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士氣는 個人的 能力差 乃至 特性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다. 이것은 個人이 지닌 機能의 熟練度 經驗年數, 肉體의 條件, 性別, 年齡, 學歷, 社會的 背景 家族關係 價值關係, 信念, 性格, 氣質 등에 따라서 士氣가 높아지고 低下되고 한다는 것이다.

둘째, 執務場所의 技術的 物理的 條件에 따라서 다르다. 技術的 物理的 條件이란 作業場의 諸設備 機械 作業方法을 비롯한 照明 通風 溫度 濕度 등의 諸條件을 말한다.

셋째, 業務의 性質 內容 形態에 따라서도 士氣의 程度는 달라 나타나게 마련이다.

넷째, 自己들이 提供한 勞力의 代價로 받는 相對的인 報酬 其他 待遇의 程度에 따라서도 달라 나타난다.

다섯째, 所屬集團 成員間의 相互關係, 統率 運營하는 감독자 및 指揮官과의 人間關係, 지부 및 지부권한등 所屬作業集團의 樣態에 따라서도 士氣는 높고 낮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所屬集團의 全社會的인 位置와 評價, 屬者 組織體의 有無등 여러가지 形式的인 側面이 있음을 附言해 둔다.

四、士氣昂揚에 對한 提言

士氣의 構造의 性格에서 밝힌 바와 같이 士氣의 昂揚을 爲해서는 위에서 列舉한 多角的인 側面을 綿密히 檢討하여 士氣를 높일수 있는 個別的 條件과 環境을 造成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勿論 指揮者 혼자 의 힘으로 그 많은 麾下將兵에게이 善한 條件과 環境을 造成시켜 준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따라서 指揮官은 上官의 위치에 있는 부하들로 하여금 日常的으로 接觸하며 第一次的 集團關係에 있는 하급자를 좀더 非形式的인 人間關係의 土臺위에 서 觀察하고 激勵하고 善導하게 하므로써 結果의 으로는

部隊全體의 士氣昂揚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言及한 여러가지 構造의 側面에서 全體에게 該當하는 共通의인 것은 한 폭음으로 간주하여 部隊의 一貫한 公式(形式)的인 政策으로 反映시켜야겠지만 여기에서 提言하고자 하는 것은 個個人에게 要求되는 士氣昂揚의 條件을 속속스리 관찰 분석하여 個別的으로 조성시켜 주되 公式的인 權威나 強制를 떠나서 어디까지나 非形式的인 부드러운 人間關係의 側面에서 個人本位로 다루어져야만 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指揮官은 自己部下의 그리고 部下는 指揮官의 主體的(個人的)條件을 누구보다도 잘 把握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언제나 個人的으로 接觸할 수 있는 能動的인 機會를 賦與해주고 個人 저마다의 欲求와 不滿이 무엇인가, 그 原因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야만 되겠다는 것이다.

上官은 部下가 自己에게 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고 部下는 自己에게 가지는 上官의 心理的인 요인까지도 똑바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겠다. 이렇게 하므로써 좀더 부드러운 人間關係가 造成될수 있고, 執務意欲을 鼓舞시켜 個個人 저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다」는 뚜렷한 方向과 意欲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둘째, 指揮官은 部下들이 일을 能率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技術的 物質的 條件을 마련해 주는 데 積極的이어야 하겠다. 몸이 不便한 部下에게는 누구보다도 먼저 아픔을 덜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해 주어야 하겠고 몸이 虛弱한 士兵에게는 몸의 健康에 適合한 勤務處를 마련해 주는 妥當한 親切같은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셋째, 業務를 賦與함에 있어서는 個人的 適性이나 性格 特技 能力 등을 積極考慮하여야 할 것이며 賦責應權 (Delegation of Authority)의 原則을 살려 應분의 權威를 認定해 주어야 하겠고 能力에 지나친 業務의 要求는 삼가야 되겠으며, 一旦 말긴 業務는 自己아니면 말을 사람이 없는, 참으로 重要的 業務라는 것을 깊이 認識시 주어야 한다.

넷째, 指揮官은 部下가 주어진 任務를 完遂할 때마다 稱讚과 感謝와 激勵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미루 조그만 일일지라도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督勵하고 協助하여야 할 것이며, 일을 마쳤을 때는 모든 것이 지마다 自己의 힘이 아니고서는 不可能했을 것이라는 自負心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하겠다.

自己의 任務完遂를 爲해 남다른 精力을 쏟은 士兵에게는 조그만 特惠라도 베풀어 주어야 할 것이고 착하고 믿어 온 인이 있으면 남이 보는 앞에서 치켜 칭찬해 줄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다섯째, 指揮官은 部下將兵을 아들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입어나 낼 수 있는 誠意와 사랑의 손길이 있다면, 그 指揮官이 아무리 無能力한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몸파쳐 심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將兵 相互間의 人間關係를 언제나 綿密히 觀察하여 거기에서 일어나는 非人間的인 要素, 보이지 않는 心理的인 葛藤, 不道德한 行爲等은 갖 惡質的인 要素를 뽑아 버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人間の 行動이란 理性에 依據하느니보다는 感情에 더 많이 支配된다는 常理를 잊지 말고 基礎的인 人間關係에서 부터 業務를 處理해야 되겠고 抑壓的이고 強制的인 權威만을 行使하는 指導者에게는 오히려 自主的인 組織이 反抗的으로 作用한다는 事實도 共히 認定해야 할 것이며, 모든 命令에 對한 勇氣가 自發的이고 創意的이며 上官에 對한 絕對的인 信賴感에서 일어나도록 上信下愛의 崇高한 倫理觀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겠다.

모름지기 上官은 階級章 없어도 尊敬을 받을 수 있고 自動的인 服從을 가져올 수 있는 素質이 있는가를 反省해보아야 할 것이며 部下는 眞正으로 上官의 信愛를 받을 資格이 있고 眞心으로 服從의 至誠을 다하고 있는가를 自省해야 할 것이다.

63年度
上半期

犯罪 및 軍紀違反分析

5.16 以後 軍關係犯罪은 顯著한 減少率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다시 고개를 등기 始作하면서 質的으로 惡化하는 傾向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比年 空軍內 뿐만 아니라 全國的으로 나타나는 現象이며 原因의 究明과 對策의 講究가 時急한 國家的 當面課題로 擡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與件하에서 우리 空軍의 犯罪現象은 어떤가 어느 程度 增加하고 또 어느 것이 減少되고 있는가 어떻게 質的으로

惡化하고 있는가 하는 犯罪現象에 대한 正確한 判斷과 認識의 必要性이 切實이 要求된다. 다음에 例學하는 犯罪 및 軍紀違反分析은 當軍의 63年度 上半期分으로 前記한 要請이 副應하여 犯罪豫防對策資料의 確保와 아울러 犯罪現象과 犯罪心理等 各種 研究資料를 提供하는데 目的이 있으며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適切한 犯罪對策을 세우는데 多少나마 밑받침의 役割이 된다면 多幸이겠다.

李 仁 榮

<空軍大尉>

一、期間中 一般犯罪은 359件 發生에 345件 檢舉로서 96%의 檢舉實績으로 前年度 上半期에 比하면 發生이 10% 減少되었으나 檢舉가 10% 減少되었다. 이는 實質的으로 發生에 對한 檢舉의 低率에 起因되는 것이 아니며 이에 對한 原因分析은 다음 罪科別 發生統計와 같다. 犯罪을 罪科別로 보면 暴行傷害가 全體事件의 20%를 占하고 있으며 前年度 上半期에 比하여 19%가 減少發生되었으나 竊盜가 34% 自殺이 30% 詐欺橫領이 13%로 各 增加되었으나 軍務離脫이 20% 無斷離脫이 20%가 減少되고 餘他犯罪은 大差가 없다.

특히 63年度 上半期中 軍務離脫이 41名으로 前年度 上半期에 比하면 20%(200名)가 減少된 理由는 63年 24分 期中 當軍 自體로 軍務離脫防止 및 逮捕期間을 設定코 團束을 함으로써 如斯한 現象을 示顯시키고 있으며, 또한 發生에 對한 30% 檢舉率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그 軍務離脫發生原因을 보면,

첫째, 精神的 弛緩

둘째, 家庭事情

셋째, 虛榮과 遊興 등으로 能力외의 金品去來 및 過誤 등으로 判斷된다.

이에 대한 對策을 세우려면 다음과 같다.

가, 精神訓話 및 精神教育 軍法教育의 強化

나, 各級指揮官은 特別히 休暇 出張 外出者에 對한 事前身

上把握 徹底로서 未歸로 부터 發生되는 軍務離脫者가 없도록 特別한 對策樹立、

다, 內務生活과 福祉施設의 向上

라, 公開發判制度로서 沒知覺한 士兵에 對한 警覺心の 喚起

二、各種犯罪을 原因別로 보면 金慾이 全體의 45%로 首位

를 占하고 다음은 過失 私感 酷刑 厭軍 厭世 家庭事情等の 順位이며 原因別로 보면 各種 罪科는 圖表分析과 같다.

三、階級을 大別하여 罪科를 分類하면 領官級에 있어서는 暴行 事故者가 4名으로 首位 다음이 財産犯이며 尉官級에 있어서는 暴行 事故者가 14名으로 首位 다음이 財産犯 軍務離脫等の 順位이며 下士官級에 있어서는 亦是 暴行 事故者가 35名으로 首位이고 다음이 財産犯 軍務離脫 過失致死傷等の 順位이고 兵級에 있어서는 財産犯이 75名으로 首位이고 다음이 軍務離脫 通行事故 過失致死傷 自殺等の 順位이며 其他는 圖表分析과 같다.

四、期間中 處理된 人員은 574名으로서 前年度 上半期에 比하여 10% 增加이며 이들에 對한 處理는 軍法會議에 起訴處理한 것이 前年度 上半期에 比하여 12% 增加하고 懲戒處理는 9% 減少되므로서 軍法에 依한 嚴格한 處罰로 많은 處理하고 있는 現象이다.

五、期間中 安全事故는 53件으로서 前年度 上半期에 比하면 20% (13件)가 減少되고 이를 事故種別로 보면 交通事故가 45件으로 首位 다음이 誤發事件 失火事件 爆發事故等이며 前年度 上半期에 比하여 失火事件은 減少된 反面에 誤發事件은 增加되었다.

특히 交通事故를 原因別로 보면 不注意가 30件으로 66% 過速이 6件으로 13%이며 人名被害는 軍人이 16名 民間人이 60名으로 前年度 上半期에 比하여 36%가 減少된 現象이다.

六、期間中 軍需物資被害는 200萬餘원으로서 前年度 上半期에 比하여 60%가 增加되었으며 被害에 對하여 48%에 該當되는 81萬餘원이 回收되었다.

被害를 物資別로 보면 兵站이 81萬餘원으로 首位이며 61年度 上半期에 比하여 40%가 減少되었고 다음이 工兵으로 52萬餘원의 被害로서 26%가 減少되었으며, 兵器 通信의 順位

로 各各 減少되었으나 이 反面에 化學物資의 被害가 增加되었다.

犯罪豫防策 樹立

(1) 革命後 時日이 經過됨에 따라 漸次的으로 增加되는 傾向에 있어는 軍需物資 不正事件을 徹底히 防止하고 이를 拔本塞源하기 爲하여 軍需物資 團東指針을 樹立對策中이다.

(2) 民政移讓을 앞둔 時期의 混亂과 急作스러운 物價高로 諸般 軍事 犯罪는 또한 必然的으로 漸增된 것을 憂慮하여 將兵文官에 對하여 重點의 인 團東方案 및 豫防策을 樹立하여 實施中이다.

七、軍風紀

63年 上半期中 軍風紀違反者 總數는 425件으로서 62年 上半期中 1,576件에 比하여 73%가 減少되고 있는 바 이는 將兵들의 自發과 各級指揮官의 徹底한 教育 및 監督과 憲兵의 重點의 活動團東 및 摘發主義를 指向하고 善導矯正을 爲主로 한에 其 因되고 있다. (別添統計參照)

防止策

가, 各級指揮官

(軍紀確立)

(1) 上級者에 對한 摘發矯正의 履行

(2) 內務教育을 通한 精神教育의 強化

(3) 休暇 및 外出의 公正實施

(4) 違反者에 對한 強力한 懲戒權行使 및 內務에 對한 部隊教育實施

(5) 兵營生活에 對하여 細心한 關心과 兵營生活의 改善

나, 憲兵

(1) 重點取締強化

(2) 親切 善導矯正 啓蒙宣傳活動強化

(3) 違反者를 모두 所屬隊에 通報함으로서 部隊教育의 反映

犯罪 罪科別 統計

【件數】

凡例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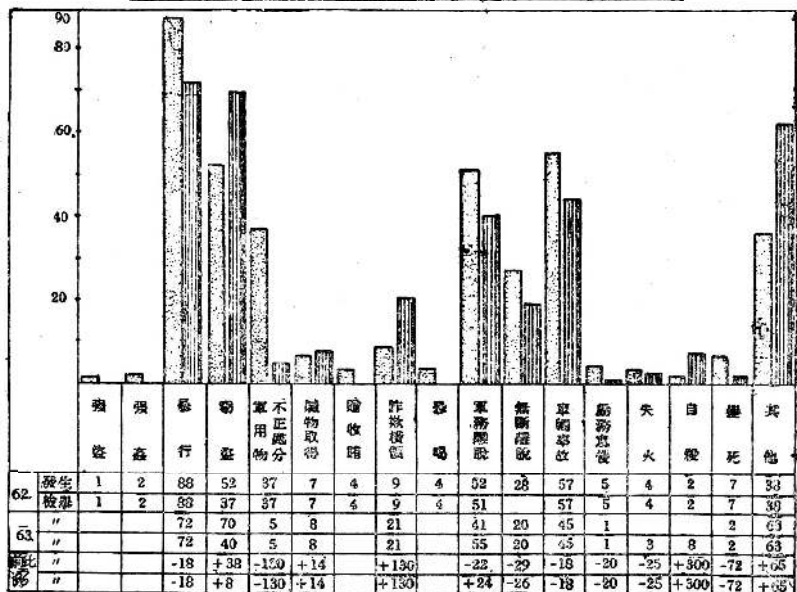
63.

前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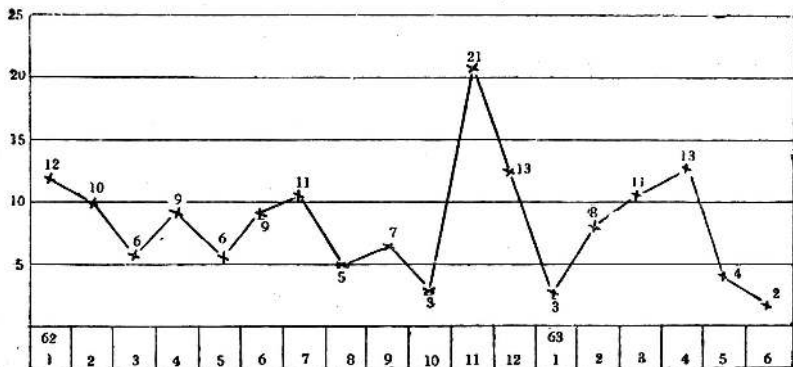
發生 -10%

檢獲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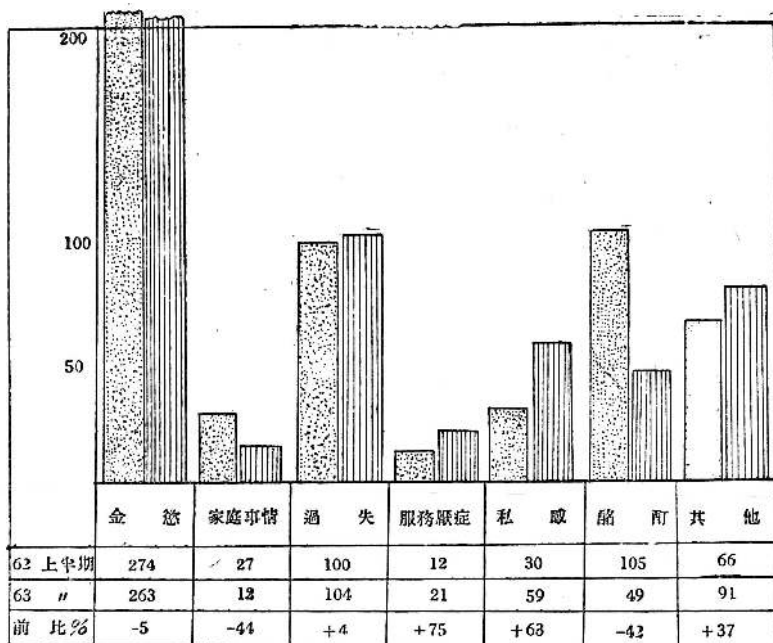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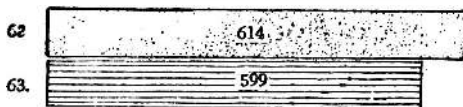
62.	發生	397
	檢獲	380
63.	發生	359
	檢獲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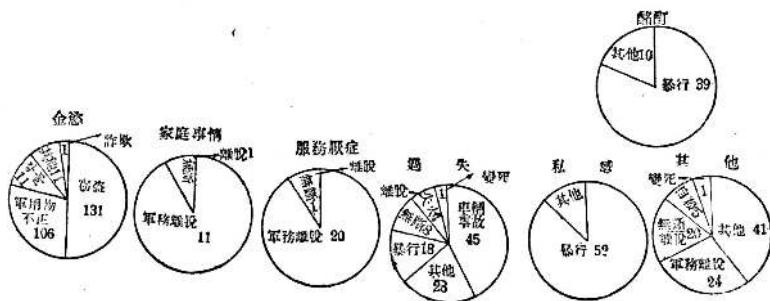
軍務離脫 月別 發生 統計



犯罪原因別統計(人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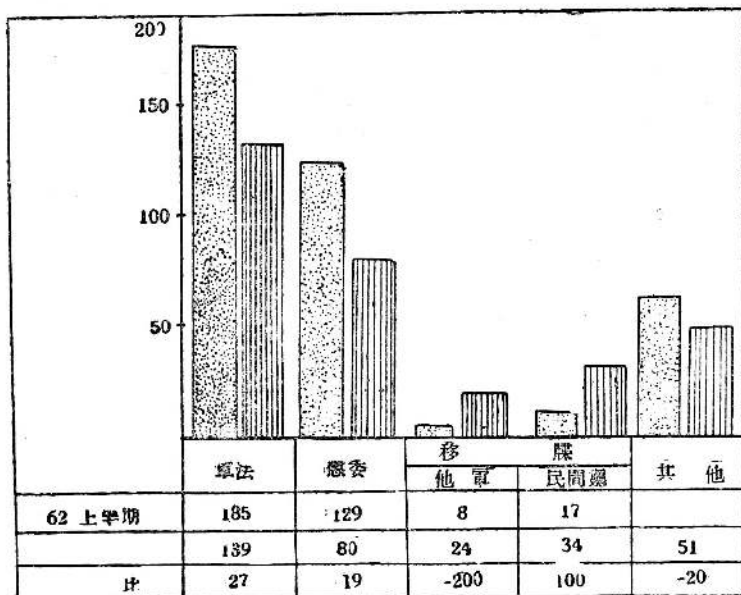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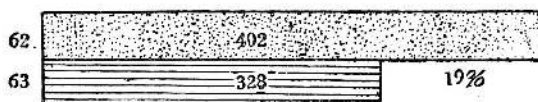


【63 上半期 原因 罪科別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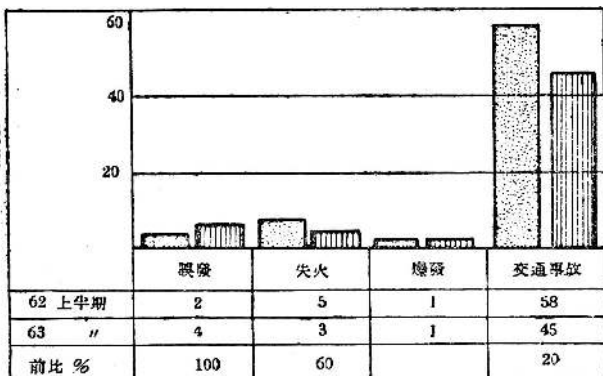


63 上半期 階級別 罪科別 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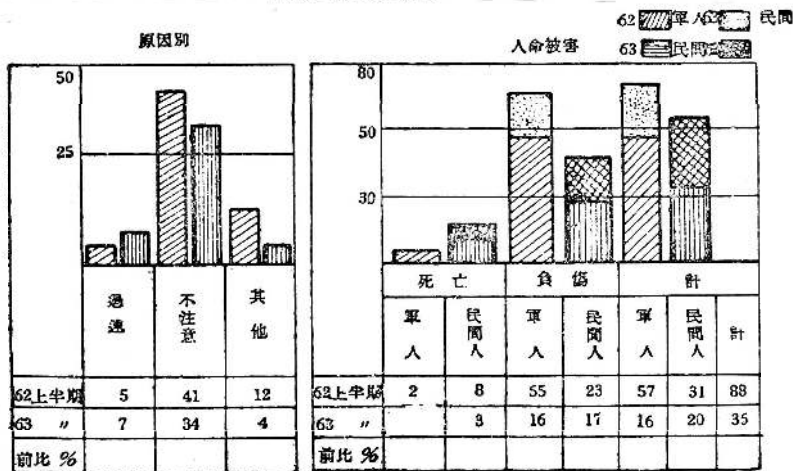
階級別	罪科別		軍務離職地 無斷離職		上自	殺	其 他	計
	強力犯	財産犯	無斷離職	安全事故	變	死		
領 官	4	3		1			1	9
尉 官	14	8	3	1	1		17	44
下士官	35	28	12	8			9	92
兵	35	75	58	34	7		51	267
其 他	24	135	11	5	2		17	194
計	112	249	84	249	10		95	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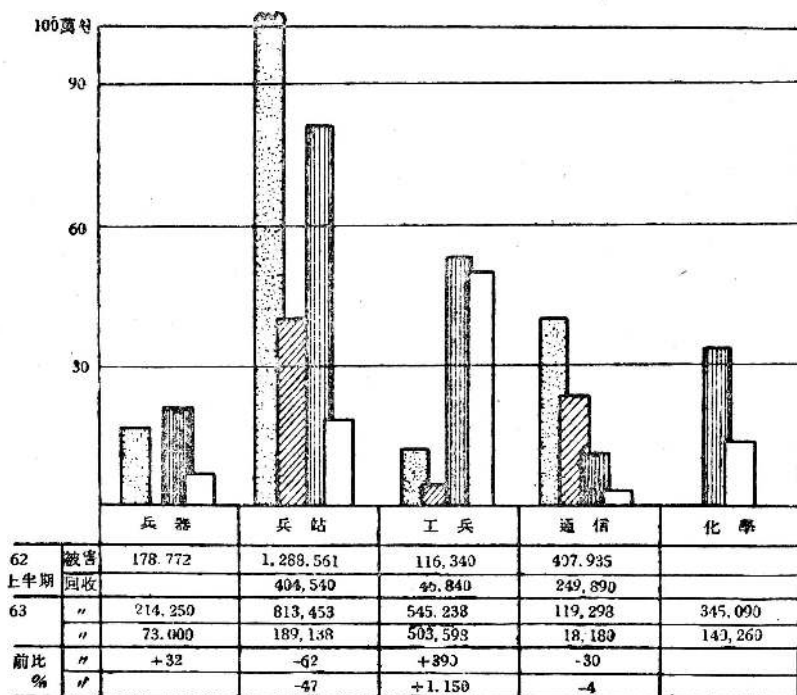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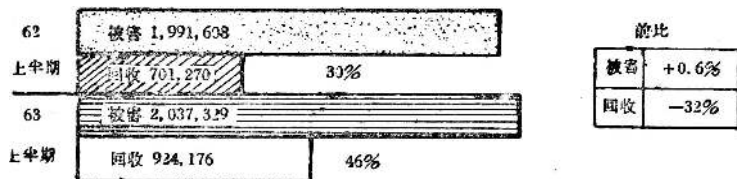
安全事統計




【交通事故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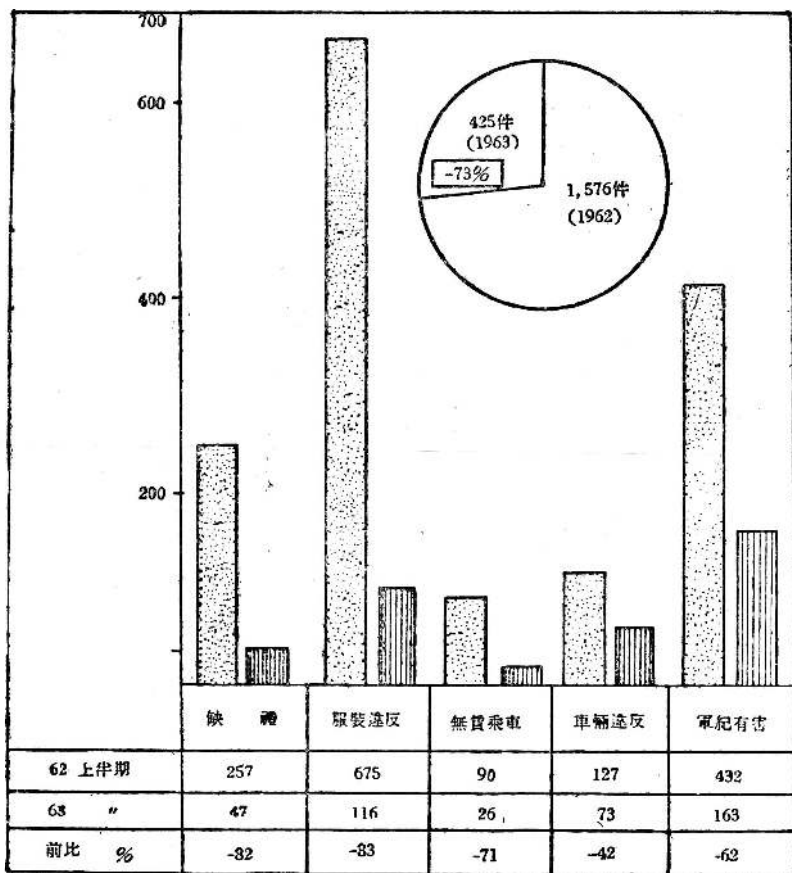


軍需物資 被害回收 統計



軍風紀違反統計

62 
63 



軍隊와階級



申 午 鉉

△空軍少尉▽

一、序 言

「軍隊와階級」 이는軍隊社會의 特殊性과階級の 本質을 現實的인 眼觀에서 가장 具體的으로 暗示해 주는 不可分離의 概念들이다. 그만큼 우리는階級없는軍隊를 상상하기 어렵듯이 또軍隊만큼階級の 意味를 如實하게 實證해주는 社會도 드물것이다.階級은 軍隊社會를 연결하고 움직이는 중추인경인 同時에軍隊의 成長發展을 左右하는 基本的인 動力이다. 따라서階級에 對한 올바른 認識과 그의 正當하고 切實한 行사는 軍隊社會의 存亡을 판가름하는 重大事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軍隊社會에서 찾아하는階級の 位置와 그의 意味를 물어야 하는 課題의 필수성에 부딪치며, 이 切實한 要求에 따라서 本小考는階級の 意

味와 근거 및 그 限界線을 平明한 常識의 立場에서 理論的인 定礎를 試圖하려는 터이다.

二、階級の 意味

무릇 人間社會는 無秩序의 狀態에서 秩序있는 狀態로 發展해왔고, 이것은 社會의 複雜化를 따라 比例的으로 增加하게 되었다. 卽 單純한 自然의 狀態에서 複雜한 人間組織의 社會狀態로 分化發展해온 것이다. 따라서 人爲的인 複雜化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秩序維持는 自然秩序가 아니라, 人爲的인 秩序가 要請되었고 이같은 人爲的인 秩序維持의 端的인 表示가 곧 「階級」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階級」의 第一意는 人間社會의 秩序維持에 있는 것임을 어림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階級은 결코 人間 本質의 인 것과 關係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人間の 外的인 生活, 即 하나의 社會生活의 秩序維持를 爲한 方面에 不過한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階級을 云謂할 때에 民主 共產主義가 말하는 階級의 意味와는 全히 異端的인 民主 社會의 階級이 存在하는 理由가 成立할 수 있는 데이다.

그러므로 階級없는 社會란 人間이 志向할 수 있는 가장 理想的인 無政府의 狀態를 意味하는 것이고, 이것은 人間의 現實에서 거의 實現不可能한 것이다. 「原始共產社會」는 현재의 현실로서는 바로 「遠視空山社會」임을 면치 못 하겠다. 人間은 결코 人類全體가 希望하는 最高最善의 完全한 理想的 存在로서의 「神」일 수도 없거니와 「時間과 空間」이라는 有限者에 포함된 感性的 現實界에 必然的으로 制約되어 있는 肉體的인 存在로서의 「人間」은 너무나 不完全하고 自意的이며 無原則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人間의 단편적 현실에서 完全한 統一性으로서의 人類의 理想을 固執한다는 것은 結局은 空想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따라서 現實社會에 있어서 秩序維持는 人間の 自發性에 依한다기 보다는 集團의 契約으로서의 하나의 權威에 依存하는바 크다 아니할 수 없겠다. 여기에 必然的으로 하나의 法(自然法에 代置되는 人爲法)이 成立되고 이것을 維

持하고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수단이 곧 社會的인 階級이다.

더욱이나 명령의 복종을 그 生命으로 하고 이의 效果的이고 또 迅速한 遂行을 爲하여 單一하고 수직적인 명령계통이 最高度로 強化되어 있는 軍隊社會에 있어서 階級の 必要性이란 再言을 要치 않는다. 命令系統 自體가 徹底히 段階的인 階級序列을 前提로 한 것이 거니와 더욱이나 個人의 복지보다 集團, 그것도 最高의 集團인 國家社會의 一翼을 담당하는 만큼 이 밋손을 수행하기 爲해서 一時的 特殊的으로 다소 不合理한 行動의 強要도 不可避하게 되는 故로 個人보다 團體가 量的으로 優位에 있게 되고 이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階級の 힘이라 면 어느 社會보다도 軍隊社會에서 階級이 차지하는 比重은 크다 아니할 수 없 겠다.

三、階級の 根據

上述한 바와 같이 階級은 端的으로 軍隊社會의 特徵을 대변하는 唯一의 상징이라 할 만큼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個人의 모든 能力보다도 絶對的인 優位를 차지하는 이 階級이란 권위 는 도대체 어디서 부터 오는 것인가? 「階級은 階級이다.」라고 所謂 無識(?)한 軍人들이 주장하듯이 階級은 그의

근원이냐 근거를 물을 수도, 또 물을 必要도 없을 만큼 神聖不可侵의 絕對權力인가? 아니면 그러한 주장들은 다 「我田引水格」인 時代錯覺에서 오는 망언이오 人智의 發達의 結果이며, 八本主義를 근간으로 하는 民主社會에서는 아무리 軍隊라 하더라도 民主理念에 立脚해야 하는 것이며, 階級の 권위에 대한 근거성립도 이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發達된 民主主義는 어떠한 個人的 獨斷도 인정하지 않으며 人間의 智慧로 合理的인 理解가 불가능한 어떠한 권위도 배척한다. 階級の 권위도 그 근거가 合理的이라면 우리는 아무 異意없이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고 不合理하고 反民主의 이라면 正義의 기치아래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階級の 근거는 우선 철두철미 合理的이고 民主의 이어야 한다는 필요충분 條件下에 制約되며 階級的의 행사는 이 근거위에서 분수에 맞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階級권위의 근거성립은 階級이 갖는 本質的인 意味에서 부터 出發해야 한다. 앞서 우리는 階級的의 意味가 一次的으로 「社會秩序維持」에 있음을 살폈다. 그렇다면 階級的의 근거 역시 「社會秩序維持」라는 대전제 아래 制約되지 않을 수 없다. 即, 제급의 근거는 個人的인 要素가 아니고 「社會的」 「共益的」임을 짐작할 수 있다. 階級권위는 결코 어떤 特殊한 個人이나 集團이나 主義일 수는 없고 이

모든 「特殊我」를 대변하는 「普遍我」가 아니면 안 된다는 當爲에 直面한다. 따라서 階級的의 권위는 無數한 特殊我的 大변자 그러므로 民主國家에 있어서는 바로 國家主權으로 부터 發源한다. 그러므로 階級은 그 소지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原所有主인 國家로부터 委任받은 監督권위에 不過하다. 따라서 그것은 제급소지자의 個人的 本質과는 別個의 것이며 결코 個人的 專有物이 아니고 그 한계도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 階級 自體는 그 階級所持者의 個別의 能力이나 資質과는 전혀 無關하게 國家로부터 위임된 一方的인 권위인 것이다. 個人은 다만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充實히 그 職能을 수행하는 데 不過하다. 그리하여 民主國家에서는 最高權威者라 하더라도 國民의 約束인 主權의 노복에 불과한 것으로 看做되는 것이 自然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階級所持者는 그 階級에 대한 直接的인 권리와 責任感을 느껴야 할 것이며 항상 個人보다도 그 階級的의 근거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階級 自體의 권위를 爲하여서는 과감하고 충실할 것이며, 自己自身에 대해서는 항상 겸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大領」은 大領이란 階級 自體를 爲해서는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이며, 自己自身에 대해서는 自己本質이 「大領」이 아니라 이것과는 無關하게 아니 이보다는 몇천 배나 더 귀한 「人間」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民主社會의 構成員은 階級을 特權으로 과대평
가해서도 안되고 또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멸시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國家主權으로부터 지원한 것인만큼 階級
自體에 對해서는 敬의를 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民主
國家의 主權은 自己아닌 他人이나 어느 特定人에게 屬한
것이 아니요. 「나」를 포함한 全體我로서 國民全體를 상
징하는 것이므로 국가 권위에 대한 尊重은 결코 他者에의
예속이나 尊崇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尊重하고
「他人」을 尊重하는 意味에서 바로 全體我로서 自己自身
에의 尊重, 即自己意思表示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自發的
인 行動이기 때문이다. 民主軍隊는 결코 어느 特定人이나
特殊集團의 專有物은 아니다. 그것은 전혀 國民의 意思에
依해서 構成된 國民을 爲한 國民의 軍隊인 것이다. 따라
서 軍隊社會의 各成員에게 주어진 역할과 이 역할의 수행
을 爲하여 부여된 권위도 國民의 意思에 依해서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는 階級이나 軍隊自體에 對해서 조금도 불
쾌감을 느끼거나 異端視할 必要는 없다.

四、階級的 限界

이와 같이 階級은 軍隊社會의 秩序維持라는 莫重한 意味
를 갖고 있고 그러니만큼 그 배경도 國家라는 最高權力體

를 등에 업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自體 無限定的 권위
를 갖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階級的 권위
가 國家로부터 委任된 것이고 國家는 그 自體 絕對的인
神의 存在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個個人的 統一的이고 全
體的이며 항구적인 福利를 爲하여 契約에 依한 假構物
에 不過한 것이라면 階級的 권위도 必然的으로 그 限界에
直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階級自體가 國家
위에 근거하고 또 國家는 個人위에 근거한다는 二重의 인
意味에서 한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첫째, 階級的 근거 自體가 한정되어 있다. 即, 階級的
근거가 되고 있는 國家主權은 國民의 集團意思에 不過한
것이다. 勿論 個人意思의 綜合統一이라는 點에서 國家의
意思는 個人的 特殊意思보다 優位에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근거 本質의 인 意味에서 본다면 國家主權은 결코 그의
原主體인 個人的 人格을 능가할 수는 없으렸다. 國家없는
個人은 充分히 생각할 수도 存在할 수도 있으나 個人없는
國家란 存在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虛構에 不過한 것
이다. 發生的으로도 國家보다는 個人이 先行하고 本質的
으로도 個人的 부분적인 측면들의 綜合인 國家보다는 自
體가 先行해야 하는 것이다. 即 結果的인 面에서는 國家는
個人보다 優位를 占하지만 原因의 面에서 본다면 個人이
國家보다 優位에 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集團의 最高級에

屬하는 國家라 할지라도 個人的 本質의 인 측면에는 關與할 수 없는 것이다. 적어도 個人의 人格이나 自由에 屬하는 것을 即ち 個人的인 것에 關係하고 他者에 손익을 끼치지 않는 事상에 關해서는 國家는 아무런 權위도 갖고 있지 않다. 民主國家에서 신앙, 거주, 출판, 결사의 自由와 같은 基本的 自由權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이런 意味에서 지극히 當然하고 正當한 것이다. 「존·스튜어트, 밀」이 잘파한 바와 같이 여하한 集團의 이름으로도 個人의 自由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智慧를 자랑하는 希臘人들은 集團의 이름으로 「智慧의 智慧者」인 「소크라테스」를 「無智慧者」란 罪目으로 毒杯를 주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들이,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대중의 이름 아래 十字架에 못박았다는 것은 人類歷史上에 가장 치욕적인 두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階級은 그 권위를 國家로부터 委任받고 있다는 點에 한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느 個人에게 주어질 階級은 결코 그 個人에게 無制限하게 주어질 것도 아니요, 그 個人自體와 同一視될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階級の 行사는 오직 委任받은 사항과 범위 안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階級을 自己自身の 本質과 同一視하여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反對로 분별없는 자만감에 도취한다는

것은 천만 不當한 것이다. 마치 「大領」의 階級을 소지한 者는 自己本質의 大領級에 屬하는 것처럼 公務執行에나 私生活에나 無制限的으로 大領令을 하려 든다면 망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一時的으로 一等兵이 自己部下였다고 해서 마치 一等兵의 階級이 그 人間의 本質을 代表하는 것처럼 영구히 一等兵으로서의 자기부하로만 보는 자가 있다면.....

대체로 人間은 하나의 宇宙로서의 個別的인 存在요, 同時에 他者와 共存하고 있는 社會的인 存在이기도 하다. 따라서 人間의 生存은 칠두칠미 自己自身에게만 關係하는 本質的인 측면과 他者와의 關係에서 生活하고 交通하는 機能的인 측면을 具有하고 있다. 이 兩者는 어느 것이나 固有한 特성과 領域을 갖고 있으며 相互補完하는 것이다. 人間의 本質的인 面은 바로 生命이란 한 다리로 表現할 수 있듯이 이것은 그 어떤 價値보다 先行하는 人間의 本質自體이다. 一切의 量的 測定, 比較, 評價를 不許하는 天下보다 귀한 것이다. 人間의 價値와 存在意義는 全的으로 여기에만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나」의 本質的인 면이 神聖不可侵의 絕對價値이기 때문에 「나」는 同時에 「나」 아닌 他者의 本質的인 측면도 나의 것과 똑같이 認定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人權尊重이니 自由의 高貴性이니 하는 口號들이 탄생하고 人間關係 社會關係와 關與하는 人間의

機能的인 측면도 無視할 수 없는 理由가 成立한다.

앞서 論해온 階級이란 것은 人間의 이와 같은 두 측면중 消極的이고 副次的인 측면 即 機能的인 측면에만 關係하며 本質的인 것에는 전혀 關係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階級이 아무리 國家로부터 委任받은 권위의 행사라 하더라도 個人에게 無制限的으로 妥當한 것이 아니고 極히 有限한 부분인 機能的인 측면 即 無제한 本質的 有限한 「現象」에만 局限하는 것이다. 民主社會를 維持發展시키는 가장 重要한 것이 바로 이러한 生活態度 即 人間의 本質的인 측면과 機能的인 측면을 명확하게 區分해서 行動하는 思考方式과 行動樣式이다. 職業의 貴賤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과 公私를 엄격히 區別한다는 것은 다 이러한 면과 關係하는 것이다.

事實이 이런진대 上階級者는 下階級者의 人格的인 국민에까지 階級意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下階級者는 上階級者에게 一時的인 안일과 出世를爲해서 人格的인 면에까지 劣종의 態度로서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封建社會의 관료주의적 階級은 民主社會의 進進한 발전을 저해하는 勿論, 上下間의 아름다운 人間關係를 방해하고 不必要한 形式을 勿약적인 關係化함으로써 時間과 生活의 낭비를 자초하는 것이다. 人間의 機能的인 면을 벗어난다면, 더욱이나 그것도 公務의 영역을 벗어난다면 이미 階

級은 無意味, 無氣力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階級에 대한 자 중에는 마치 自己自身이 「大領」으로 태어나고 적어도 자기의 能力으로 「대령」이란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거나 한 것처럼 二等兵같은 것은 영구히 자기의 부하에나 屬할 天下의 弱者, 하층은 미물처럼 백안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態度는 貴族이 노예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識者가 無識者를, 成人이 小兒를, 先生이 學生을, 紳士가 약자를, 進取한 사람이 병자를 無視하고 착취하는 것과 같은 가장 惡質的인 근성인 것이다. 이것은 民主社會의 암적 存在요 人道主義의 仇敵이다.

이러한 장애 때문에 軍隊社會는 정상적인 人間關係를 갖지 못하고 따라서 人間の 成長과 人間の 發達에 比例하여 독창적인 발전과 多樣化의 脚光을 받지 못한 채 한결같이 구태의연한 形式과 악습을 「전통」이란 이름 아래 착속시키고 고집하고 있다. 결과는 무엇인가? 색은 총장이 가득한 흰 무덤을 금광처럼 애지중지해 보았자 그것은 빈무덤에 불과한 것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이리하여 오늘날 軍隊社會는 急進하는 民主發展의 대열에서 낙후한 異端者의 낙인을 면치 못하고 있다. 勿論 軍隊도 時代의 추세와 더불어 발달 성숙해왔지만 아직도 그 길은 멀고 아득하지 않다.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軍隊는 特殊한 社會요 따라서 이 社會의 구성원인

軍人は本質的으로 特種의 人間인 것처럼 自他가 誤認하고 있는 것은 眞인인가? 軍隊社會는 社會아닌가? 軍人은 사람아니고 무슨 별세계의 人間인인가? 軍隊는 음미와 비판의 對象에서 면제된 神話의인 存在인가? 특하면 「軍隊에서 무슨……」 「軍人이 무슨……」云云하는 式으로 單사를 「軍隊」에 다 전가시키버리는 것이다. 마치 「軍隊」라는 것이 萬事亨通의 마술사의 方망이나, 진지진능의 神이나 되는듯이…….」

勿論 軍隊社會에도 특수성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軍隊社會」는 「軍隊+社會」요, 「軍人」은 「軍人」이다. 卽「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定義고 最近類概念에다 種差를 풀러스한 것이다. 「軍隊社會」는 軍隊라는 種差를 社會라는 類概念에다 덧붙인 것이요, 「軍人」은 人間이란 類概念에다 「軍」이란 種差를 덧붙인 데 불과하다. 여기서 本質的인 것은 「社會」와 人間이란 유 개념이요, 「軍隊」나 「軍」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특수성에 지나지 못한다. 「軍隊」가 「社會」를 「軍人」이 「人間」을 넘어 설 수 없음은 屬性이 本質을 種差가 유 개념을 능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理致이다. 軍隊社會도 社會의 法則과 關係를 無視할 수 없고, 軍人도 人間의 責任과 義務를 면할 수 없다

「軍隊社會」에서 「軍隊」라는 특징이나, 「軍人」에서 「軍

이라는 특징은 「社會」와 「人間」에 비교하면 至極히 적은 부분에 不過한 것이다. 「社會의 秩序維持」라는 公共복지의 量的 문제를 떠나서 階級은 存在치 않는다. 아무리 軍隊社會라 하더라도 이 이상 계급의 妥當性의 범위가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人間本質的인 것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는 것이다.

五、結 論

이상에서 至極히 常識的인 立場에서나마 階級の 意味와 근거와 그 妥當性의 한계를 理論的으로 전개해 보았다.

軍隊社會의 秩序維持를 爲해서 階級은 存在하고 그 妥當한 권위는 국가로 부터 委任된 것이며, 그러기에 그 妥當한 계는 公務執行에 한정된다. 軍隊社會도 하나의 社會인 만큼 거기에는 人間의 集團이 전제되어 있고 人間關係가 不可避하다. 그런데 軍隊社會에서 人間關係의 外的量的 尺度가 階級으로 代表되기 때문에 階級이 軍隊社會에서 얼마나 큰 比重을 차지하는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人間關係의 원만한 수행이 集團目標을 達成하는데 가장 重要한 團結을 낳는다면, 그리고 軍隊의 人間關係가 階級으로 形成되는 것이라면 階級에 對한 올바른 認識과 거기서 出發하는 正當한 階級行使는 端的으로 軍隊社會의 生命이라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敵은 安차

共產各國을 움직이는 魁首들

〈그들의 出生、身分、行蹟、性格〉



이들 魁首들은 共產世界를 움직이는데 끝이지 않고 항상 自由世界를 征服하려는 劃策을 쉬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곧 우리 自由民의 敵이며 우리는 이들의 正體를 正確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趙 誠 植

호루시초프

△蘇 聯▽

①

「호루시초프」는 一八九四年에 「우크라이나」近方에 있는 「구루수쿠」縣의 炭夫의 家庭에서 誕生하였다. 幼年時에는 敎育도 充分히 받지 못하고, 雇傭勞動과 「몬바스」炭鑛에서 勞動하지 않으면 안 될 程度로 生活이 貧困하였다. 一九一七年의 「러시아」革命當時에 「勞動者」로서 革命에 參加하여 이 地方의 青年들 가운데서 優秀한 力量과 積極性을 發揮한 點으로 一九一八年에는 共產黨에 入黨이 許容되었다. 이때부터 「호루시초프」는 熱烈한 共產主義者로 登場되어 一九二九年 三五歲에 스탈린工業大學에 入學하여 各種理論의 探究에 專念하였다. 在學當時 大學內의 黨委員會書記로 推薦되어 活躍하였다. 이 當時만 하여도 많은 大學生中에는 「트로즈키」, 「부하린」派를 支持하여 「스탈린」派에 反對하는 者가 많았으나 「호루시초프」는 斷然히

「스탈린」을 支持하고 나섰으며 또 獻身的으로 「스탈린」派를 推薦하여 그의 路線을 積極支授하였다. 이것이 出世의 기틀이 되어 共產黨中央委員會에서는 그를 一躍 登用하기 始作하였다. 一九三二年에는 「모스크바」市黨委員會의 第二書記를 거쳐 三八年에는 「우크라이나」黨 書記長, 三九年에는 黨政治局員에 까지 登用되었다. 獨蘇戰爭時에는



<호루시초프>

「스탈린」의 推薦으로 一躍 陸軍中尉란 職責을 賦與받아 「우크라이나」의 防衛司令官으로 任命되었다. 이곳 防衛에서 多幸이도 赫赫한 成果를 거두어 獨逸나치스를 물리치고 「우크라이나」를 充實히 防衛하였다. 後 一九四四年에는 軍事職에서 「우크라이나 共和國」人民委員會議長을 거쳐 一九四七年에는

그곳 首相에까지 昇進하였다.

「호루시초프」의 機敏하고 要領 좋은 人品을 높이 信任하여 「스탈린」은 一九四九年에 「모스크바」로 召還해서 가장 重要職責인 「모스크바」州黨 第一書記로 登用하였고 一九五二年에는 소련 共產黨 中央委員會 政治局員이라는 最高職에까지 昇進시켰다. 이때까지 「스탈린」의 心腹으로서 많은 寵愛를 받았다. 그러나 野心滿滿한 「호루시초프」는 「스탈린」의 徹底한 個人崇拜思想과 狂暴한 獨裁思想에 反感을 품기 始作하였고 特別 農業政策問題에 있어서 相互間意見이 合致되지 않아 漸漸 兩者間에는 間隔이 벌어지게 되었다.

一九五二年 八月頃 「호루시초프」는 農村의 農民生活의 貧窮相을 「스탈린」에게 直接 揀育하여 農業政策의 是正策을 勸告한 바 있었다. 「스탈린」은 激憤하여 「당신이 農業政策을 研究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부질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며 「호루시초프」를 蔑視하고 憎惡하기 始作하였다. 이 原因은 「스탈린」의 後繼者 問題로 側近者들이 「호루

우리의 敵을 일자

시츠프」에 대한 辯勝中傷을 일삼았던 만
치 「스탈린」의 미움을 사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忍耐力이 強하고 出世術에 能
한 「호루시츠프」는 默默寡言으로 自己
일에만 充實하였다. 一九五三年 三月
「스탈린」의 死後에는 「스탈린」의 直系
派인 「마렌코프」, 「모로토프」, 「블가
닌」, 「유코프」를 물리치고 드디어 蘇聯
共產黨中央委員會 第一書記兼 首相職에
登極하여 名實共히 執權者가 되었다.
「호루시츠프」의 性格은 快活하며 助力
과 識見이 卓越한 點이 있으며, 臨機應
變으로 機知가 豊富하고 남을 揶揄하고
戲弄하는 性格과 寄妙한 格言等을 引用
하여 人心을 誘引하는 性格이 있다. 그
러나 野心滿滿한 政略家이며 演劇의 演
出家와 같이 虛風을 잘 치는 豪膽한 風
釁兒이고 狂의인 浮浪者의 性格을 지니
고 있다. 特히 性質이 豪蕩한 大飲酒家
이기도 하다. 十餘年前에는 大宴會나
酒宴이 있을 때마다 滿醉하여 暴言과
醜態를 부리기가 일수였다. 더욱이 滿
醉되어 傷處까지 임은 일이 있었다. 二

三年前부터는 飲酒에 對한 謹慎과 健康
에 留意하여 飲酒의 後禍를 일반人에게
도 宣傳하고 體質에 對한 害毒뿐만 아
니라 國家事業에도 支障을 招來한다 하
여 「노스크마」 및 其他 都市의 酒店을
制限하고 販賣量까지 制限하여 法文化
하였다 한다. 이렇듯이 飲酒에 對하여
도 決斷性 있는 政策을 實施한 것과 같
이 豪蕩하고 機智 있는 性格으로 政治面
에서도 自己 마음먹은 決斷力을 이루며,
個人崇拜의 廢止, 「스탈린」閣下, 平和
共存政策等, 如何든 世界의 注目을 惹
起시킨만한 演出을 實施하고 있는 野心
滿滿한 獨裁家이다.

毛澤東

②

△ 中 △ 共 △

毛澤東은 一八九三年 中國 湖南省의
中農家의 子息으로 誕生하여 그곳의 漢
書堂에서 勉學하였고, 一九一三年부터
一九一八年까지 中國 長沙라는 곳에서
湖南省立 第一師範學校를 卒業했다.

그後 北部地方을 旅行하여 國立北京大
學 附屬圖書館의 助手를 몇年間 하였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맑스」主義에 關한
書籍을 讀破한 것이 共產主義者로 轉變
한 動機가 되었다 것이다. 一九二一年 五
月 中國 共產黨 結成을 爲하여 上海에 集
合했던 一二人中의 한 사람이었으며 이
곳 上海會議後 湖南省에 歸郷한 毛澤東
은 곧 黨機關을 設置하고 鄉里農民의
支持를 받기 爲하여 努力하였다.

一九二五年부터 一九二七年에 이르기
까지 中國 共產黨이 孫文과 蔣介石이 引
率하는 國民黨과 協力하였을 때 高級 宣
傳員을 歷任하였다. 蔣介石總統은 이
當時 共產黨이 民族主義運動을 內部에
서부터 破壞하려는 氣色을 感觸하자, 一
九二七年 共產黨과 袞別하여 많은 人員
을 引率하고 別途로 國民黨을 強化하고,
이곳에서 떨어져 나간 毛澤東은 몇십名
의 敗殘兵을 糾合하여 江西省의 山岳地
帶에 盤居하고 國民黨政府에 對戰하기
爲한 工農紅軍을 組織하였다. 一九三〇
년에는 共產黨 및 軍의 敵對者에 對한
『赤』의 肅清을 恣行하여 黨全體의 指導

權을獲得하였다. 이때가一九三五年當時이다. 그間 國民黨軍의 殲滅作戰에 威脅을 느껴 一九三四年부터 一九三五年에 걸쳐 所謂 有名한 一萬里長征을 敢行하여 逃亡行脚을 始作하였다. 이로부터는 陝西省을 共產黨首都로 定하고 그 當時 進行中에 있던 中日戰爭을 利用하여 農民을 糾合하는 한편, 共產軍의 強化를 企圖하였다. 이것을 契機로 八路軍, 新西軍을 組織強化하여 抗日運動과 抗日戰線을 擴大하고 中國의 大陸에 共產黨組織의 強化를 圖謀하였다. 一九四五年 日本이 敗亡한後 中國大陸에 內亂을 再發시켜 國民黨軍을 擊破하고 一九四九年 드디어 共產黨이 中國支配權을 奪取하였다. 毛澤東은 純農村出身이나, 인텔리型이며 少年時代부터 論語孟子는 勿論 水滸傳, 三國誌 등 많은 讀書을 耽讀하고 著書도 있다. 卽 持久戰論, 新民主主義, 矛盾論 등이 있으며 海外留學조차 없이 中國內에서 純全히 勉學하고 國內을 周遊하여 各地民心을 把握하는 데 努力하였다. 이것이 國內에서의 政治的 土養을 構築하게 된

原因으로 된다. 그러므로 毛澤東은 讀書家이며 理想主義者이기도 하다. 그의 性格은 忍耐力이 가장 강한 것이 特徵이며, 固執에 있어서도 가장 강하기 짝이 없는 固陋한 頑固分者이다. 自尊心이 強하며, 英雄主義的인 性格과 說得力이 強한 者이다. 恒常 地方을 巡回하여 民衆을 說得하며, 農民들에게 接觸하여 自己의 指導力을 浸透시키는데 沒頭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私生活에 있어서 是類例없는 好色家이며, 變態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의 처음 妻는 國共當時 國民政府에 捕虜되었으며, 그後 共產黨員인 賀士貞이란 女子와 結婚하여 一九三七年에 離婚하고, 三九年 上海에서 女優生活을 하던 藍蘋과 三次結婚하여 生活하던 中, 三年後에는 또 다시 離



〈毛澤東〉

婚하고 다른 女子와 結婚하였다. 그러므로 異腹子息이 五名以上이나 되며 家庭生活은 複雜多端하다 한다. 只今도 好色家인 그는 秘密裡에 많은 女子들과 關係를 맺고 있으며 醜聞이 孜孜하다 한다. 只今은 中共의 魁首로 「스탈린」主義의 信奉者로서 毛澤東을 敎祖로 하는 人格崇拜, 思想을 鼓吹시키면서 有名한 「大躍進」, 「人民公社」等 人民酷使에 餘念이 없고, 그의 共產遊擊鬪爭을 唯一한 歷史로 登場시켜 「호루시츠포프」를 凌駕하는 國際共產主義運動의 領導者로 自稱하여 蘇聯에 對한 一大排擊을 恣行하는가 하면 「스탈린」主義의 暴力論을 堅持하고 一大冒險主義的인 僞略戰軍으로서 全世界를 制霸하려는 英雄心理에 사로잡히고 있다.

③ 金日成

△北 傀▽

金日成은 一九一二年 平南大同郡古平面 南里에서 中農이었던 金輔鉉의 長

男 炯櫻의 아들로 태어난 本名 金成柱라는 자이다. 그의 生母는 康班錫으로서 彰德學校(簡易學校)設立者이며, 基督敎信者이다. 康良殷(現在 北傀 最高會議副委員長)과는 六寸間이므로 金日成과는 外戚이다. 十四歲時에 父母를 뒤쫓아 滿洲 吉林으로 들어가 그곳 毓文中學에 入學하였다. 中學時節에 이미 中共共靑에 加入하고 一九三一年에 中國共產黨에 入黨하였다.

可笑로운 것은 그들의 文獻에 依하면 이때 다만 『共產黨에 入黨하였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國名없는 共產黨이 어디 있었는가?

當時 朝鮮 共產黨은 解體 當하고 없었다. 金日成이니 金成柱가 入黨한 共產黨은 勿論 中國 共產黨이었다. 그런데 그를 民族的 人物로 내세우기爲하여 그가 처음 入黨한 것이 中國 共產黨이라는 것을 숨겨 버린다. 얼마나 어리석은 참피인가? 그런데 當時 中國 共產黨은 滿洲에서도 遊擊戰을 爲主로 하였다. 그래서 金日成도 中共 遊擊隊에 加擔하게 되었다. 그것이 一九三一年頃이

었다. 그리하여 그는 當時 中共의 精遊擊隊 隊長이었던 「周保中」의 末端部下이었다. (周保中은 現在 中共 國防委員會委員으로 지난번 崔庸健의 中共訪問時에도 金日成과 같이 싸우던 軍人이라고 歡迎參加者名單에 紹介되었었다) 다음해 一九三二年 四月 中共은 戰略上 韓國人들만으로 한 部隊를 만들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中



<金 日 成>

共의 東滿遊擊隊의 한 麾下部隊에 不過하였다. 그러기에 金日成이 가장 자랑하고 誇張히 내세우는 所謂 普天樂事件 때에도 金日成은 前記 周保中이 引率하는 部隊의 한 帥長에 不過하였다. 이것이 金日成의 黃金時代였다. 그러나 日本軍警의 討伐作戰이 尤甚해 지자, 金日成은 一九四一年에 소련으로 달려들

어 갔다. 이곳에서 이번에는 蘇聯 共產黨員이 되고 蘇聯 軍隊訓練, 特別 特務訓練을 받았다. 果然 蘇聯軍이 北韓에 進駐하자 그는 將校服으로 따라 들어와서 몇날이 안가 軍服을 벗고 金日成將軍 行勢를 하게 된 것이다. 이 金成柱가 언제부터 金日成의 이름을 盜用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그가 滿韓時代부터 이미 金日成의 이름으로 行勢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 젊은이가 우리 民族의 傳說的 英雄인 年老한 金日成將軍과는 全然 別個人이라는 것은 年齡問題로도 그렇지만 特別 다음의 點에서 問題도 안되는 것이다. 卽 우리 民族이 仰慕하는 金日成將軍은 徹底한 民族主義 志士였는데, 이 金日成은 어서서부터 共產主義者라는 點이다. 이것이 金日成의 正體이다. 日帝時代 中共 遊擊隊 隊員들을 따라 다니며 多少 싸우다가 多急해지자 蘇聯의 勳章으로 쫓겨들이간 것이 무엇이 그리 特別하고 대단하다고 그것을 絕世의 英雄, 아니 神人처럼 받들게끔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金日成은 蘇聯軍이 데리고 들어와서 造作해낸 將軍이며, 魁首에 不過하며 北韓 人民들이 推戴한 指導者는 決코 아니다.

一九四五年十月一四日「金日成將軍 歡迎不壤市 群衆大會」ヲ 蘇聯占領軍 指示로 公設運動場에서 開催되었을 때 金成柱는 金日成將軍으로 紹介되었다. 金日成將軍을 보려고 遠近을 가리지 않고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저것은 가짜 金日成」이라는 말이 되어 나오고 歡迎大會가 끝나기도 전에 흩어져 가는 사람들 도 나타났다. 그러나 金成柱를 「金日成 將軍」으로 꾸며서 「民族의 英雄」, 「絶世의 愛國者」, 「民族의 太陽」으로 내세우려는 蘇聯占領政策家들의 初志에는 아무런 變動이 없었다. 「金日成將軍 凱旋記」, 「人間 金日成將軍」 등의 글은 의외로 이것을 國定版教科書처럼 모든 사람에게 읽게 하였다.

金日成의 性格은 私慾이 많고 愚鈍한 性質에도 不拘하고 英雄心과 虛榮이 充溢한 者이다. 더욱이 殘忍性과 野獸性

이 강한 者로서 反對勢力의 肅清, 一般 人民들에 對한 酷使, 및 擄取를 例事로 恣行하며 自己에게 盲從치 않는 者는 無條件 除去해 버리는 獨裁力이 尤甚한 者이다. 特別 放蕩과 好色을 즐기며 周圍의 女性을 弄絡하는 例가 많다. 本妻가 死亡한 後十五年 以上이 經過한 今日에도 結婚은 하지 않고 이 女子者 女子와 情交를 맺어 왔으며 數名의 異腹子息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④ 胡志明

△越 關▽

胡志明은 一八九二年에 誕生하였으 며 本名은 阮愛國이다. 父親은 教師 및 公務員의 經歷者인 關係로 幼時부터 敎養과 各種學問에 專念하였다. 一九歲 때에 船員이 되어 美國, 獨逸, 英國等 地를 巡廻하여, 巴里에서 居住하기를 決定하고 이곳에서 寫眞修正業에 從事하였다. 巴里 滯在中에 左翼運動에 參加

하여 一九二〇年 佛蘭西 共產黨 結成當時에 活躍한 바 있다. 一九二三年에는 共產革命運動에 必要한 訓練을 받기爲하여 「모스크바」에 派遣까지 되었다. 一九二五年에는 中國, 香港, 泰國等 地를 돌아다니면서 共產革命分子의 糾合에 專念하였으 며 各地에서 訓練까지 進行시켰다. 그後 中國 廣東에 와서 「코민테른」의 委員長이었던 「보로렌」이란 者의 通譯으로서 從事하였다. 一九二七年에 中國에서 逮捕令이 내리자 「모스크바」에 逃亡하여 이곳에서 共產敎育을 받았으며 一九二九年에는 도나시 亞細亞에 歸還하여 泰國에서 南海地區 共產黨을 組織했다. 一九三〇년에는 香港에 건너와서 當時 數個團體로 分散되었던 越盟 共產團體를 印度支那 共產黨의 名稱으로 統合하는데 成功하였다. 彼は 「테로」와 暗殺의 香港을 휩쓸어 不安한 狀態에 놓여 있었다. 胡志明은 「테로團體」의 背後人物로 指目되어 一九三一年 香港에서 投獄되어 短期間 服役을 하였다. 出獄後 一九四〇년까지 東南亞 및 中國에서 共產地下組織과 運動에 從事

우리의 敵을 알자

하였으나 더더욱 一九四一年에는 中國을 土台로 越南獨立同盟, 卽 越盟을 創建하였다. 特히 이에 根據하여 印度支那에 前線團體를 結成하고 게릴라戰基地를 構築하였다. 이리하여 一九四五年까지 越盟의 兵力은 一萬人에 達하였다. 日本이 敗北함과 同時에 胡志明은 越南獨立을 宣言하여 自稱 越南民主共和國의 大統領이 되었다.



<胡志明>

一九四六年부터는 佛蘭西人에 對한 猛烈한 戰爭을 開始하여 八年間이나 激戰을 繼續하였다. 一九五四年 朱네브休戰協定으로써 戰爭은 終了되었으나 그 結果 越南은 北緯 一七度線以北의 越南民主共和國과 以南의 自由越南으로 分離되었다. 그러나 胡志明은 休戰協定을

頻繁히 違反하고 南部 自由越南의 侵略을 繼續 政行하기 始作하였으나 各種의 間諜浸透工作, 破壞活動을 展開하여 自由越南의 共產化에 現在까지 갖은 惡練한 術策을 使用하고 있다. 胡志明의 人品은 一見 溫和한 家長風의 老人같이 보이나, 智略과 謀略에 能하며 二重人格의 所有者로서 陰險한 面이 많다. 特히 破壞活動과 게릴라戰에 많은 經驗이 있는 單枝 自由越南에 對한 政治工作과 破壞活動이 日益 尤深해지고 있는 것은 胡志明의 指揮下에서 政行되기 때문이다.

⑤ 체덴발

▲蒙 古▼

共產國 各國魁首中에서는 外蒙古의 黨首兼 首相인 「체덴발」처럼 長期間에 亘하여 蘇聯에 盲從하며 또 忠誠을 다하고 있는 者는 없을 것이다. 이 者는 一九二一年에 外蒙古의 草原地帶에서 誕生하였다. 所謂 蒙古人民共和國이 蘇聯

의 衛星國으로 되었을 때는 이 者는 五歲에 不過하였다. 少年時代부터 共產主義의 影響을 強하게 받은 이 者는 一九三一年 蒙古青年同盟에 加盟하였고 그 後 「모스크바」의 東方勤勞者大學에서 政治學을 修學한 純粹한 蘇聯系이다. 特히 自己의 婦人까지도 蘇聯人이며 恒常 「러시아」語를 使用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蘇聯一邊倒임을 짐작할 수 있다. 一九三九年에 外蒙古政府의 財務次官에 登用되었고 그 翌年인 一九四〇년에는 蒙古人民革命黨(共產黨)書記長에 昇進하였다. 不過 二四歲에 最高職責에까지 登用된 것은 蘇聯에 對한 忠誠과 盲從으로써 이룩된 것이다. 恒常 蘇聯의 壓力和 威脅下 或은 懷柔에서 蒙古는 蘇聯에 絕對服從하여 隸屬國家로서 登場하지 않을 수 없었다. 隣國인 中國은 一九三三年來 外蒙古에의 勢力擴大를 企圖하였고 恒常 蒙古를 隸屬化하려는 것도 事實이었다. 中共이 成立된 後에도 外蒙古에 對한 壓力和 隸屬化는 不斷히 劃策되어 왔었다. 一九六〇年 五月中 中共의 周恩來가 外蒙古를 訪問하고

外蒙古의 第三次 五個年計劃(一九六一
—一九六五)을 爲하여 五千萬弗의 借款
까지 提供하였다. 七月에 「부카레스트」
共產國 首腦者會議에서 中共, 蘇聯의
思想對立이 進行되었을 때 蒙古는 中立
을 表明하였던바 蘇聯共產黨은 即時
「체렌발」을 「모스크바」에 召還하여 많
은叱責을 하였다. 이 當時 蘇聯은 懷
柔等의 一端으로 一億五千四百萬弗의



<체 렌 발>

蘇聯借款을 供與받았으며 六個月後는
또다시 一億三千五百萬弗의 借款을 받
았다. 이 借款을을 合하면 人口 不過百
萬名 남짓한 外蒙古로서는 國民 一人當
外貨受惠는 世界 第一이라고도 할 수 있
을만치 多額의 外貨援助를 받았었다.
그러므로 「체렌발」은 一九六〇年 以來
「모스크바」에 忠誠을 다 하기를 公言하

였으며 蘇聯의 가장 忠實한 走狗로서
登場되었다.
「체렌발」의 性格은 阿附心이 強하며
附和雷同하는 優柔不斷한 性格의 所有
者이다. 더욱 英雄心이 強하여 自己의
同志들 中에서도 有能한 者가 있으면
이것을 肅清追放하여 自己獨裁의 永久
化에 앞은 術策을 敢行하고 있다. 自己
婦人의 干渉과 政治的 指導에 左右되며
徹底한 「호루시초프」의 心服之人으로
轉變되었다.

生들을 糾合하기 始作하였다 한다.
一九四七年에는 「도미니가」의 獨裁者
「트루히요」政權을 顛覆하기 爲하여 三
千人의 遠征隊에 參加하여 失敗한 일이
있었고 그後 「유바」 및 「라틴아메리카」
諸國의 腐敗政治를 反對하기 爲한 大衆
集會 學生의 抗議集會에 積極參加하여
數次 逮捕된 일도 있다.

⑥ 카스트로
△큐 — 바△

「카스트로」는 一九二六年 큐 — 바에서
80KM 相距한 오비엔다州에서 出生
하였다. 그의 父親은 砂糖業과 木材業
을 經營하는 大資本家였다. 五兄弟中의
三男인 「카스트로」는 兄弟들과 같이 故
鄉의 山中에서 狩獵과 探險을 즐기면서
少年時代를 보냈다. 富裕한 家庭에서

出生한 이는 近傍에 펼쳐있는 貧農들의
悽慘한 生活狀態를 直接 보고 나라의
政治制度를 批判하였다 한다. 「카스트
로」는 順序있게 小學, 高等學校를 거쳐
「하바나」大學 法科를 卒業하였다. 成績
도 優秀하고 特別 運動選手로서 活躍한
바 있고 雄辯術에 能하여 恒常 大學時
節에는 政治的 活動에 趣味를 가지고
그 當時의 獨裁者의 打倒를 爲하여 學



<카 스토 로>

生들을 糾合하기 始作하였다 한다.
一九四七年에는 「도미니가」의 獨裁者
「트루히요」政權을 顛覆하기 爲하여 三
千人의 遠征隊에 參加하여 失敗한 일이
있었고 그後 「유바」 및 「라틴아메리카」
諸國의 腐敗政治를 反對하기 爲한 大衆
集會 學生의 抗議集會에 積極參加하여
數次 逮捕된 일도 있다.

우리의 敵을 알자

一九五〇년 「하바나」에서辯護士를
開業하고 同時 政治活動도繼續되었다.

一九五二年에는 國會議員에 立候補하였
으나 「바지수다」獨裁政權의 妨害에 依
하여 當選되지 못하였다. 그는 드디어
「바지수다」獨裁政權을 打倒하기 爲하
여서는 革命黨이라는 것을 決心하고 一
年間 同志科合運動、訓練、密議、計劃
을 樹立하여 反亂軍을 二百餘名の 男子
와 二名の 女子로서 組織하였는바、大部
分이 大學生과 大學卒業生이며 全部가
二〇代青年이었다. (이 當時 「카스트로」
는 二六歲) 最初에는 自己故郷에 있는 大
規模의 兵營襲撃을 計劃하고 그 곳에 駐
屯하는 四名의 軍隊를 奇襲하여 機關銃、
戰車等을 掠取하고 放送局을 占領한 後
큐바人民에게 獨裁者 打倒를 呼號할 計
劃이었다. 一九五三年 七月에 計劃과 같
이 進行시켰으나 失敗하여 많은 同志가
銃殺當하고 投獄되었다. 「카스트로」
는 이 時을 逃走하였으나 數個月後 山
中에서 逮捕되고 몇個月間의 法廷鬭爭
을 苛酷하게 展開하였다. 結局 禁錮一
五年의 判決을 받고 「피노스島」의 監獄

에 監禁當하였다.

一九五五年 「바지수다」獨裁者가 壓力
으로서 또다시 大統領에 就任하였다.

이 當時 全人民들이 獨裁者에 對한 不
滿과 不平이 加重되어, 그 威信은 餘地
없이 墮落되었다. 信憑性과 人民의 感
情을 撫摩하기 爲하여 또 周圍의 政客
들의 要請에 依하여 大統領就任慶祝의
大赦令으로서 「카스트로」는 二年만에
釋放되었다. 一九五五年 七月 「카스트
로」는 「큐바」侵入의 武器와 同志糾合을
目的으로 「멕시코」에 入國하여 많은 同
志들과 「큐바」侵入計劃에 必要한 武器
와 資金의 蒐集에 沒頭하여 不過 八二
人의 人員이 一團이 되어 「큐바」의 海
岸에 上陸한 以來 「바지수다」政府軍의
爆擊과 搜索에 遭遇하여 生存者는 單
一 二名밖에 없었다. 二名이 小銃과
十包의 實彈을 所持하고 三年以上の 遊
擊戰에서 많은 同志를 獲得하여 「큐바」
를 完全히 手中에 掌握하고 「카스트로」
가 指揮者로 되었다. 이 當時 「바지수
다」獨裁政權은 너무나 腐敗, 不正과 徹
底한 獨裁로 因하여 「큐바」人民들의 糾

彈과 反抗을 자아냈기 때문에 「카스트
로」를 同情하고 「카스트로」의 反亂軍에

加擔하였기에 「카스트로」의 勝利로 들
아갔다. 「카스트로」는 元來 共產主義者
가 아니었으며 獨裁를 粉砕하고 「큐바」
의 人道主義的 政體를 樹立한다고 宣
言하였다. 그러던 것이 소련의 秋波와
工作에 依하여, 또 많은 借款과 援助誘
引에 依하여 소련에 기울어졌다. 그러
므로 「카스트로」에 加擔하였던 「큐바」
의 民族主義者들은 失望도 하였고 後悔
한 者도 많았다. 그러나 「카스트로」가
스스로 社會主義的 獨裁體制를 構築하
게 되자 前에 同志였던 戰友들을 肅清
投獄하여 背恩忘德하였던 것이다. 只今
는 完全히 蘇聯의 走狗로서 蘇聯의 指
令에 依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 者의 性格은 豪蕩하며 多血質의 人
多感多情한 者이며, 多辯術로 同志를 說
得하는 데 能하며 盲目的으로 疾走하는
橫暴한 人間性을 지니고 있다. 只今은
過去의 「바지수다」獨裁에 못지않을 程
도로 獨裁를 實施하여 人民들의 빈축을
자아내고 있다.

⑦

티 토

△ 유
▽ 고

「티토」는 「유고」大統領이며 「유고」連邦執行會議議長이다. 一八九二年에 出生하여 大定 및 軍官學校를 卒業한 軍人政治家이기도 하다.

第一次大戰中에는 「러시아」軍의 捕虜로서 捕虜生活를 하다가 一九一七年 「러시아」革命當時에는 革命에 參加하여 赤軍과 같이 多大한 功績을 올렸다는 理由로 勳章까지 授與받았다. 이때부터 「티토」는 社會主義思想에 浸透되어 一九二四年까지 「러시아」革命軍에 加擔하여 社會主義 소베트建設에 參加하였고 一九二四年 「유고」에 歸國하여서는 封建的인 專制君主制度를 顛覆하기 爲한 革命運動에 專心全力하였다. 革命運動의 主謀格으로 逮捕投獄되어 一九二九年부터 三四年까지 五年間 獄中生活를 거쳐 蘇聯으로 亡命하여 「코민테른」에

서 活躍하여 社會主義的 人間으로 訓練을 더욱 쌓았다. 第二次大戰中에는 「나치」獨逸軍의 侵入에 對抗하기 爲하여 人民解放軍을 組織하여 指揮官으로서 主로 발치산 運動을 繼續하였다. 一九四四年 蘇聯軍에 依하여 나치 獨逸軍이 敗亡하자 「유고」臨時政府 首席이 되어 소련軍의 支援下에 「유고」王黨派를 追放하고 「유고슬라비아」連邦 人民共和國



〈티 토〉

을 樹立하여 首相으로 登場되었다. 「티토」는 首相이 된 後 蘇聯에 「스탈린」의 指令과 政策을 採用치 않고 「유고」獨特한 社會主義制度를 樹立하여 農業의 所有權 認定, 商工業의 自治管理, 地方의 自治制를 實施한 點으로 民族主義的인 傾向이 있다 하여 「스탈린」의 忿怒를 자아내어 國際共產主義陣營에서 脫退시

키고 壓力을 加하여 結局은 國交斷切까지 하였다. 「유고」가 地形上으로 自由 諸國에 包圍된 條件下에서 「스탈린」自身도 武力行勢를 하지 못하고 모는 援助中斷과 國交만을 斷切하였다. 「티토」는 屈하지 않고 도리어 西方 自由陣營과 連帶를 強化하며, 中立을 標榜하고 나섰던 것이다. 一九五三年 「스탈린」死後에는 再次 蘇聯과 東歐共產國과의 友好關係를 回復하는 努力하였다. 一九五六年에는 「호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가 始作되자 「유고」의 「티토」와 또다시 親交를 맺고 「티토」는 蘇聯을 訪問하여 共同聲明을 發表하기 始作한 以來 「호루시초프」는 「유고」의 修正主義路線을 認定하고 社會主義形態의 多樣性과 平和共存論에 根據하여 日益 「유고」와의 親密度가 加重해 가고 있다. 그러나 中共陣營은 이것을 怨讐視하고 이와 接近하는 「소련」과도 極度로 對立이 激化되어 가고 있다.

「티토」의 性格은 固執不通이며, 自己의 主張을 屈할 줄 모르는 剛直한 武斷政治家이다. 社會主義建設에 있어서도

우리의 敵을 알자

自主性を尊重하며 自國의 傳統과 民族性에 符合하는 獨特한 社會主義建設을 主張하고 있는 修正主義의 宗家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티토」의 思想體系는 共產自由兩陣營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치 確固不動한 點이 없으며 利害關係에 依據하여 兩陣營을 利用하고 있는 機會主義의 인色彩가 있음은 事實이다.

⑧ 고물카

〈高 爾 卡〉

「고물카」는 「파란」統一勞動黨 第一書記(共產黨)이며 事實上의 「파란」의 魁首이다. 一九〇五年에 出生하여 소련의 共產大學을 卒業하였다. 一九二六年 「파란」共產黨에 入黨以後 反「맛초」運動을 積極展開하였으며, 이關係로 再三 投獄하여 死境을 겪고 釋放後 第二次大戰中에는 파란勞動黨에 入黨하여 파란首都「와르스」書記로서 地下에서 活躍하였다. 「나치」獨逸軍에게 逮힌이 고 逮捕

되었으나 假名을 쓰고 危機를 冒免하였다. 蘇聯에 依하여 獨逸軍이 敗亡한後 統一政府가 樹立되었으나 이 當時는 副首相으로 登用되었다. 一九四八年 共產黨과 社會 兩黨이 合同하여 統一勞動黨이 結成된後 同黨中央委員會書記로 되었다가 同年 「스탈린」主義를 實踐하지 않고 獨自의 社會主義 路線을 堅持하여 「스탈린」政策에 呼應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스탈린」이 追放시키고 말았다. 그 後에도 「고물카」는 「스탈린」의 獨裁形態와 過激한 個人崇拜 思想을 排擊하는 同時에 「스탈린」의 隸屬化 政策에 反旗를 들고 나섰다. 「고물카」는 어디까지나 民族의 自由와 自主性を 尊重하는 土臺 위에서 社會主義를 建設하려는 修正主義路線을 堅持하였다. 「스탈린」은 드디어 「티토」主義者로 認定하여 一九五一年에 「고물카」를 逮捕監禁시켰던 것이다. 「스탈린」死亡後 一九五六年 「스탈린」格下運動이 惹起되었을 때 「파란」에서는 民衆의 自由化에의 渴望이 熾烈해져서 同年 六月에는 民衆의

暴動까지 勃發하여 反「스탈린」運動과 惡烈한 獨裁를 反對하고 나섰다. 이것이 「고물카」가 契機로 反「스탈린」主義者인 「고물카」가 釋放되어 首相職에 復歸하였다. 「고물카」亦是 共產主義者로서 「파란」의 政權을 掌握하고 있으나 「파란」人民이 自由를 渴望하며 「스탈린」式 共產獨裁를 反對하는 情況을 參酌하고 農民의 土地所有權의 認定, 商業의 獨



〈高 爾 卡〉

占排擊, 言論의 自由를 어느 程度 認定하는 卽 民族의 特性에 符合되는 共產主義制度를 實施하고 있는 것이 그의 特徵이다. 「고물카」의 性格은 自立自主性이 強하며 固執이 強한 外柔內剛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蘇聯의 指令에 服從치 않고 自主性을 堅持하는 人物이다.

⑨

노보토니

△ 생애 △

一九〇四年 敎員의 家庭에서 出生하여 一八歲에 共產黨에 秘密黨員으로 入黨하여 共產黨員으로서 地下運動에 參加하였다. 소련에 留學하여 共產大學을 畢하고, 自國에 歸還하여 「나치」獨逸軍의 占領下에서 反「나치」運動 및 共產黨 地下組織에 活躍하다가 一九四一年 逮捕되어 投獄되었다. 一九四五年 獨逸敗亡과 同時에 「체코」가 解放되자 釋放하여 首都인 「프라그」地區黨의 書記로 任命되었다. 一九四六年에는 「체코」共產黨 中央委員으로 昇格되었고, 五一年에는 中央委員記를 거쳐 五三年에는 副首相職位에까지 登用되었다. 이와 同時에 同年 中央委員會 第一書記를 兼하였다. 一九五七年 「샤로트키」大統領이 死亡하자 「노보토니」가 그 後任으로 大統領에 就任하여 中央委員會 第一書記까지

兼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노보토니」는 溫和한 紳士風彩를 지니고 있으며 大學도 數個處를 卒業한 學者이기도 하다. 出世의 要領이 能하여 恒常 沈黙을 固守하며 極端의 人 左派를 反對하는 溫健한 共產主義者이며 實踐的 活動보다 共產主義 理論에 深奧한 體系를 確立하고 있다.

그러므로 反「스탈린」主義者이며 平和 共存策을 主張하고 國內에 있어서도 農民의 集團化運動이 失敗에 몰아가자 集團化運動을 中斷하고 農民의 土地所有權을 認定하여 生産意慾을 북돋아주고 있다. 性格이 學者의 氣質이며, 「체코」人民의 輿論을 參酌하여 溫健한 共產主義制度를 樹立하는 데 努力하고 있다. 그러므로 十年以上에 걸쳐 中央委員會

귀중한 군수물자

내것같이 아껴 쓰자

第一書記라는 最高實權을 掌握하고 있다.

⑩

카다루

△ 생애 △

一九二二年 항가리 中部地方의 農家에서 誕生, 中學, 大學을 거쳐 共產主義思想에 沒頭하였다. 二次大戰時에는 「나치」獨逸을 反對하여 「티트」와 같이 팔치산을 組織하여 遊擊戰을 展開하던 中 獨逸秘密警察에게 捕虜로 붙들려 收容所에 監禁中 蘇聯軍의 進軍으로 因하여 救助되었다. 獨逸이 敗亡되자 共產黨의 中堅幹部로서 「항가리」共產黨州黨書記로 登用되었다. 一九四八年에는 內相을 歷任하고 黨中央委員記로 在職中 「티트」主義者라는 烙印을 받아 「스탈린」의 命에 依하여 投獄當하였다. 一九五六年 「스탈린」格下運動이 展開되자 「카다루」는 名譽를 回復하여 「호루시초프」의 忠實한 本徒로서 소련에 忠誠을

우리의 敵을 알자

다하였다.

一九五六年當時의 中央委員會 第一書記였던 「체케」는 徹底한 「스탈린」主義者였고, 特히 八八% 以上の 카톨릭 教徒들에 對한 宗教의 自由까지 抹殺한 點으로 同年 十月 「부다페스트」의 各大學生을 中心으로 勞動者까지 合勢하여 反蘇 反政府 革命이 勃發되었다. 이 大暴動은 約二個月間 全 「헝가리」



<카 다 루>

를 翫을고 共產主義政權이 顛覆되려는 刹那 蘇聯은 軍隊을 派遣하여 大虐殺과 射殺을 敢行하고 鎮壓하였다. 이때 革命中의 首相인 「나치」는 「헝가리」人民 便에 加擔하여 反蘇鬭爭을 展開하였다. 는 理由로 逮捕拘禁하고 「호루시호프」의 忠僕인 「카다루」를 首相에 登用시켜 蘇聯政策을 忠實히 執行케 하였다. 이

라하여 一九五七年 三月에는 黨中央委員會 議長까지 兼任하였으며 五八年에 首相을 辭任하였으나 一九六一年 또다시 首相에 登用되었고 六二年十一月에는 第一書記에 再選되어 事實上 「헝가리의 魁首」로서 實權을 掌握하고 있다. 이자의 性格은 優柔不斷한 性格이며 屈從과 服從에 忠實한 阿附型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現在도 「호루시호프」의 忠實한 支接者이며 忠僕으로서 「호루시호프」路線의 忠實한 執行者이다.

⑪ 게오루구데지

▲루-마니아▼

一九〇一年 勞動者의 家庭에서 出生하여 中學時節부터 勞動運動에 趣味를 가지고 있었다. 恒常 專制政權에 憎惡 感을 품고 「루-마니아」國內의 各種勞動團體에 加擔하여 勞動者들의 勞動爭 議罷業을 煽動하고 指導하였다는 嫌疑로 數次 投獄된 일도 있다. 一九三〇年

에 「루-마니아」共產黨에 入黨하여 本格的인 共產主義運動에 從事하였고 同 三三年 有名한 「부가레스트」鐵道從業員의 大同盟罷業의 主謀者로서 逮捕當하여 軍事裁判의 判決로서 十二年의 刑을 받았다. 그러나 第二次大戰의 末期인 一九四四年 混亂한 틈을 타서 數十名과 共謀하여 脫獄逃走하였다.



<게오루구데지>

그後 「나치」獨逸軍의 反對 및 그 當

時國內에 樹立된 「코요」政權을 反對하는 地下組織活動의 指導者로서 暗躍하였다. 獨逸軍이 敗亡後 「루-마니아」의 獨立이 이룩되자 「소련」軍의 支接下에 「루-마니아」共產黨書記長을 거쳐 四八年부터 五四年까지 「루-마니아」勞動黨書記長 首相을 歷任하였고, 黨第一書記 國家評議會 議長職으로 現在에 이르

있다.

이 者는 徹底한 共產主義者로서 少年時代부터 繼續, 實踐運動을 通한 共產主義者이다. 十年以上을 共產黨首로 獨裁를 實施해 왔으며 이나라의 七〇%以上을 占하는 農民들에 對한 農業集團化運動도 徹底히 進行시키고 있다.

⑫

지후코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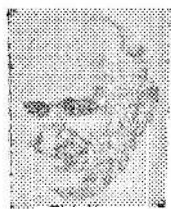
△불가리아△

一九一一年에 出生하여 中學課程을 畢한後 共產主義思想을 信奉하고 二一歲에 共產黨에 入黨하였다. 第二次大戰中에는 「나치」獨逸을 反對하는 케리타戰을 展開하였으며 地下組織을 通한 共產主義 同調分子를 獲得하여 獨逸軍에게 熾烈한 戰鬥을 繼續하였다.

後에 소련으로 건너가서 이곳에서 共產大學을 畢하였다. 一九四五年에는 共產黨中央委員候補로 되었고 一九四八年에는 中央委員會를 거쳐 五〇年度에 中央

委員會書記로 昇進하였다. 「스탈린」의

死亡한 後에 中央委員會 第一書記라는 最高職에까지 登用되었다. 一九五六年 「스탈린」格下運動이 展開되자 當時의 首相인 「케르멘코프」內閣이 「스탈린」派로 因하여 解散되고 其後 「유코프」首相亦是 宗派主義, 個人崇拜思想의 嫌疑로 追放된 後 一九六二年 「지후코푸」가 首相으로 任命되었다. 「지후코푸」는 호



<지후코푸>

루시코프의 忠實한 支持者로서 反스탈린「主義者」로 알려져 있다. 性格은 優柔不斷하며, 恒常 動搖하는 性格의 所有者이며, 蘇中 共論爭에 있어서 中共을 非難한 것 楚臺로 되어 있다. 「유고」와도 和解를 強調하며, 中共과 「남나리아」에 對하여는 「호루시코프」의 意見에 追從하고 있다.

⑬

엘파리히

△東獨△

一八九三年 工場技師의 子息으로 出生하였다. 一九一〇年 一八歲부터 勞動組合運動에 關係하였고, 青年指導者로서 登場되었다. 一九二二年에 社會民主黨員이 되어 一九一八年의 「日共和革命」에 參加한 後 一九九년에는 共產黨員이 되었다. 共產黨員으로서 自由獨逸의 國會議員까지 選出되어 活動하다가 「나치」政權이 樹立되어 「릿블러」秘密警察의 手配人物이 되자 蘇聯 「모스크바」에 亡命하여 數年間 共產大學에서 共產主義理論의 練磨를 爲하여 努力하였다. 第二次大戰後에 歸國하여 蘇聯의 支援下에 共產黨 再建工作을 展開, 社民黨, 共產黨 合同으로서 獨逸 統一社會黨을 組織하고 書記長이 되었다.

一九五四年 黨 第一書記, 一九六〇年에 元首에 相當하는 新設의 國家評議會議長에 就任하여 現在까지 名實共히 東

우리의 敵을 알자

獨의魁首로 登場되고 있다. 性格이 剛直하며, 固執이 強하여 人民의 抑壓搾取에 있어서 東歐共產國中에서 가장 殘忍한 評을 받고 있는 者이다. 自己 周圍

에 自派의 人物로서만 要職에 登用하여 獨裁力을 強化하고 있다. 西獨과 對峙되어 있는 關係로 人民들에 對한 懷柔



<울부리히-트>

撫摩政治를 實踐하려고 努力은 하고 있으나 本性이 殘忍한 獨裁의 性格이기 때문에 人民들의 非難이 深하여 西獨으로 逃避하는 者가 많다.

「호루시초프」의 支持者이나, 「스탈린」風의 氣質이 있어 「호루시초프」의 忠告와 揀言을 많이 듣기도 한다.

14

엔벨호자

「알바니아」

一九〇八年 「알바니아」北都地方에서 出生하여 그곳에서 中等教育을 받고 一九三〇年度에 佛蘭西 巴里大學에서 留學하였으며, 同時에 軍官學校까지 修業하였다. 一九三六年에 歸國後 伊太利의 隸屬化에 反對하여 빨치산을 組織하여 遊擊戰을 數年間 繼續하였다.

第二次大戰後 伊太利의 降伏後에 一時 獨逸軍에게 占領된 때에도 빨치산 活動을 展開하였다. 一九四四年 解放이 되자 「샬쇼」評議會를 組織하였으며 그後 이것이 臨時政府樹立의 土臺로 되었다. 一九四四年十一月 「호자」를 首班으로 하는 左翼政權이 樹立되었고 同年十二月初에 總選舉가 實施된 後 民主戰線이 大勝하여 一九四六年一月 「알바니아」人民共和國이 樹立, 「호자」가 亦是 首相으로 되었다. 그후 지금까지 勤

勞黨書記長으로 實權을 掌握하고 있는 獨裁者이다. 이 者는 徹底한 「스탈린」主義者로서 特히 陸軍大將으로서 「샬스」主義의 固陋한 教條主義者이며, 徹底한 獨裁者로서 有名하다. 人口 一〇〇萬餘의 小國을 一五年以上이나 殘虐한 獨裁로서 維持하고 있으며, 「스탈린」格下 運動에 反旗를 들고 「호루시초프」에 反抗하였고 特히 一九六一年十月 蘇聯共產黨 二次大會時에는 「호루시초프」의 公然한 非難을 받은 後에는 蘇聯共產黨과 對立이 激化되기 始作하였다. 그後 中共側에 加擔하여 蘇聯과 「유고」를 辛辣히 誹謗하는 路線으로 나갔다. 結局은 蘇聯과의 國交斷切까지 恣行하면서 「스탈린」支持를 固守하고 있는 執拗한 教條主義者이며 橫暴하고 頑固한 精神의 所有者이며 融通性이 없는 獨裁者이다.

다정한 말 한마디

굳어지는 전우애



⑥

李 克 燦
△延大教授▽

民主主義와 多數決原理

一、多數決原理의 意義

인간의 집단이 하나의 統一體로서 행동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집단 그 자체가 統一的인 單一的의 意思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統一的인 單一的의 意思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그 집단이 專制的인 단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적인 단체인가에 따라서 스스로 달라질 것이다. 이를테면 國家權力이 오직 君主 한 사람의 수중에 집중되어 「朕은 즉 국가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近代 初期의 절대군주제도하에서는 그 君主

의 개인적 의사를 가지고 곧 국가의 의사로 간주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團體成員들의 의사에는 전혀 아랑곳 없이 오직 「위로부터 아래로」의 下降的인 방법으로 단체의 統一的 意思가 형성되는 이른바 「支配者原理」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하에 있어서는 국가의 意思를 비롯하여 일체의 단체의 意思는 그 단체를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사람들의 多數意思로써 형성되어야 하며 그 意思를 곧 그 단체의 의사로 보는 것이 가장 옳바른 것으로 생각되게 되었다. 이것은 團體成員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오직 「아래로부터 위로」의 上昇的인 方法으로 단체의 統一的 意思가 형성되는 이른바 「多數決原理」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요컨대 多數決이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多數의 의사를 가지고 團體成員의 전부를 구속하는 意思 즉 그 단체의 意思로서 인정한다는 하나의 團體意思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원래 個性의 존중을 근본정신으로 삼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제 자기 훌륭한 意見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하에서는 적어도 사회의 安寧과 질서를 해치는 결과물 사실상 초래하지 않는 限 各자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바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얼굴이 자자 다른 모양으로 그 견해도 역시 자자 다를 수 있음

으로 여러가지 見解의 대립과 利害의 충돌이 생기기가 쉽다. 그러므로 統一的인 單一의 意思를 만들어 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성가시고 非能率的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바로 이와같은 곤란을 통과하여 비로소 各者의 自主性은 가장 잘 발휘되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過程이야말로 民主主義를 지탱해 나가기 위한 불가결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내저 團體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個別的 意思」로 부터 하나의 통일적인 「全體의 意思」를 만들어 낼 경우에 그때마다 全員一致가 된다면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각각 판이한 意見을 갖고 집요하게 각자의 판단을 고집하여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좀처럼 結論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民主主義는 多數決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成員 모두가 충분히 의론을 교환한 후에 최후의 결정은 多數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다.

그러나 多數의 意思는 언제나 정당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우수한 소수자의 意見이 도리어 어리석은 多數者의 의견 보다도 정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상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릇

된 意見이 多數者에 의해서 지지되는 反面에 올바른 의견이 少數라고 하여 도리어 배척되는 일이 있다면 民主政治는 이른바 衆愚政治에로 떨어지게 될 것이 아닐까. 功利主義者들은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을 목적으로 하여 多數決原理를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最大多數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相對的 多數에 지나지 않으며 또 한 絕對多數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全體와 같을 수도 없다. 적어도 「多數」라고 하는 이상 그것은 概念上 당연히 「少數」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날로부터 우수한 소수자에 의한 支配, 그 극단적인 형태로서 이른바 「哲人政治」라는 것이 가끔 생각되어왔다. 이를테면 나치·獨逸의 總統에 의한 지배를 합리화하는 이른바 「指導者原理」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哲人이라고 생각되는 독재자는 일반대중 보다는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意思에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간주되어 졌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각이 얼마나 不合理한 것인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곧 이해할 수가 있다. 도대체 그가 온 국민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어진 人物이라는 것을 그 누가 決定할 수 있을까. 또한 가령 그와 같이 훌륭한 人物이 발견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오랫동안 「권력의 맛」에 도취되기 쉬운 政權의 王座에 앉아 타락하는 일

이 없으니라 하는 것을 과연 그 누가 보장할 수가 있을까. 적어도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대답되지 않는 限된 주위의 하에서는 역시多數決에 의하는 수 밖에 없다.

단지多數決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多數의 의견이 絶對적으로 옳다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결국 相對的인 「量」에 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質」로서의眞理性과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현재의 단계라는 條件下에서는 어떤 결론에 同意하는 자가 「比較的」 많다는 것 뿐이다. 만일 이 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多數는 언제나 정당하다고 고집하는 「多數의 羣포」로 떨어져 오직 數만을 믿는 「衆愚의 지배」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多數決로서 도달하게 된 어떤 結論의眞理性이 비록相對的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한 「數」로서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少數者의 의견의眞理性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立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結論이少數者 즉 반대자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限——장차多數者가 되리라는 굳은 決意를 가진 채로——多數者의 意見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해보면多數決의 본질은 결코 단순한 「數

의 지배」도 또한 「힘의 지배」도 아니며 討論을 통한 「理性의 지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多數決은 개개인의 잡다한 意見이 相互間的 討論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具體的인 방책 속에 調整되어 가는 원리이다. 이런 경우에多數派의 존재는 언제나 소수와의 존재를 前提로 해서 비로소 존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多數派의 권리는 소수와의 권리를 前提로 함으로써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多數決原理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

二、多數決原理의 條件

그러면 이와같은多數決原理가 원활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條件이 갖추어 져야 할까.

첫째는 그 社會에 個人的 自由가 존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多數決이 유효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統一的 意思의 결정에 참가하는 각 개인들이 自主的으로 문제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그것에 참여하려는 굳은 의지와 意見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요컨대 각자가 良心의 自由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만일集團의 統一的 意思決定에 참가하는 자가 他律的인 장요에 의해 公認를 느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곳에서 이룩되는多數決은 결국 위선적인多數決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多數決에 이르러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討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個人的 自由가 요청된다. 이것이야말로多數決原理,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생명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민주정치는 「數의 政治」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유권자의 票을 하나라도 더 많이 얻은 자가 國會議員으로도 되며 대통령으로도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自由를 여지 없이 유린하는 이른바 公포분위기 속에서多數票을 얻었다면 그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와같은多數는 어디까지나 이치에 맞아야 한다. 이치에 맞지않는 방법으로 얻어진多數는 비록 數字的으로는多數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虛偽的인多數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정치는 「數의 政治」인 동시에 「理의 政治」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둘째는 討議에 참가하는 자를 모두 價値追求의 同質者로 인정해야 하며 또한 政治的 平等인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討議에 참가하는 者들이 지식이 부족하다면가 社會的身分이 낮다면가 하여 그의 發言을 무시하려든다면가 또는 만일多數決에 참가할 수 있는 者들이 財產資格과 性別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면多數決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셋째는 올바른 共同體 意識을 갖고少數者에게 반대할 권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장차多數者로 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일이다.

多數決原理는 무엇보다도 그 결정에 참가하는 자들이 올바른 共同體 意識을 가질 때 비로소 원활하게 그 기능이 발휘된다고 볼 수가 있다. 오직 자기와 자기派의 利害關係만을 생각해 보면 조금도 양보와 타협할 생각은 없게 된다. 만일 이와같은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意見의 最大公約數는 절대로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자기의 利害關係로 보면 자기의 의사를 조금도 굽힐 생각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속하고 있는 祖國과 단체의 안정을 파괴할 수 없다는 大義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多數決은 불가능하게 될 것은 뻔하다.

자신 個人的 및 사회적 分化와 대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共同體的 基礎 위에서 分化와 대립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個別과 分化 對立의 側

而만을 중시하고 전연 一體的인 공동생활의 側面을 망각한다면 無政府的 狀態에로 떨어질 것이며 또한 이것과는 반대로 사회속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허다한 分化와 대립을 전연 무시하고 一體的인 意思를, 권력을 가지고 통합하여 이를 成員들에게 강요하게 된다면 專制的 狀態에로 떨어질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多數決에 있어서의 「多數者」란 그 概念上 당연히 「少數者」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정한 수를 가지고 그것이 多數다 少數다 라고 할 수 없으려면 이미 그 前에 「全體」가 前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全體라는 것이 前提되지 않고서는 多數 少數의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실은, 一體性의 존재를 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多數도 少數도 없지만 그와 동시에 오직 一體性만이 있고 分化와 대립이 없는 곳에서도 역시 多數와 少數가 나누어진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多數決原理는 一體的인 공동생활과 成員들이 多數 少數로 分化 對立되는 것을 同時的으로 前提로 하여 비로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의견과 利害關係는 결코 不變的인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즉 어느 때에는 不當하다고 생각된 의견도 그 후에는 도리

어 正當하다고 보이지 않게 된다. 더구나 또는 그 정반대의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경험하는 바이다. 따라서 어느 一時期에 있어서의 多數의 意思를 실체불변의 것으로서 볼 수는 없게 된다. 바로 이와같은 마음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多數決原理는 圓滑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실 一體의인 統一된 의사의 성립을 예상하여 多數者와 少數者가 서로 비판하며 설득하는 과정 속에는 이 兩者는 感化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그 결과로서 생기지는 意思라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多數者의 意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 다소간 少數者의 意思가 多數者의 意思에 대하여 感化를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자면 多數者와 少數者의 共同作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켄젠」교수는 「多數決原理」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多數 少數者原理」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다.

바로 이와같은 원칙이 정치적으로 具體화된 것이 政權交替의 자유이다. 自由民主主義 國家에서는 인민의 多數의 支持를 받은 多數派는 정부를 조직하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명백한 약속 위에 서는 것이다. 즉 少數派는 多數派의 통치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그 대신 政府를 조직한 多數派는 결코 少數派를 함부로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째요 少數派는 現政府에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一定한 시기 후에 국민 다수의 支持를 얻게 되면 곧 평화적으로 政府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둘째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自由는 그 나라에 두개 이상의 政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自由로운 국가에는 반드시 두개 이상의 政黨이 존재한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잘 운용되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與黨이 野黨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사리 알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끝으로 多數決은 원래가 具體的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되는 限에 있어서 그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多數決原理는 실천의 장면에서 意義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科學的인 인식의 장면에는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根本的인 理念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意見의 대립은 多數決로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一體的인 통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불필요한 문제이다. 이를테면 전대적인 眞·善·美와 같은 것은 그 자체로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며 인간의 意思를 통합시

킴으로써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개인의 信念이란 支持者의 수의 多寡에 따라서 쉽사리 동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자이 信念의 차이를 數的으로 통일할 수는 없게 된다. 단지 그것을 단순한 相互間的인 감정적인 대립으로 끝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信念으로서는 일단 그 존재를 인정한다는 이른바 寬容의 정신이 필요하게 될 뿐이다. 이것은 결국 個性을 근본적으로 존중시키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올바르게 터득하고서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목적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수단을 생각해야 할 경우에는 多數決은 그 본래의 효과를 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三. 맺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多數決原理의 조건으로서 네가지를 지적했다. 만일 이와같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허락된다면 아무리 형식상으로는 多數決처럼 보인다 할 지라도 그것은 多數決原理의 가치를 부정하여 少數獨裁를 민주주의로 가장하는 독재주의의 도구로 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폴레옹一世는 그가終身統領에 취임하기 위한 人民投票(一八〇二年)에서는 三、五六八、八八五票對 八、三六五票, 그리고 皇帝即位의 人民投票에서는(一八〇四年) 三、五七四、八九八票對 二、五六九票라는 절대다수의 人民의 支持票을 얻어서 각각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었다. 人民의 절대다수를 얻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이야말로 모범적인 民主主義者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歷史家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그렇게 부르는 이는 없고 도리어 그를 전형적인 전제자로 낙인을 찍고 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유는 뻔하다. 그것은 무시 무시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단행된 反民主的인 「投票의 詐欺」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人民投票라는 이름을 빌려서 既成事實을 승인하는데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多數決에 있어서의 「多數」는——앞서 말한 것처럼——어떠한 不正의 手段과 방법으로써 얻어져도 무방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와같은 「多數」는 어디까지나 이치에 맞아야 한다. 즉 그와같은 「多數」는 이상에서 실명함과 같은 條件下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多數決原理는 多數派와 少數派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討議와 타협을 통해서 보다 더 高次的인 결론에 도달할 것을 이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생각해 볼 때 多數決原理는 「힘이 正義가 아니라 도리어 「正義야 말로 힘」이라는 사실이 널리 확신되고 있는 정신허 분위기 속에서 비로소 그 본래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西歐의 復興

西歐의 復興은 놀랄만한 가치가 있다. NATO 결정 一五년이 되어가는 최근의 西歐는 그 人口나 生産力이 소련을 능가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의 원조가 그 근본적 기틀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즉 西歐가 이제 는 단독으로도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자신을 가졌다는 증거이다. 「프랑스」의 「드·골」天統領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지려는 고집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알제리아 등 많은 國費와 軍隊를 소모해 오던 「프랑스」는 이러한 海外에서 손을 떼고 財政的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은 餘力을 가지게 됨으로써 獨自性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西歐의 復興을 의미하고 있다.

△ 뉴스·위클리에서 V

共產主義 批判

⑥

金 昌 順

〈評 論 家〉

資本主義의 論爭과 修正主義의 意味

二차대전후의 자본주의의 세계구조(世界構造)에 대한 「스타린」의 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세계정책이 크게 잘못을 범했다는 비판이 一九五六年 二月 제 二十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전개된 사실을 前回 강좌에서 지적하였다.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로 불리우는 「맑스」주의의 또 하나의 원칙에 의하면, 혁명하는 자본주의적 사회제도라는 것은 사회진화(社會進化)의 필연적인 하나의 단계이며 사회주의의 전단계(前段階)라 하여

그 일정한 진화사적의의(進化史的意義)와 임무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그 내재적 모순(內在的矛盾)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에의하면 자본주의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언젠가는 사멸하기 마련인 것으로 가정(假定)되어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자연사(自然死)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위적(人爲的)으로 촉진(促成)하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그 어느 시점(時點)에 있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가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맑스」주의의 위기대망론(危機待望論), 공황대망론(恐慌待望論)으로 불리워지는, 소위 궁핍화이론(窮乏化理論)에 의하면, 경제적 위기(危機)와 공황이 없으면 사회주의 혁명은 실현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 자본주의 체계(體系)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 어느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황(恐慌)이 일어나면,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나라에 파급(波及)되어, 세계체계의 공황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이때가 바로 세계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스타린」은 二차대전후의 세계정세를 전망(展望)함에 있어, 앞으로 十년 이내에 자본주의 체계의 세계구조에 경제공황과 위기가 도래(到來)한다고 보았고, 바로 이 시기를 택하여 세계

혁명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준비를 정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다산은 들어맞지가 않았다. 자본주의 세계는 그러한 공황과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타린」의 오산(誤算)은 그의 신배인 「페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一九二五년 소련공산당 대표자대회에서 「스타린」은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인정(認定)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는 오랫동안 양립(兩立)할 수가 없다. 결국 어느 하나로 되어지고 만다는 원칙은 불변의 철칙(不變鐵則)이다. 다만 문제는 「오랫동안」, 「결국」의 기간(期間)인 것이다. 「오랫동안」이라 함은 얼마 동안의 시간을 말함이며, 또 「결국」이라 함은 어느 시점(時點)을 의미하는 것인가. 혁명 당초(一九一七년十一月六일) 「러시아」혁명을 말하는 것임) 우리는 一년아니면 二년, 혹은 수개월 동안에 승패가 날출로 알았다. 그러나 그후의 정세의 추이(推移)는 의외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양립(兩立)이 오랫동안 영속(永續)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기간(期間)의 계산을 잘못하였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원칙에는 하등의 변경을 요치안는다.』

「스타린」의 이 연설은 「페닌」시대의 반성인 것이다.

「스타린」은 그 연설을 통하여 세계정세를 분석하기를 「천하의 세계에는 다섯개의 상반(相反)하는 세력이 있다. ①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부루조아」와 「프로레타리아」 ② 자본주의 열강(列強)의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에 있어서의 독립운동 ③ 세계전쟁후의 전승국과 전패국 ④ 전승국간의 불화와 갈등 ⑤ 「소베트」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 다섯개의 상반하는 세력은 나날이 더욱 격렬한 상쟁(相爭)을 하고 있는 바 이것들 가운데 ①에서 ④까지는 자본주의 국가 상호간의 투쟁, 혹은 자본주의 국가안의 내홍(內訌)인 것으로서, 그들은 이 국가간의 투쟁과 국가안의 내홍과, 아울러 「소베트」국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은 심내한 것이 있지만, 「소베트」국가는 그 내부에 하등의 항쟁도 없이, 전력을 기울여 자본주의 국가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것은 一九二五년 당시 자본주의 세계가 안정기(安定期)에 들어섰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운동」을 무위(無爲)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이론가들과 지도자들간에 「스타린」의 강경노선(強硬路線)을 불신(不信)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므로 이들을 경고(警告)하고,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이 연

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급속히 멸망하리라고 타산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점을 고백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가 이 대회를 통하여 앞으로의 소련의 대외정책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공존노선에 있다고 천명한 것과, 그 이유로서는 자본주의가 상대적(相對的) 안정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세력이 포화 상태(飽和狀態)에 있으므로, 어느 쪽이 어느 쪽을 공격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가 쉽사리 멸망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말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스타린」의 무리한 논리(論理)는 그 정체(正體)를 잡추지 못하였다. 즉 一九二五년의 국제세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백중(伯仲)하다고 한 것은 공정한 지지가 아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소련은 「레닌」이 사망한 직후이며, 권력의 계승권 문제를 가지고 당내(黨內)가 몹시 혼란했으며, 생산력도 문제가 아니었다. 소련을 지원해야 할 구라파와 그 밖의 공산주의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곤란한 시기에 부딪치고 있었다. 무엇을 가지고 세계 자본주의 세력과 백중하다고 할 것인가. 그렇지만 「스타린」은, 앞에서 지적한 ①에서 ⑤까지의 상반하는 세력의 설명에 의하여 논리(論理)의 타당성(妥當性)을 「카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스타린」은 자본주의를 내다보는데 있어서 중대 그 단견과 편견을 수정(修正)도, 청산도 하지 못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안정기가 빨리 지나가 버리고, 불원 세계혁명의 조건의 농숙(濃熟)되리라 믿어왔지만 그의 생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후계자인 「호루시초프」에 이르러서는 一九六一年十月 제二二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진강령을 설명하기를, 앞으로 二十年后이면 자본주의 국가의 생산력을 능가할 수 있게 되리라고 전망하였으니, 자본주의는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줄 모르는 물진이 되고 말았다.

「호루시초프」가 「스타린」주의를 청산하여 나선 까닭이 무엇인가. 「스타린」의 자본주의관(資本主義觀)을 가지고서는 세계정세에 대처해 나갈 수가 없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의 자본주의에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남은 자본주의관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호루시초프」의 수정주의(修正主義)는 그가 즐겨 택한 것이 아니라 의부로부터 강요당한 것이다. 출중(出衆)한 사회주의 이론가들로 그 이름이 높았던 「베른슈타인」의 수정「맑스」주의, 「핀바딩」의 조직된 자본주의론, 「카우프키」의 초(超)계급주의론 등은 이미 오래전에 자본주의의 영속성(永續性)을 이론상으로 주장하였다. 아직도 자본주의의 발전이 미약했던 산업자본주의(産業資本主義)

단계의 자본주의를 다루던 「맑스」와, 그후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달된 선진 공업사회를 다루야 하는 사회주의 이론가들의 안목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옳다. 현실이 같지가 않으며, 사람의 의식(意識)이 같지가 않다. 낡은 시대의 성격에서 빚어진 「법칙」이란 것이 새 시대에 있어서도 「불변의 천칙」일 수가 없다는 것은 벌써 상식 문제이다.

이 점은 사회주의 국가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스타린」시대의 자상의 규율(規律)과 생활의 질서가 백대를 두고 불변의 천칙일 수는 없다. 오늘날의 소련 사람은 「스타린」과 시대를 같이한 사람들이 아니며, 따라서 「스타린」시대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최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겠다. 여기에 어떤 진화(進化)가 없이는 「소베트」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문제가 나온다. 「호른시츠포프」가 「스타린」을 수정(修正)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구실이 긍정성(肯定性)을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호른시츠포프」의 병화공존론 부더가 우선 그러하다. 자본주의 세력의 현실적 압력은,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비록 그것이 공산주의 「원칙」의 이단(異端)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겠음 강요할 수가 있다.

修正主義의 새로운 形態

一九五六年 二월의 제二十차 소련공산당대회는 그들의 종래의 자본주의관에 반성과 수정을 추구하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때로부터 공산주의의 고위 지도자들은 자본주의의 장점은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게 되었다. 저요기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는 그래야만 한다고 「호른시츠포프」 자신이 권장(勸獎)하게 되었다. 여기에 내포된 의도는 「자본주의가 인제면 사멸하느냐」의 시간적 측정(測定)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그렇게 쉽사리 사멸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회주의의 현실적 보강(補強)을 자본주의의 장점에 구하자라는 것이다. 적어도 그들의 태도는 백년전의 자본주의와 오늘의 자본주의를 동일시(同一視)하는 우매(愚昧)를 범하지 않겠다는 기도(企圖)에 있어서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키에프」의 기술경제대학 교수 「니—베르만」박사는 「계획, 관리, 잉여가치」라는 논문을 통하여 소련공업의 생산성 침체(沈滯)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방법을 전용(轉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一

九六二년 九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푸라우다」에 전문이 게재되었다. 이 사실은 소련공산당의 자본주의관이 현재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현 지도관부들의 지지없이 이 논문이 「푸라우다」에 게재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니-베르만」논문은 말하기를 「어느 기업체가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의 척도(尺度)는 그 기업체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못벌었는가에 있다., 소련 기업의 생산성 침체를 타개하는 데는 그 기업체에 대하여 경제외적(經濟外的)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 기업의 생산계획은 그 기업의 주체적 조건에 의거하여 기업체 자신이 수립하고 그것의 수행에 있어서도 기업체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또 포상(褒賞)에 있어서는 종래의 칭호제(稱號制)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상금을 주어야 한다.」

대략 이상의 요지(要旨)로 되어 있다. 이 논문이 공개되자 소련의 경제학계에서는 이것이 「폭탄선언」이라고 떠들석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경제학에서 본다면 이것은 폭탄선언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의 공장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척도로,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에, 돈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에 있어서는 차라리 A, B, C 이전의 이야기일 것이다. 또 기업체

에 대하여 경제외적(經濟外的)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제도에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 포상제(褒賞制)에 있어서도 「영웅」이니, 「천리마」니 하는 명예칭호 보다는 상금을 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물질적 자극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용되고 있는 전통적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소련 같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채용하자니까, 허기는 「폭탄선언」이란 말도 들게 될 판이다.

「니-베르만」논문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이것은 「자본주의가 사멸(死滅)한다. 아니 그렇게 쉽사리 사멸하지 않는다」의 논쟁이 아니라, 현실, 소련공업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성침체를 타개하는데 자본주의적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있으니만치, 이것은 종래의 자본주의관의 논쟁에서 본다면 대단히 미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수정주의(修正主義)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레-닌」정권은 혁명당조선시공산주의정책(戰時共產主義政策)을 취했지만, 그로 인하여 소련산업이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자, 소위 「네프」정책(新經濟政策)의 이름아래, 토지, 교육, 기타의 사유재산을 인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제도를 부활(復活)시키는 동시에 자본주의 열강(列強)과의 화(和)를 맺어, 국제무역을

부활시킨일이 있다. 이것을 말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전략적 후퇴(戰略的後退)였다고 말한다. 만일 이와같은 제빠른 전략적 퇴각이 아니었다면 소련의 경제조직은 그 후에 맑스주의의 원칙으로 부흥(復興)할 수가 없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한때의 휴식은 과연 생활의 필요한 측면(侧面)인 것이다. 더구나 「맑스」주의의 원칙인 「공산주의는 산업조직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를 역행(逆行)한 「러시아」사회주의 혁명의 직후에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채용했는지라, 비록 그것이 당시로서는 부득이한 처사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끌고 갈 수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네프」정책의 이름아래, 자본주의 제도에로의 일시적 퇴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만도 넉넉히 남들이 가는 일이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 근 반세기가 지나간 오늘에 있어, 소련의 공업관리(工業管理)에 자본주의적 방식을 전용(轉用)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次元)에서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적어도 두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즉 그 하나는 자본주의가 역사의 진화사적 의의(進化史的意義)와 임무를 아직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그의 둘째는 자본주의의 자기체제(自己體系)의 내재적 모순(內在的矛盾)을 능

히 탈피하고, 소위 사회주의로 하여금 할바를 없게끔 새로운 진화의 「코스」를 밝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종전의 노선(路線)에 재삼 수정(修正)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한 것이라 본다.

中共內의 右派人物

香港의 증공 난민들은 최근 中共의 뉴스 필립을入手할 수가 있었다 하며 右派의 중요 인물인 章萬基들이 필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뉴스 필립에 의하면 章氏는 많은 노동자 학생등 左派分子의 격렬한 비난을 받으면서 도 와이푸를 물고 태연한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右派人物로서 「光明日報」編輯局長 信者安平、農工民主黨主席 章伯鈞氏등도 同 필립속에 나타났다고 하며 이들은 中共政權의 壓力下에서 오늘날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지켜온 反共派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外誌에서▽



소聯을 推理한다

신 일 찬

소聯의 情報에 대해서는 여러 專門 家들이 各自 다음대로 떠들고 있다.

即 소聯에 관해서는 專門家나 오랜 동안 「모스크」에 있는 사람이나 確實하게 이러한 일 以外에는 모른다. 그 次 「推理」할 뿐이다. 더구나 記者와 같이 旅行者가 暫間 「모스크」에 滞在했다고 해서 소聯의 實情을 알 道理는 없지만 얼마만의 見聞을 材料로 해서 敢히 하나의 「推理」를 試圖해 보려 한다.

中國人 붓적 좋다

記者가 「모스크」에서 發見한 것의 하나는 中國에 대한 소聯인의 一적어도 知識인의 一感情이 意外로 나쁘지 않다. 나쁘고 느껴지는 點이다. 이 雜

多한 人種이 모인 「모스크」에서 記者는 中國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機會가 結局 없었다. 勿論 中國人은 外交官 以下 郊外의 「모스크」大學 近處에서 集團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聯 技術者의 中國撤收와 때를 같이하여 中國人 子弟는 本國으로 送還되어 여기에 사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中國人은 붓적 좋았다 한다. 以前에 많았던 中國製 衣類도 店舖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고오리키이」公園의 散步길에는 前에 中國社會主義建設의 寫眞이나 圖表가 常設展示場에 揭示되어 있었다고 하나 이것도 全部 메어져 지금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販賣되는 「치이스」의 하나로 「友好」라는 이름의 것이 있다

는 데 이는 當初 「中國과의 友好」라는 이름의 것이었으나 어느새 「中國과의」라는 文字가 商標에서 빠져 버렸다고 한다.

中國人에게 好意的이 아닌 所聞도 퍼지고 있는 것 같다. 例를 들면 「中國이 「스푸트니크」를 쏘 올렸다 한다. 높은 나무까지 사이에 다 끼어七十萬名이 「고무」줄로 잡아 당겨서 새 총 쏘듯 發射했다」고 엉터리 所聞이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國民感情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다.

好轉된 住宅 食糧

「우리들의 生活은 顯著하게 좋아지고 있다. 勿論 外國을 알고 있는 知識人은 現在의 生活에 대해서 아직도 批判적이다. 그러나 大衆으로서는 以前에는 一室 十名꼴이었던 것이 三名 前로 된 住宅 事情의 改善이 大端한 進歩이고 빵이나 牛乳, 또는 커머를 얻게 된 것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도 滿足하게 여긴다. 우리는 이런 生活水準의 進歩를 놓치지 싫다. 戰爭도 싫다. 그러나 中國은 戰爭해서 잃을만한 것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戰爭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소聯人은 美國이 소聯과 戰爭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美國側이 戰爭에 의해서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똑같은 生覺이 소中共間の 見解 差異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如何든 우리는 「스타린」時代에의 逆行에는 反對한다」고.

女性的 服裝도 多彩로워

記者와의 對談에서 「이즈베스키아」紙 編輯長인 「아주베이」도 역시 로이론 建設을 戰爭에 의해서 破壞하는 것은 싫다고 했지만, 아마도 이는 소聯人의 共通的인 思考일 것이다. 勿論 黨指導者는 平和를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犧牲할 수는 없다고 한다. 平和면 아무래도 좋다, 라고 하는 것은

敗北主義的인 「非戰論」이나 힘에 의해서 戰爭을 沮止하려는 「反戰論」은 批判을 사지 않는다. 아무 쪽으로나 戰爭은 避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다.

食糧이나 住宅 事情 뿐만 아니고 「모스코」市民의 服裝도 지난 一、二年 사이에 좋아졌다고 한다. 그렇지만 西歐를 돌고 온 記者의 눈에는 그럴 程度까지 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모스코」의 生活水準은 아직도 格別하게 낮아 보였다. 그러나 「모스코」만 보고 생각되는 것은 이 나라가 이제서야 비로소 大衆消費社會로 突入하려 하는 것 같다. 그리고 消費社會에서는 누구나가 生活水準의 低下를 招來하는 戰爭을 極力 避하려고 하는 법이다. 소中共對立의 根本的인 것에 戰爭에 관한 認識의 問題가 있는以上 이 對立은 深刻한 것으로 생각된다.

소·中共 和解는 어려운가

國際的 立場에서 소 中共의 對立을 說明하는 것은 簡單하나 以上과 같은

여러가지는 潛在的인 原因으로 생각된다. 이런 見地에서 東歐 社會主義諸國의 自由化의 傾向—波蘭은 이미 獨自的인 社會主義를 實行하고 있으며 항가리도 그 뒤를 쫓고 있다—을 본때, 소 中共의 和解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波蘭은 이미 中共이 猛烈하게 攻擊하는 「티토」主義에 接近하고 있다. 그리고 소聯 自身도 소聯의 現實的인 條件에 맞는 共產主義의 길을 더듬어 가고 있다. 中共은 「스타린」時代의 「암스—레닌」主義의 純粹性을 지키라고 主張하나 소聯이 「社會主義의 祖國 소聯」이라고 各國의 共產黨에게 내걸은 바는 「이데올로기」의 面을 利用해서 소聯의 國家的 利益을 지켰다고 볼 수 없는가. 社會主義的 國家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보다 國家的 利益이 先行한다는 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革命에 있어서도 佛蘭西 革命도 그랬었지만 한번 열렬 情熱과

理想이 언제까지나 持續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情熱은 理性으로 理想은 現實 앞에 屈服할 것이다. 소聯에서도 革命的 「이데올로기」 보다 어떻게서라도 建設을 進展시킬 것인가의 現實의인 問題가 보다 重要視되고 있지 않은가. 勿論 소聯은 革命的인 根據地로서 「이데올로기」의 불질을 죽일 수는 없다. 이것은 소聯의 世界 政策과 聯關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스코」에 와서 본 것은 于先 建設이고 生活水準의 向上이다. 소聯의 어린이의 理想이 技術者가 되는 것이고 「모스코」國立大學의 法文經系的 校舍가 「크레믈린」近處의 낡은 것에 反하여 理工系的 校舍가 「레닌」언덕 위에 웃듯 솟은 堂堂한 建物인 것은 象徴적이다.

指導者는 實務者 中에서

이것은 共產黨 上層부의 앞으로의 人的 構成과 無關한 것이 아니다. 黨 中 堅部에서는 行政、經濟等의 實務

者、專門家の 勢力이 變치고 있고、今後 이들의 勢力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點으로 보아 將來의 指導者는 單的인 理論家가 아니고 勿論 理論도 重要하지만 同時に 實務者인 中에서 나올 것이라고 豫測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이데올로기」 하나만 가지고 黨上層部の 椅子에 앉은 時代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嚴格한 「이데올로기」를 固執하는 中共과 소聯의 間隔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勿論 中共이 「이데올로기」에 重點을 두는 것은 亦是 中共의 國家的 利益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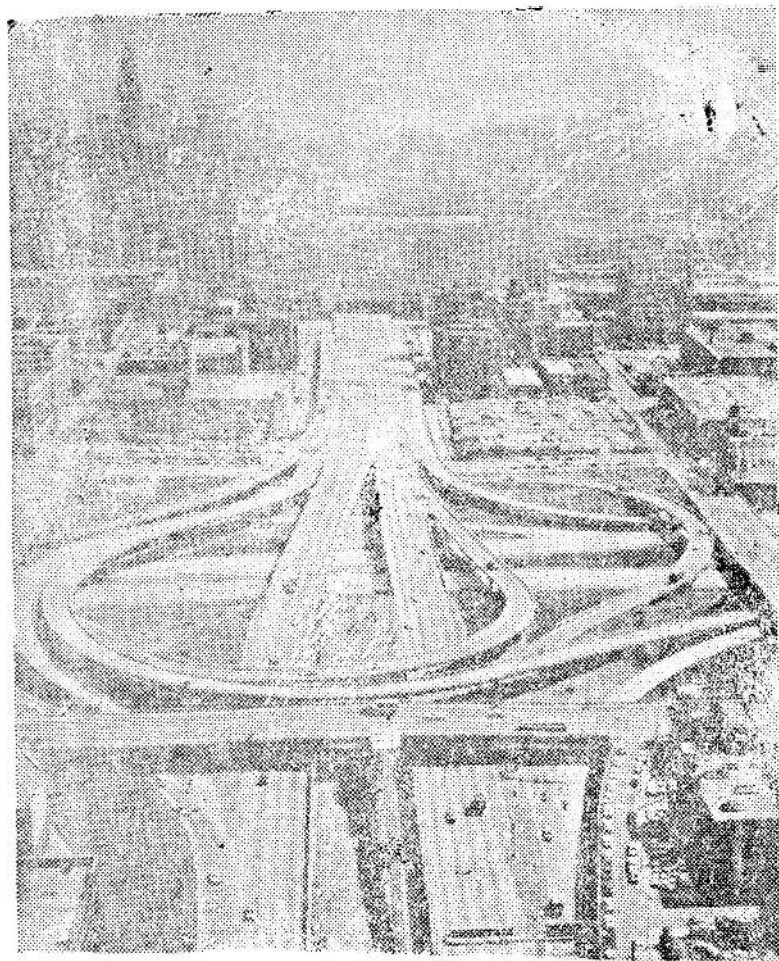
以上과 같은 여러 點에서 소中共의 思考方式의 差異는 크며, 소聯은 이제 와서 中共에 讓步하여 「이데올로기」를 現實보다 앞세우지 못할 客觀的인 事情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닌가 더구나 이렇게 한다고 假定한다면 소聯은 東歐 또는 西歐의 共產黨 間에

에서 쌓아 올린 信用과 地位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現象으로는 소聯의 政策이 硬化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結局 本質의으로는 變化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 中共의 對立은 決定的인 것이다.

소·中共會談의 演劇

그래서 記者의 推理는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한다. 지금까지의 兩國間의 書簡往復이나 會談은 決裂을 避하기 위해서 보다는 오히려 事實上에 나타난 龜裂을 때우고 表面上이라도 共產主義의 團結을 살리려는 것이 아닐까. 서로 決裂을 公然化했다고 해서 아무런 利益도 없다. 決裂이 公然化되면 소聯은 共產主義 世界全體의 이름으로 發言할 수가 없게 되며 中共도 共產主義 世界에서 소聯과 中共 어느 쪽을 擇할 것인가를 強要할 境地가 되면 잃을 것이 많아지게 된다. 「큐바」의 「카스토로」의 例를 보더라도 結局 北京의 「이데올로기」 보다는 「모스코」의 實力이 더 作用을 하게 때문에.

미래의生活



기성도시의 입체교차로의 한 예, 물론 여기에는 교—스톱의 신호는 필요치 않다. 왼편 윗쪽의 보족한 마천루의 스타일이 입체도로와 어울리지 않는 점이 특색이다.

未來의 建築



박 학 재

△漢陽工大教授▽

지금 생각으로는 제 1차 세계대전때의 공중전만 해도 제법 볼품 있었던가 싶다. 전투기라 했자 복엽식 날개에 다 친으로 간싼 기체였는데도 그 비속도적인 날음새를 뽐내면서 서로 접근하고서는 벽돌조각이나 돌맹이로 상대방의 푸로펠라를 때려 꺾어서 격추시켰다 하니 기상천외의 걸작이 아닐 수 없다. 린덴버그가 내서양을 단번에 건넜다고 전 세계가 법석대면서 세세이순별한 기분으로 들떴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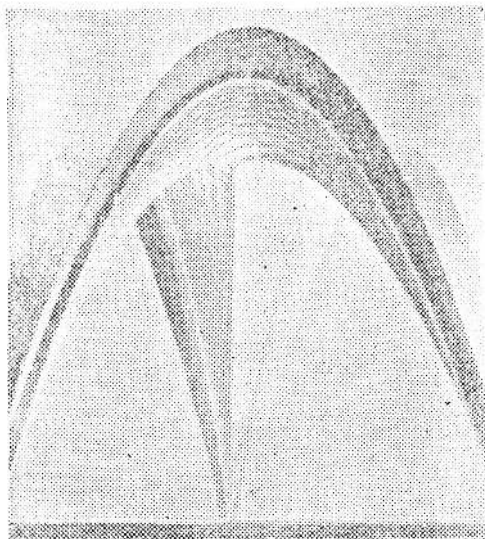
시대는 흘러서 음속비행을 거쳐 「쿠퍼 소령과 신의 호와 二二회」의 우주시대로 돌진해 버렸는가 하면 달세계의 토지때때 계약서를 들고 다니는 때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항공공학의 판단이라고 하면서 음속비행이 철대로 가망없는 일이라고 내뿜었던 때도 있었는가 하면 철선을 만들어 보았잖아 물에 뜨지도 못한다고 제법 진지한 태도로 말했

던 적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건축계에서도 있었다. 옛 펠탈(지상높이 四〇〇미터 一九八九年)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설계자 옛펠씨를 가리켜서 공상가니 불가능 하다는 니 머리가 돈 사람이라느니 하고 퍼들면서 박해를 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말마따나 불가능이란 말을 우편에서 때머리라고 했는지만 과학정신의 발로는 과학공상소설에 나왔던 미래의 세계를 거침없이 개척해 나가고 있을 따름이다. 건축문화란 곧 그 사회나 민족문화의 정도를 재보는 척도(尺度)라 말하고 있든지 미래 인류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한 사회기구에도 무슨 변화가 있게 될 것이냐 하는 데서 비로소 미래의 건축문화에 대한 상상이나 추측이 서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핵시대의 제 2 산업혁명 시대로 치고 있는 지라 이 산업혁명이 적극적으로 인류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지금의 생활양식이 오히려 유치하고도 원시적인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벌써해 버리는 시대가 올른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 산업, 경제, 사상, 정치, 종교, 예술, 과학…… 이런것을 다루면서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인류의 생존문제를 합리화하거나 해결하려는 방법이고 목적임에야 제 1, 제 2의 산업혁명이 이룩할 인류의 생활은 다음처럼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현재와 같이 늘날만큼 팽창되어 가는 인구에 대한 식량

문제 해결에 일대 혁명을 일으켜서 공기나 바닷물, 또는 해저에서 영양소를 달리하는 화학적 식량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한편 육지에서는 강우량이 마음대로 조절되면서 농작물 수확이 훨씬 증가됨은 물론 사막지대도 경작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대 과학에 소요되는 많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리라 추측되는 천대미담의 설령(雪嶺: 예를 들자면 알프스나 히마리야 산맥 또는 남북극지방)도 원자 에너지의 활용으로 개발되고 사람의 살림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상의 지리는 물론 우주의 지리가 시간적으로 훨씬 단축되어져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인간의 개념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모노레일」이 기차와 바꾸어지고 다양적으로 기능화 된 엘리베이터가 자동차와 대체될 것이다. 음속 이상의 항공로가 저미출처럼 발달되는 한편 지금처럼 일단 활주에서 떠 날오는 방법은 직접 수직으로 올라가서 날기 시작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한다. 인공위성을 증계소로 삼는 통신통화가 국제간의 접촉이나 지방간의 연락을 신속히 하고 밀접하게 하고 또한 학교 교육제도 마저 형식상으로 보아서 불편할 뿐더러 결합이 많다고 폐지되면서 교수는 T·V 방송으로 강의를 하면 청강생은 다만 집에 앉아 있는 대로 다이얼만 맞추면서 원하는 강의를 마음대로 청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트마저 자동 텔레타이프로 적혀 나오게 될 것이

아닌가. T·V와 녹음이 카메라인 된것 같은 자가용 판독기(判讀機)를 통해서 시간서적은 손쉽게 구득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기술자나 과학자의 사회적 위치와 권위가 훨씬 고압적으로 확립되는 제도가 국제화 될 것이다. 과학시대가 무르익어 가면 갈수록 많아질 번잡한 산수식 풀이에 있어서도 인간의 두뇌와 손에서 계산기로 옮겨질 것이다. 비근한 예로써 5피이트 8인치의 볼테의 바퀴가 8억마일을 굴러 가면 몇바퀴 도는가 하는 정확한 답을 불과 五七초만에 했었지만 $(123+567) \times 8 = 931,837,467,390,148,345,855$. 위도 O' 七초로 해 치우는 전자계산기 시대가 되었으니 말이다. 노동은 기계화 되었기에 근로시간도 훨씬 단축되는 반면 수입은 증가되어져서 오락과 즐거움을 누릴 시간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외출시간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 많아지고 매스·제임이나 스포츠를 더욱 즐기게 될 것이다. 의학과 약학도 훨씬 발달되어져 질병이나 유행병은 아주 감소되고 불구자의 수효도 무척 줄어드는가 하면 사망율은 줄고 수명이 늘 것이다. 만사를 기계력으로 처리해 주는 까닭에 손과 발의 기능이 퇴화되어 갈 것이다. 현재로 우리 인류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천차만별의 가구나 기구도 그 종류가 훨씬 늘게 되는 반면 규격과 형태가 아주 달라지면서도 통일되어져 버리고 짐을 꾸릴 때의 용적 규격마저



윗 그림은 P.S 콘크리트로 된 대스판의 건축. 철근은 피아노선이고 유니트로 나누어서 공장 생산해서 공사장에서 조립하는 이.

몇 종류로 규정되어져 버린 것이다. 남녀의 부장은 비슷하게 되고 식사 준비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환약 몇알로 대응해 버릴게다. 그랬더니 二, 三개월은 거뜰히 견디게 될런지도 모를 일이다. 나라와 이민족(異民族)과의 교제는 빈번해지고 언어의 장해라 했다 휴대용 번역기로 치루어 버릴게다. 민족별 구가별의 알루도 자연 도배될 것이고 한낱 인종차별을 없앴다고 전쟁을 벌였던 「린컨」의 이야기마저 흘러간 에피소드로 여기질 때가 올 것이다. 타

부(Tabu)적인 신(神)의 존재며 최악의식을 조차하는 따위의 종교는 도태 되면서 一, 五〇〇년전의 회람민족처럼 신과 인간을 동격시(同格視)하는 관념이 대부분 되어져 신의 절대사상은 인류의 관념에서 떠나갈 것이다. 신은 어디든지 있다고 여겨 왔지만 신은 있는 곳도 없다고 떠들어 달 것이 분명하다. 공산주의도 체념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도 맥을 못출 것이고 사회주의며 부정부주의며 민족주의에 대한 시비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것들은 필경 그 고도화된 인간의 지성으로 그 행동이전의 목적의식에 대한 분석적 간파가 보편화 되어가는 까닭에 흥미와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 뻔하다. 지배자도 없고 피지배자도 없을 뿐더러 착취자도 없고 피착취자도 없을 것이다. 개성의 존중이란 이기주의에 동한다고 배척을 받고 절대주의란 것도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들며 보지도 않을 것이다. 모두들 잘 어울려서 자치제도가 고도화되어 문자 그대로 자유, 평등, 평화로운 인류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점차로 소멸되는 반면 인간의 존엄성이 띄 높아지면서 규칙 정연한 집단생활이 보편화 될 것이다. 이 집단생활에 적합한 장소가 즉 도시임은 물론이다.

X X X

지금까지의 도시가 지정학적(地政學的) 전지에서만 성립되어 왔지만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위성도시(衛星都市)

市)로서 전원도시, 상업도시, 공업도시, 행정도시, 문화도시의 구별이 뚜렷하게 나누어지면서 발달해 갈 것이다. 이러한 도시와 도시는 먼저 말한 고속 교통기관과 벨트식 도로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인구는 一〇—一五만 정도로 정해지는 한편 기성도시인즉 아무래도 구기술기의 소산임에야 대대적으로 개조되어 갈 것이고 이 개조사업이 불합리하다면 버려둘 것이다. 그래서 고대의 「바빌론」이나 「니네베」가 폐허화된 것처럼 버림받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 위성도시는 한개의 「유니트 캠퍼나티」가 되고 그 도시 전체를 한개의 지붕으로 덮어 싸우게 될 것이다. 이 지붕은 「프라스틴들」이던가 고성능 유리로 된 싸우개가 될 것이다. 즉 한개의 지붕으로 덮힌 도시이다. 이 도시내의 기능은 원자 에너지로 충당 될 것이다. 건물들의 높이와 양식 등은 제한을 받을 것인데 도시계획과 그 기능은 모두들 사전설계에 의해서 전설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물리학적인 조직체처럼 일사불란의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소위 「윗팔목」이라 부르는 빈민굴이 끼어 있게 될리가 없다. 건축이 공간예술인 까닭에 지금까지는 민족별, 지방별 또는 시대별에 따르는 양식이 각각 달라졌고 따라서 건축가도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려는 수법을 답습해 온 것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우주 시대에서는 과학과 예술의 결합에 보다

더 충실하려는 스타일로 될 것이다. 기계를 장치한 건축기에 감싸아진 건축 「메카니즘」과 한 사회 기구를 조정하는 건물들의 그 본질적인 형태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기능적인 것과 형태적인 것이 더욱 일치되어져 외관은 단순해지고 미적 감각으로 보아서는 보다 더 무기적인 구성으로 되어갈 것이다. 그 기계 미학적인 냉철함을 피하려고 유기적인 감각을 조장하면서 휴메넨한 감각을 찾아 보자는 주의주장이 통하는 현재의 문화 조류는 과학시대가 그대로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건축은 실비와 목적이 그 형태를 낳게 하고 구조와 재료가 이것을 성립시킬 것이다. 가장센 「하리케인」 태풍의 초속이 겨우 八〇미터인데도 가옥은 고사하고 나무뿌리마저 뽑아 넘어 버리는 데 음속 이상으로 날오는 항공기는 초속 三四〇미터 이상의 풍압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날고 있다는 것은 그 구조의 탁월함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적은 부재로 보다 가볍고 보다 더 초압력에 견디며 또한 경제성을 더 부르는 이 항공기의 구조법은 그만큼 모든 조형체 중에서도 가장 발달된 것만은 사실이다. 건축의 구조기술 분야에서 이러한 항공기의 역학적 구조 기술을 응용해서 그 어떠한 규모나 형태이건간에 대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체에 합당한 재료의 대대적인 출현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여긴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벽 철골구조 따위는 유희하기 짝이 없다고 여겨 버릴 때도 멀지 않았을 것이다. 위생도이나 기성도시에 건설될 앞으로의 건축은 그 기능과 목적에 대한 설비가 구체화되는 한편 지금까지 말해온 것 처럼 의식적인 예술성이나 지방성 또는 민족성을 각각 양식화 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생산성에 대한 판리나 운영도 한 사무실에 장치된 자동 조정기의 보턴을 누름으로써 조종 될 것이다. 상상컨대 여러가지의 자동적인 공장, 창고, 그리고 자동적인 판매소와 관련된다는 상품의 유통대사(流動代辦)를 자동적으로 콘트롤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화폐나 증권이나 다른 통계조직(統計組織)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계두뇌(機械頭腦)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될 이른바 무인조종화(無人操縱化) 될 것이다. 현재로 「미래세계」에 대한 건축을 개인적으로 착상하거나 연구해 보는 건축가로서는 「후레데릭 제이 키스라」(Architect Frederik J. Kiesler)와 젊은 건축가 「산포드 호하우스」가 있고 단체적으로서는 미국의 「제니벌·에리트릭·모터스」회사와 국민연구원의 건축가 합동(National research corporation and Architects collaborative) 단체가 있다. 키슬러는 벌써 一九三三년 파리의 판구 박람회때에 「공중도시 계획안」을

발표한 일이 있었고 현재로는 자기의 소론인 「끝없는 공간론(Endless space theory)」에 의해서 무한공간(無限空間)을 상징하는 타원형 원면의 주택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미래의 주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무한공간」이란 지구와 이것을 감도는 인공위성 또는 「우주공간(Outside space)」은 등불거나 타원유적이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현 인류의 생활감성은 이 무한한 공간성에 관심이 집중되어지면서 인간과 우주공간과의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인식되어지는 까닭에 우주시대의 주택에도 이 무한성을 상징시켜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편면과 입면은 타원형으로 이룩했을 뿐 아니라 실내의 채광은 아침 낮 저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자유 자재대로 조절할 수 있겠끔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카메라의 필터(Filter)와 조리계(Fade)를 결합한 창(Window)을 인상시키고 있다. 즉 렌터 역할을 하는 프리즘 유리(Prism glass)에서 스퍼드는 광선을 조리계로 허루의 세페에 맞추어 조절하면 광채와 색이로 지구의 이동 즉 우주와의 관계가 시각적으로 느껴질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접근해진다 는 것이다. 또한 인공조명(電燈)은 자동적인 이동식이로 해서 방 안을 걸어 다니는 사발탄을 비치게 한다면 의식에 서 자신의 존재의식이 강화된다는 것이 그 대요다. 「호하

우서」도 주택의 연구 테마를 두고 있다. 키스러의 평면과 입면에서는 다소 불규칙하고 유기적인 느낌이 있지만은 「호하우스」의 것은 평면, 입면, 단면에 있어서 모두 달걀형(卵型) 그대로이다. 본인의 말로는 달걀의 형태에 서 착상을 얻거나 모방한 바는 아니라는 것인데 이것은 목적추구의 결과가 우연하게도 일치되어 버렸다고 볼바 다. 이 타원형도 키슬러처럼 끝없는 공간성의 상징에서 오는 결과이다. 구조의 뼈다귀는 철재이고 이철재에 다철망(Mesh)을 붙치고는 콩크리트를 붓어서 완성시켰다는 것인데 미국의 버지니아주 바닷가의 바위 언덕에 세워질 것이라 한다. 위의 두가지는 어느 개인의 과학 정신에 따르는 사회관 내지는 역사관에 의해서 개별적인 연구에 지니지 않는 만큼 거기에 절대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고 한가지의 착상 혹은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미래의 건축문화를 말하는데 「리차드 바킨스더 홀러」(Richard Bauckminister Fuller) 박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의 작업에 수 학자, 철학자, 기술자, 제도자, 발명가, 교육자, 저술가 건축가로 쳐 본들 어느 한 가지에만 한정되거나 완전한 것은 없고 조금씩은 겸비한 사람이라는데 한 때에는 상상 가로 쳐서 그의 이론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현재로서 는 그의 「위대한 고안물(考案物)」이 미국을 비롯해서 아르 카니스탄, 일본, 인도, 파파, 소련, 타이…… 할 것없이

여러나라에 「地測線 돔」(Geodesic Dome)이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 돔의 구성은 공(球)의 장점 과 사면체(四面體)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인데 여기에 공 의 장점이란 최소한의 표면면적으로 최대한의 용적을 감쌀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 가장 굳센 내력(耐力)을 이끈다는 것이고 四面體(三角形)으로 組立된 四面立體)의 장점이란 그 표면적의 용적이 최소한도인데도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대해서는 가장 굳세다는 것이다. 그래서 돔의 직경이 드면 클수록 구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증가되는 만큼 대소의 돔은 말할 것도 없이 한개의 구역(區域)이나 도시(都市)의 지분을 싸우는 데도 쉽게 응용된다는 이른바 Energetic Synergetic이란 그의 독특한 기하학 체계로 이룩된 것이다. 이 돔은 또한 작은토막(小部材의單位)으로 조립되는 만큼 시공이 쉽고 공사비도 적게 든다는 특색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발명인 Dome Man이거 「Designer of Space age Fuller」라 불려되곤 한다. 그래서 우주시대에 있어서의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도시계획에서 는 이 「제오데직 돔」에 힘입은 바를 것이라 한두말할 나위도 없다. 인류의 「꿈」은 현실로 되어 가고 이 현실은 과학의 힘이 실현시킬 것이다.

未來의 動力

李 鍾 秀



△한국일보 記者▽

동력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추진제다. 그 추진제가 풍부할수록 문명의 도는 높아져가게 마련이다. 유사적인 인류는 사람의 힘밖에 이용하지를 못했다. 그것이 불의 힘을 쓸줄 알게되면서 비로소 진보의 길을 더듬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동력의 원천을 찾아내면서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수력 동력 따위 자연력을 비롯하여 석탄, 석유에서 나오는 힘을 이용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꽃을 피게하였다. 이미 원자력이라는 획기적인 동력도 이용하게 되었지만 본격적인 계도에 이르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밖에 아직도 새로운 동력원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가속도가 붙어 발달하는 문명을 지탱해 나가기 위하여 충분한 동력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나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만도 동력의 수요는 오늘의 몇십 배로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백년대계는 충분한 동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세워져야만 순조롭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장래할 세계에는 어느만큼이나 동력이 수요될 것인가. 그리고 그때는 어떤 동력원이 개발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十년전에 미국에서 「장래의 에너지」라는 책이 간행되어 나왔다.

저자는 당시 원자력 위원회의 기술고문이었다 「파머·푸트남」이라는 사람. 그는 오는 二〇五〇년까지 인구가 약 六十三억으로 팽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숫자는 당시(五三年)의 인구 약 二十억의 三배에 해당되고 있다. 그런데 「푸트남」은 당시에 비해 二〇五〇년에는 「에너지」수요가 약 二十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추정을 내렸다.

그는 一九五〇년부터 二〇五〇년까지의 「에너지」 총수요량은 七十二Q가 될것이라 하였다. Q란 석탄으로 환산해서 三백八十억톤에 해당하는 막대한 「칼로리」를 나타내는 에너지 단위이다.七十二Q 가운데 화석원료(석탄, 석유등)가 三十八Q를 차지하며 태양열, 신탄(장작, 숯) 풍수력 등이 八Q, 그리고 나머지는 원자력으로 충족될 것이라고 그는 추정을 내렸던 것이다.

七十二Q란 「에너지」량이 얼마나 큰 것이냐를 한번 음
미해 보자.

인류가 탄생한 이래 一八五〇년까지 소비한 「에너지」는
거우 약 六Q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그로부터 一九五〇년까지 백년간에 약 四Q로
늘어났다.

二〇五〇년까지의 백년간에 七十二Q가 필요하다는 것
이 무엇을 뜻하는냐는 이상의 비교로 명백히 들어나는 것
이라 하겠다.

아직까지는 문명을 발달시키는 동력원으로서 석탄, 석
유 등 화석연료로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칠 장래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
다.

말할 것도 없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파워 화석연료
는 동력원으로서 비결데 없이 좋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잘 타고 열량이 풍부하니 많기만 하면 만 동력원을 찾
을 필요가 없다. 다만 슈감스럽게도 그런 화석연료의 배
장량엔 한도가 있다.

전 세계의 석탄, 석유 파워를 전부 합쳐 모아본대야 약
백Q정도고 그중 경제적으로 개발해 낼 수 있는 것은 그나
마 반쯤이 될까 말까다.

거기다가 석유 화학의 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석유는 「플

라스틱」등 귀중한 유기공업 약품 원료로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연료로서 무작
정 태워 버릴 것이 아니라 화학공업 원료로서 사용해야 한
다.

수력 파워를 가능한대로 이용해서 석유에서 얻을 「에
너지」를 대신해서 모충해야 된다.

그러나 풍수력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도 제한되
어 있다.

지구상의 자나라가 강을 막고 담을 쌓아 수력을 전 령
으로 바꾸는 데 혈안이 된 나머지 앞으로 더 개발할 어 지
는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다.

풍력 발전이라 해도 효율같은 점으로 보아 그다지 대 소
로운 것이 못된다.

나무를 태워서 얻는 「에너지」도 한계선이 있다.
원자력을 제외 한다면 다음에 오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

한 동력원이 될 것으로 지목되는 것은 태양 「에너지」나
태양 「에너지」는 수력전기로서 간접적으로 이용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에는 개발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
은 앞서 말한바와 같다. 문제는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하

면 직접 이용하느냐다.
지구가 一년간에 받는 태양 「에너지」는 五천三百Q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열량이나.

제 2차대전은 2발의 원폭이 끝을 맺게 했다.

TNT 2탄탄에 해당하는 원자폭탄 2발 때문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도시는 그대로 폭발이 되어 버렸다.

그 무서운 원자폭탄이 매초에 천발이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히말라야」 산맥이 자취를 감추게 되고 태양양이 그대로 말라붙을 것이다.

그런데 지상의 생활은 매초 천개 끝의 원폭이 내는 「에너지」가 아니면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된다.

그와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지구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양이다.

태양이 지구로 보내주는 총 「에너지」량은 이와같이 막대한 량이지만 그것이 전 지구상에 그대로 잘리는 것이 아니라 매 평방「미터」에 쏟아지는 량은 그다지 풍부한 것은 아니다.

즉 지표에서 매년 1평방「센치미터」에 약 1, 3「칼로리」의 태양열을 받고 있으니 1평방「미터」로 치면 1「킬로와트」의 전열기를 놓는 셈이 된다.

二十四시간 계속 매 평방「미터」서 1「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낮과 밤이 있고 개인날과 초린날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태양열을 모아 통조림을 만들어야

한다.

태양열의 저축방법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태양열을 농축해서 한곳에 집중시켜야만 쓸모가 있다는 데서도 어려운 문제는 남게 된다.

거대한(렌즈)를 만들어 태양광선을 강력하게 초점에다 몰아야만 태양발전같은 것이 가능한데 그 기술이 그다지 안이하게 개발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열 이용에 관한 연구는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다.

끊임없이 뿌려져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태양열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을 그대로 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트남」은 태양열, 풍수력 등 동력원에서 나오는 미래(二〇五〇년까지)의 「에너지」를 八Q로 보고 있다 그것은 그때까지 태양열 이용 연구가 완전한 개발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인 것 같다.

「푸트남」의 「에너지」 수요량에 대한 추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없지만 지금의 정세로 보아서는 그 숫자를 넘어서면 넘어섰지 그 이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 세계에선 어떤 유력한 새로운 동력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문명의 발달은 「스톱」당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푸트남」도 기대하고 있지 원자력이라는 유
리한 동력원이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던 다음 二〇五〇년까지의 세계에서 원자력에서
얻어낼 「에너지」를 二六六Q로 추정한다 「푸트남」의 의도는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그는 곧 원자력의 이용이 실용의 궤도
에 오를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지구상에는 이용 가능한 원자력 자원이 무
궁무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선진 여러나라에서 건설되어 「제
삼의 불」에 의한 전기가 얻어지고 있다.

문제는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요금과 화력 발전에 의
한 전력요금과 어느 쪽이 싸냐하는 데 있다.

아직은 화력 발전 쪽이 싸게 먹히고 있긴 하다.
그러나 석탄이 줄어들어 따라 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

에 인젠가는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 요금이 더 싸게 된다.
더구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저렴하게 하려고 예의 연

구중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화력 발전에 의한 전력 단가
보다 내려질 날은 예상보다 일찍 닥아 올린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의한 전력 요금이 서로
맞비기는 것은 대략 六七년도 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이렇게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 방식이 마련되기만 하면
원자력 연료는 풍부하게 있으니 까 당분간 동력원 걱정은
없게 된다.

현재 지구에는 개발 가능한 「우라늄」이 二천七백만톤이
나 매장되어 있다.

이량은 約 七千Q에 해당된다.
그 위에 우리나라에도 풍부히 있는 「토륨」이 「우라늄」
의 三배나 지구에 매장되어 있다.

「토륨」을 이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 방식은 아직 연
구중에 있긴 하나 완전한 해결을 볼 날은 그리 멀지 않은
장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수백년 같은 핵분열 방식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으로 필요한 동력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수백년 뒤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역 비판할 것
없다.

하늘의 태양을 지구상으로 옮겨오면 된다. 수소와 수소
가 융합되어 막대한 「에너지」를 내는 태양과 같은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말이다.

수소와 수소의 급격한 융합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
는 방법은 이미 수소폭탄에서 실현된 바 있다.

앞으로는 그 융합을 서서히 조절 통제하는 방식은 개발하
면 된다. 그 연구는 지금 이때도 세계 이곳 저곳에서 연

구되고 있다. 그 방식이 완성되면 수소다는 핵수소에서 열
마는 지 얻어내면 된다. 이 때 시 영원한 장래까지도 동력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게 될 것이다.

未來의 衣服

김 윤 숙



△속명여대 교수▽

필자는 장래할 세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국가의식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단순히 추상명사에 지나지 않았던 「인류」란 관념이 생생하게 구체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류의식에서부터 지상의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더 넓은 차원에서 검토되고 인류로서의 자각에 의하여 이대올 로기의 교조화가 방지 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여러 사고양식의 평화적 공존과 지구적 규모로 확대된 데모크라시 사상은 마침내 세계정부의 실현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 오는 二一세기를 가정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류의 최종적 유포토피아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세계가 통일되어 군비가 철폐되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류의 침략적 에너지 전부가 평화적 개발에 사용되고 지구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학적 진보의 세기일 것이나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두가지 파괴력 즉 그릇된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의 파괴와 과잉인구라는 경제적 이유는 인류를 몰아세로운 우주개발을 시도케 한 것이다. 오는 세기는 우주여행과 육성식민의 준비시대가 될 것이다. 한층 더 먼 장래에는 달이나 화성이 지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개발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혹은 이에 이르는 중간책으로 인공위성 도시나 육성간을 날아다니는 대우주선을 상상할 수도 있다. 이런 우주공간 거주자는 지구상에서의 인간의 번영과는 전혀 형태를 달리하는 번영을 누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는 세기 기간에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못하리라.

X X X

대저 어떤 세계에서건 인간이 인간으로 생활하는 한의 생활(衣生活)은 필수적인 것이다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상정하는 장래할 세계에서 미래의 사회생활을 추측하는데 있어서도 역사적인 교찰을 빼놓을 수 없다.

한 시대의 문제는 과거와 떠나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생활 전체가 과거와 관계를 가지고 부단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세계의 인간들의 부장도 과거의 부장과 관련을 가지고 그것을 입고 있던 인간의 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 변화됨을 피치 못할 것이다.

부장의 역사가 산 인간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장이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복장이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때 각 시대의 복장은 상호간에 유기적인 필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복장을 끊임없는 흐름속의 현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느 시대에 무엇을 입었느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입었느냐를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복장이 인간생활의 표현이라 하면 무의미한 새로운 형이 생기거나 변화하거나 할 이치가 없지 않겠는가? 반드시 원인이 그 사회생활 안에 있을 것이다.

참으로 복장문제는 단순한 포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치마와 바지의 투쟁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의복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을 입은 인간 자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복장의 본질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

『第二의 皮膚』가 된 복장은 하나의 사회의 수반이 되어 버려 사람들은 어떤것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만을 생각할 뿐이지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는 마치 사람들은 공기를 마시며 살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치 못하고 지낸다.

그러나 의복은 결코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불변하는 것도 아니다. 나라와 민족에 따라 그 양식이 달랐고 같은

사회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천해 내려왔다. 다만 습관으로서 살고 주어진 것을 의식하지 않고 좀더란 자기 주변에서 취미와 특창을 운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의복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X

X

X

스피디한 현대생활의 템포는 자연여타 모양으로 의복에도 나타나고 있다. 「계절이 없는 의복」(Seasonless dress)의 출현은 교통기관의 스피이드화로 인하여 일일히 계절에 맞추어 의복을 가라입는 불편을 면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의복의 형에 있어서도 상의를 빼내면 소매없는 원피스가 되고 상의를 부치면 스니즈가 되는 식의 「안상복」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급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부제설의 의복은 또한 생활양식의 과학화에 따라 여름철이지만 지나치게 서늘한 냉방장치의 장소에서 현대인의 독특한 생활의 일부로 이루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생활양식의 의복으로서 여행시에 휴대하는 「구김수 있는 의복」(Shrinkable Ware)이란 것이 출현하였다. 이것은 여행가방 속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어도 일단 꼬집어 내서 걸어두면 펴쳐는 스타일로 회복이 되는 합성섬유직 의복을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복장의 경향이 점차로 변천하여

새로운 것이 뒤이어 나타날 뿐 아니라 복잡성의 습관, 의복의 형, 부지 자체 까지도 변화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복잡성의 일부분 또는 편리한 복잡성의 형식이 국경을 넘어 널리 많은 나라 사람들에 의해 착용되는 형편에 있다. 복잡성의 국제화는 앞으로 더한층 박차가 가해질 것이 예상된다.

어떤 민족 고유의 의복인 소위 「민족복」이란 것도 그 특징이 평균화되고 있는 사실은 근대화에「따르는 문화적인 체화란 현상에 기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三〇 세기의 복잡성의 특징은 기능제일주의에 있다고 들만 한다. 특히 여성의 생활의 혁명적 변천으로 복잡성의 합리주의적 고리는 모든 유행에도 불구하고 근간적인 의생활상의 원칙이 되어 있다.

새로운 화학섬유의 발달로 인하여 의복재료가 여러 종류 대량으로 생산됨으로 다수민중이 용이하게 그것을 구하여 옷을 지을 수 있게 되고 기성복이라는 생산관념에 방식이 보급됨으로써 복잡성에 있어서 차별을 발전할 수 없게끔 되고 있다.

유행이란 것도 하나의 시대적 경향을 나타낸다. 아무리 새로운 유행형이라 할지라도 불합리한 것, 즉 기능적으로 소용없는 것은 보급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대의 복의 경향의 하나로 복잡장각과 화를 들지 않을 수 없

다. 이 약장의 추세는 앞으로 일층 더해질 것이 틀림없다.

X X X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고도의 문명을 누리게 될 장래할 세계에 있어서도 인간이 몸동이를 더 정확히 말하면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도는 줄어들기 보담 도리히 높아질 것이다. 생활환경의 일대 개신으로 말미암아 외계에 대한 반응으로서 즉 살아 나가기 위한 조건으로 의복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니라고 보이지만 피부의 강인성을 생가해 볼 때 도리히 앞날의 사람들은 약해질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 되어도 기후나 온도에 대한 적응을 고려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생활이 변이될 수는 없을 것이니 한서(寒暑)에 대한 보존의 필요상의 복은 여전히 불가결한 것이다.

또 오는 세기의 사람들의 생활은 더 복잡해질 것이고 그 이동에 따르는 소지품의 종류와 수량이 많을 것으로 친히 봄에 무엇을 꼭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확동상의 필요에서도 역시 의복을 입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의복이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은 장래할 세계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온 세대의 의복은 어떤 특징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느정도 확언할 수가 있다면 다음같은 점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의식공용(衣食共用) 섬유(衣)의 발명이나 경량내구(輕量耐久) 섬유(食)의 출현은 곧 아난(아난) 사실로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미 「부직포(Non-woven fabrics)」라고 불리우는 짜지 않은 천이 나왔지만 다음 계단으로 우리는 호지 않은 의복의 출현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문하는 사람의 몸의 싸이즈를 입체사건으로 짜어 이것에 의하여 인체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부직포로 성형(成形)한 의복을 만드는 방식을 예측하게 된다. 또 하나 현대 생활에서 이미 나타난 현상으로서 앞으로 널리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더러워진 의류를 세탁해서 쓰는 수고를 생략하여 그것들을 사용한 뒤에는 버리고 마는 시대의 도래가 상상된다. 대량생산의 능률화에 의하여 의복의 코스트가 점차 낮아지고 제조의 簡易化, 스피이드화가 이루어져 땅에 있어서 얼마든지 생산되게 되는 날이면 한 번 사용한 것은 두 번다지 안쓰고 버리는 종류의 것이 많아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장래할 세계의 변천된 복장을 상상해 볼 때 「형식승격의 원리」에 의하여 복장은 더 경쾌하고 더 간이하고 과장이 없는 단순한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일상복과 예복(禮服)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

고 본다. 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차별이 없어질 평민사회이니 만큼 특종의 재로나 형식을 특별히 존귀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무 의미도 없는 복장이 인간생활과 전부 되어 특권적인 존재가 되는 소위 「복장의 인격화」란 현상이 없어짐과 동시에 한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도 친한 형식과 고귀한 형식으로 구별되는 의복생활이 불식(不食)되리라 본다.

이미 一九세기 후반 이후부터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된 여성(海방과)이 계속된 기능주의적 경향은 복장면에도 강하게 반영되어 그 결과로써 「성차(性差)의 몰가(消失)」이란 새로운 명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 추세가 촉진되어 오는 세계에 이르러서는 남녀복장의 완전한 무차별이란 결과물 날게 될런지도 모른다. 여사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고대의 여성은 남성과 같이 생산에 종사하고 전쟁에도 참가 하였음으로 그 복장은 남자의 것과 다름이 없는 단조로운 것이었다. 여자의 생활이 육내의 생활로 줄어들며 따라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라는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남녀완전동등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미상(未相)의 복의 형식이 극히 포피적인 형태를 취하게 될 것임으로 남녀의 성격 구별이 따라서 불명료하게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복색(服色)에 있어서 인습상 또는 법령으로 제

정하여 구별하는 일은 완전히 옛날 이야기가 되고 흰색
갈을 숭상하게 될 것이다. 즉 작업복이나 사무복이나 가
정복이 아닌 일상복이나 특히 여가복(Leisure ware)에
있어서는 평화와 번영의 세계이니 마치 순결하고 평화로운
백색일색의 세대를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천연섬유와 화
학섬유의 대결(對決)이란 과정도 끝나고 다시 자연섬유를
애용하게 되어 옛사람들 모양으로 견직물과 마포(Linen)
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의복 즉 우주복(宇宙服)의 출현을 언급
하지 않을 수 없다. 먼 장래 우주여행을 자유로히 하게 되
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밖에 나갈 때에 진공의 우주의
서방사선, 태양의 직사광선, 열선, 자외선, 우주진, 기
타 중력의 변화 등등의 여러 조건에 대응하는 형태와 구
조와 기능을 갖춤으로 자유로운 행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
게 고안되어 질 것이다. 이 의복에는 정밀한 기계가 장치
될 것은 물론이다.

X

X

X

끝으로 한마디 첨가하여 두련다. 현대에 있어서도 생활
조형의 세계성에 따라 복잡양식의 일반화란 경향이 현재
하여짐을 느끼지만 오는 세계에 들어서서는 이 세계성이

더 확일적으로 강력하게 되어 표준화 되고 개인을 초월한
인간공통적인 것이 그 기반이 될 것이다. 복식에 있어서
의 향토적(鄉土的)인정의 상실이라는 사태가 불가피하게
나타나리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판적인 것이라
고 해석되지 않는다. 현기증 날 정도의 유행 모드(의 변
화는 결코 인간의 건전한 정신생활의 발로로 간주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오는 세계의 사람들은 과학이 모르는 정신

정신의 대세계는 과학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의 인간은 과학에 현혹하여서 정신을 잃고 있다. 정
신의 진보와 정신세계로의 자성이 뒷받침이 되어 장래할
세계의 인류는 평화와 행복을 오늘의 우리들보다 더 누리
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구제와 세계개량을 염원하는
그들의 복장이 신기한 것을 경쟁할리가 없고 잔단, 소박
한 형식으로 귀일되어 질 것으로 생각한다. 「볼스토이」가
의복을 최면술이라고 비유하였듯이 과연 의복은 오늘날
인간의 정신에 대하여 의부로부터 작용하는 가장 강한 수
단의 하나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올 그날에는 이런 일이
없어 질 줄 믿는다.

自由의 품안으로

이 준 수

놈들이 어깨에 매었던 총은 다시 잡아 나를 쏠수 있는 시간이면 총분

히 불속으로 떨어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홍수가 흐르는 다

리 밑으로 떨어졌다. 나는 도구없이

자살할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거

센 물결속에 몸을 던졌건만 다시 살

기위해서인지 끄는듯한 홍수속에서

정신마저 잊을뻔 하면서도 생명의 의욕

을 생생히 느끼면서 흘러 내려가고

있었다. 빛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나 살기위해 휘적거리는 손에 무

엇인지 꼭 잡히는 것이 있었다.

살았다는 희열과 더불어 물결에 늘

어지는 몸을 힘껏 앞으로 당겨 보

았다.

사방을 경계해 보았으나 여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뿐 다른 소리는 나

지않았다. 비로소 푹으로 올라와 숲

속에 앉드렸다. 맞서서 땀을 쳐도 모

를 만를 어두운 밤에 비는 줄기차게

내렸다. 질척던 옷은 거센물결이 빗

거가고 벌거숭이의 몸이 어두운 밤에
흠미하게 노출되었다.

나는 다시 위험을 느껴 옷뚜옷은

산을 향해 최대속력으로 달렸다. 풀

잎하나 절치지 않은 알몸등이로 나

무릎이 옥어진 산길을 뛰어가니 몸

은 새물과 나무에 찢리어 피가 흐르

고 있었다.

그러나 몸이야 어떻든지 가량이 짧

은것만이 한이었을 뿐이다.

얼마후에 비가 끝났다. 그리고 내

앞에는 조그마한 초가집 한채가 보

였다. 소리없이 몸을 감추고도 방정

맞은 생각을 해보았다.

저집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살고

있다면 어떤 색의 인간인일까?

나는 달라붙는 모기를 쫓으며 사

람이 살고있나를 알기 위해 번소로

생각되는 곳으로 가서 붙어섰다. 틀

림없는 그 밤새나. 집안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찾아보았으나 몇톨의 잡자

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나는 다시

산정으로 올라가 근처에 부락이 있나 없나를 살폈다. 그때 닭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후에는 세상이 휼해지고 사람의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리저리 가다니다며 낙엽을 주었다 몸을 숨기고 누웠다. 등과 다리뼈에서 우두둑소리가 났다. 아픔을 참으려고 눈을 감고는 앞으로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몇시간이나 지났는지 온몸이 소스라치게 아프기에 눈을 떠보니 몸에 빨간 「불개미」가 붙어서 물고 있었다.

나는 다시 피가 흐른 상처마다 마른 흙을 뿌렸다.

나는 그저 빨리 밤이 오기만 기다리면서 산길의 부락을 내려다 보았다. 저 부락에 내려가면 빈배를 채울 수 있을까? 또 의부도 구할 수 있을런지? 드디어 날이 어두워지자 마음

대로 움직이지않는 몸을 끌고 부락으로 내려갔다.

부락에 들어서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전에 나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을뻔했고 놈들의 총탄에 상처를 받은 생각을하니 더 갈수없이 공포감이 다리를 잡아 세우는 듯했다. 「공포감이 생기면 행동을 중지하라!」 교육을 받을 당시 교관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여유있는말이 아닌가? 무엇으로라도 배를 채워야 도망이라도 갈수 있지않는가? 생각끝에 20여호되는 부락을 여기 저기 헤매어 보았으나 얻은 것은 세자루의 우수수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무명으로 된 옥이장뱃이를 얻어 몸에 걸칠 수가 있었다.

나는 결심을 다시했다. 이제 부터는 한발자욱이라도 빨리 남으로 가야 한다. 한번의 경험에 나의 선택(選路)을 택한 것이다.

나는 이를 저물며 움직여 스러운 풀

을 뜯어먹어 가면서 때로는 소나무 정질도 벗겨먹으며 그저 남쪽을 향해 걸었다.

그러나 그런것 만으로는 나의 빈배속을 채울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익지도않은 사과란 머루 다래를 따서 씹어가면서도 공복을 극복해 보았으나 끝내 참지못하고 10일이 지나서는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까지 하게 되었다.

부락으로 내려가 먹을것을 구하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끝에 성냥을 얻었다. 나는 부락 제일 간역에 있는 집에 들어가 연기가 나는 굴뚝옆 추녀 밑에 불을 놓고 반대편 집으로 뛰어가 숨었다. 잠시후에 불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부락민들이 불난 집으로 물러가기 시작했으나 내가 가기를 기다리는 집에선 응성대는 소리만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

그 사이에 불길은 사정없이 검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그때서야 내가 기다리던 집에서 『불이야』 소리를 지르며 어른 아이들 할 것없이 모두 뛰어나왔다. 집안이 빈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막들어가는 것을 찰라 뒷문이 활짝 열리더니 총을 든 4명이 뛰어나와 나의 옆에 섰드렸다. 나는 잠작놀라 숨을 죽이고 그들을 주시했다. 잠시 후에 그들은 총을 어깨에 메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불이 났으니 내일이면 놈들이 와서 화제의 원인을 조사할것아냐? 그러니까 우린 모래쫄 온다고 편지나 써 놓고 빨리 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더니 한사람이 짐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나와서는 「모래밤 12시에 다시 온다고 적었다」고 하면서 적당한 간격으로 췌하게 비치는 불빛을 등에 지고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그 짐으로 들어가 여기 저기 뒤져서 국방색 옷 한벌과 조그만 자루에 들어있는 약 두 되가량의 가루를 들고 산골짜기를 호

르는 냇가로 달렸다. 모래같은 가루를 밟으며 집어넣고 불을 마신 후에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 발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남십자성을 찾아 걸어갈까 하다가 잠시 생각을 했다. 아까 그 집에서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틀림없는 아군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제시할 증거품이 없지 않은가? 나는 놈들과 싸울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어 보려고 그들이 내려온다는 날까지 산에서 기다렸다가 그날 12시경 그곳에 먼저가 섰드려 있었다.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나 밤이 깊어 세상이 조용할 때다, 내앞에 검은 사람 두명이 나타났다. 나는 그들에게 발자취위해 기침을 하려다가 용기를 얻지 못하였다. 몸을 숨겨 그들을 미행하여 보니 그 짐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약 30분후에 밖으로 나와 전번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잠시 동안 그들을 따라가다가 있는용기를 다내서 그들을 불렀다. 「유적군

동지들!」「누구야!」 그들은 재빨리 총을 내 가슴에 댔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들과 같이 산으로 올라갔다.

역시 그곳도 과거 우리들이 생활하던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은 생활이 다. 처음 벗일 동안은 유격군 동지들의 충을 닦아 주다가 일주일도 못되어 쇠약해진 몸에 결국 병이 들어 산중에 눕게 되었다. 약 일주일 후에 정신을 차렸으나 몸은 나의 정신과 분리된 것도 양 마음대로 움직여 주질 않았다. 벗일이 지나 몸이 좀 회복되었다. 생각할 적에 괴뢰군들로부터 노획한 아시보기마 단총 한정을 받았다. 이것을 받아들고 재성한 기분으로 유격군들을 따라다녔으나 쇠약진 나의 몸은 비호같은 유격군들을 따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악물고 그들과 같이 「비위골」 작전에 참가했다.

새벽 4 시를 기해 놈들이 출고 있

는 틈을 타 보았으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정보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보니 8명의 괴뢰군이 민간집에 갇혀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험하게 동이 더 밝아갈 무렵 산, 사, 오로 나가는 자동소총의 신호탄 소리들 들으며 놈들에게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놈들이 집안에서 끔찍도 않고 있기에 나중에는 수류탄 공격과 집에다 불을 질러 놈들을 소탕시키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전투에서 용감한 전우 1 명을 잃었다. 총에 맞아 최후 발악을 하던 놈의 수류탄에 맞아 「고만부」군은 二五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이들도 성도 기록하여 보지 못한 무명의 용사였다. 특히 전우애와 용감성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 기습작전에서 식량 실탄 및 놈들이 메고 다니던 담요를 벗기어 피가 흐르는 고만부군을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양지바르고 나무가 무성한 곳에 묻어 주었다.

그 후에도 교량 파괴, 천로 차단 등 널북과 등 놈들의 보급을 지연시키는 작전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작전이 계속되는 동안 점진 줄어 가는 총탄을 보충시킬 길이 없었다. 실탄을 구하려 여러곳으로 놈들의 주둔지를 기습했으나 가지고 있던 실탄만 점점 적어져 결국 좋은 정보가 들어와도 총탄이 없어 작전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처에 있는 정보원을 통해 총탄을 구하려 해보았으나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작전을 중지하고 며칠이 지난 후였다.

평산군 마산면에 있는 노인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국군이 부진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수십명의 괴뢰군들이 죽은 것을 한 구덩이에 묻어 넣고 묻은 곳이 있다는 것이다. 그 노인의 말에 의하면 놈들을 물을 저어 개와 허리까지 매달았던 총탄을 그대로 묻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정보를 분석해 보았다. 깊이 문혀 있

지 않은 놈들의 시체와 같이 썩어가는 총탄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놈들이 땅속에 묻힌지 근 일년동안에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 끝에 우리는 정보원의 뒤를 따라 그다지 높지 않은 산중턱으로 갔다. 그곳엔 거친 다메꾸어저가는 호가 있고 나무도 여러 가지 하나씩 서 있었다. 五〇세가 훨씬 지나 보이는 정보원 아저씨가 여러 가지 삼을 찢러 보다가 「이 구덩이를 메꿀 적에 내가 왔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를 한번 파 보게」 하면서 한 곳에 삽을 꽂았다. 경비병을 제외하고 우리는 모두 그곳을 열심히 파헤쳤다.

약 10분 동안 파우 무렵이다.

산짐승같은 우리들의 코에 말할 수 없는 악취(惡臭)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약 三〇분 후에 발발작업을 끝

내고 산으로 올라와 악취나는 실탄을 물에 담았다. 물로 문지르기 전에는 미끈 미끈한 것이 영 지워지질 않았다. 실탄을 실탄속에 화약을 빼서 불을 질러보니 예상한 대로 잘 불었다. 전대원이 실탄을 분배하여 지참했다.

그 후부터는 실탄을 노획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면 중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밤의 실탄이 없어도 출동하여야 된다는 급한 정보가 들어왔다. 폭격에 맞은 부상병과 일선에서 부상을 당한 놈들을 민간인들이 업고 십시부터 십시 사이에 「물대고개」를 통과 한다는 정다.

인솔하는 피뢰군은 一개분대 병력에 장교가 한명 끼어서 인솔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저물러 고개 중턱 험한 길 옆에 배치하고 놈들이 통과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에 냇가를 건너는 부상병들

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들은 배치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사격권내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二五명 일제히 두 발씩 집중사격을 한 다음 밖으로 나와 七명의 피뢰군을 생포하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구출했다.

우선 우리는 놈들이 가진 실탄부터 빼앗았다. 七명 전부 합쳐야 四〇발 뿐, 도리어 수발이 마이나스된 셈이다. 부상병들은 전원 그곳에 두고 민간인들을 데리고 제 三의 집지로 갔다.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이 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원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유격대장의 결심대로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고향으로 보내고 五명은 남한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격군 안내원을 시켜 남한으로 보내 주었다. 나도 그들과 같이 따라나올 생각이 간절했으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다.

그 후 어느 날 우리는 중공군 집결

지를 기습하였다.

그러나 뜻밖으로 충공군의 증원부대가 나타나서 결국 우리는 치열한 전투 끝에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다.

나는 민가에 숨어 하루를 보내고 밤에 학생부 차림으로 그 집을 빠져나와 미리 정했던 제5의 집결지에 가 보았으나 한명도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러자 새벽에야 민간복을 입고 등지길 두현군이 찾아왔다.

우리는 타대원들이 오기를 기다려 보았으나 이들이 지나도 다른 대원들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두현군과 나는 민간복에 충도착지않고 남파하늘을 향해 전기 시작했다.

역시 그곳 주민들과 외상거래를 하며 一五일만에야 일선으로 생각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아마도 고랑포 북방七~八마일정도되는 지점이라 생각하고 밤十시부터 행동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곳을 빠져나가느냐 그리고 이곳은 최전방이기 때문에 지되

가 빈틈없이 매설되어 있다는 정보는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지뢰를 피해 적진을 탈출할까 하고 꼼꼼히 생각해보았다. 얼마 남지 않은 전선에서서는 지형을 이용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동안에도 시간은 자꾸 흘렀다.

다시 일어나 남쪽으로 전기 시작하는데 나의 발에 무슨물이 걸렸다.

지뢰선이 아닌가 하고 가만히만 저보니 뜻밖에도 전화선이였다.

나는 살았구나 생각하며 두손으로 전화선을 꼭 쥐었다. 이 선을 따라 가면 지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을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한다. 끝에는 놈들이 앉아있을 것이다. 결국 암호를 모르는 우리는 전화선을 함선을 함선시키는 수 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전화가 통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가설병이 나오리라는 생각에 함선을 해놓고 약 一보뒤 도랑에 큰 돌맹이 하나를 주어다 놓고 전화수리병

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 一시간 三〇분정도 지나서야 북쪽에서 중얼거리는 신호가 들렸다. 「어디에서 끊어졌는지 알수 없는대 등 두 가지 찾았어」하고 뒤에 따라오던 놈이 묻는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려져 조사하자는 놈들의 소리가 똑똑하게 들렸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충공군의 주둔지역이 아닌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때 한놈이 우리앞에 나타났다.

야전전화기를 어깨에 메고 열구리에는 부인인지 주렁주렁 매달고 다가온다. 나의 앞에 와서는 전화선을 뿌잡고 서서 열구리에 찬 연장을 푸른다. 이때와 뒤에서 달려들어 놈의 목에다 팔을 끼고 머리를 앞으로 내리누르는데 준비했던 돌로 두현군이 그놈의 머리를 내리쳤다. 우리는 재빨리 놈이 갖었던 연장과 옷을 벗기어 잘아입었다. 두현군에게 그놈의 부장을 입히고 놈이 지참했던 전화수리

도구도 매어 주었다.

나는 다시 돌아서 전화선을 끊어 놓고 그 선을 따라 걸기 시작했다.

그때 약 一〇〇메타 전방에 二명의 피뢰군이 나타났다.

나는 그 자리에 없드렸다. 놈들은 우리를 보지 못했는지 그대로 지나갔다.

그들이 우리들의 앞을 조금 지나자 「서 누구야」하고 수하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우리 앞을 지나가면 놈들이 「조」하니까 수하를 한 맞은 쪽에서는 「국」하고는 그만이다. 나는 없드린 자리에서 두현군을 불렀다. 「두현아 우리가 알려고 하는 비밀은 다 알았으니 지금부터 뼈젓이 행동해도 될 꺼야 놈들의 암호는 「조국」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전화선을 잡고 두현군은 서서 걸어가고 나는 그 뒤를 약五워트 간격으로 포복을 하며 따라갔다. 그러자 앞에서 「누구야」하는

수하 소리가 났다. 두현군이 「조」하니까 「국」하고는 우리들의 앞으로 다가오며 「동무들 전화선을 빨리 좀 수리하시요」중대본부에서는 아까부터 전화가 불통이라고 연락병이 가고야만인데 「하고 두현군의 옆에 섰다. 그러자 두현군도 침착한 어조로 「어디가 고장인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중대본부까지 사이에 고장날만한 곳이 없을까?」하고 응수했다.

「여기서 중대본부까지는 약 一五〇미터밖에 안되는데 그 안에서 고장난 지 모르니 빨리 조사해보십시오.」

놈들의 말을 뒤로 남기면서 두현군은 전화선을 잡고 앞으로 걸어가다. 나는 경비를 하는 놈이 있어 주춤하고 있다가 포복을 하여 따라갔다.

거기서 두현군과 나는 옷을 바꾸어 입었다. 내가 놈들의 전화수리병이 된 것이다.

나는 다시 능선으로 뻗어간 전화선

을 붙들고 돌아가는데 앞에 총을 멘 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빈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더 나가려면 그들이 가진 총이 필요할 것이다. 전화선이 없는 곳에 어떻게 전화기를 매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주위를 살펴 보면서 두현군에게 손짓을 하여 가까이 오게 했다.

그리고 전화선을 수리하는 척 하다가 그놈을 향하여 「아유」 소리를 조그맣게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경비를 하던 피뢰병이 달려왔다. 「동무 지금 전화선을 수리하다가 눈을 다쳤는데 좀 봐주세요」하고 응석을 부렸다. 그러자 그는 내

앞에 총을 놓고 얼얼로 손이 왔다. 그가 나의 얼굴을 드러다 보려고 할 때 뒤에서 두현군의 뒷등수를 내려치고 나는 다시 멍치판 밑 급소를 울려

쳤다.

두현군은 어느새 옷을 가로입고 전화수리도구를 놈의 배위에 올려 놓자

능선을 넘어 비탈길로 내려섰다. 「누구야」하는 차거운 수하소리에 「조」하니 「국」하고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그앞을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 그앞으로 다가서며 「동부 지금 저쪽에서 무슨 소리나는 것 못들었오」 하고 손을들어 우리가 올라온 쪽을 가르켰다.

그러자 그는 「못들었습니다」하면서 그쪽을보다 두현군이 침착한 어조로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하자 나는 작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문화부중대 순찰원입니다」하고서 작은 소리로 「동부 그곳을 잠깐 갔다오지」말이 떨어지자 그는 앞에총을 하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그를 타서 비탈길을 삼금살금돌아 산 밑으로 내려 오는 동안 놀들의 수하라는 소리는 한번도 나지않았다.

우리는 좀더 빨리 포복을 하기가 작했다. 몇분동안을 삼포복으로 기어 오는데 철조망이 우리들앞을 가로막

았다.

그자리에 엎드려 사방을 관찰해보니 우리는 양쪽 고지중간에 있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철조망을 뚫고 남쪽으로 건너와 계속 포복을 하며 아군진지로 생각되는 곳외쳐 온 때진 곳에 몸을 숨기고 한참 엎드려 어떻게 될것인가 생각하고 있을때 우리가 숨어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맞은편 쪽에서, 영어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를 부르나하고 이곳을 보니 저이들끼리 오고가는 말이었다.

그러자 3명의 슈엔군 병사들이앞에 총을하고 우리앞을 지나갔다. 나는 빈손을 높이 들면서 『할로』하고 소리쳤다. 놀라서 뒤로 돌아선 그들앞으로 뛰어가서 그들의 호위를 받아 대본부에 들어가서 구사일생으로 통과한 적정을 설명해주었다.

世界各國의 議會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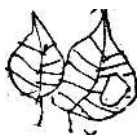
一九六二年 현재 八七(北韓 俄 集除外) 개국이 의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單院制는三八、兩院制는 四九개국이다.

兩院制의 중요한 나라는 英國 美國、프랑스、日本、伊太利、西獨、핀란드、소련등이며 單院制는 自由中國、泰國、파키스탄 등을 들 수 있다. 韓國은 第二共和國에 兩院制를 채택했다가 第三共和國 憲法에는 單院制를 채택하게 되었다.

一九二七년에는 六二개국 의회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單院制는 一八개국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에 「덴마크」와 「뉴지랜드」가 兩院制에서 單院制로 전환했다.

나의 反共詩



朴 琦 遠

<詩 人>

북괴의 침입으로 인하여 발발된 六·二五전란으로 말미암아 그 악착스러운
공산도배들의 포악한 만행에 짓밟혀 원통하게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一
三만六천이라는 놀라운 숫자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조국의 장토를 위
하여 공산도당과 싸웠고 자유의 수호를 위하여 끝까지 붉은 마수들과 대항하
다가 마지막엔 값있는 피 한방울과 살 한 점을 아낌없이 조국에 바침으로써
정의에 대한 민족의 정신을 부른우고 멸공의 기백을 함양한 승리자들이었다.
그때의 분통하고 치욕이던 피난생활의 뼈저린 원한이 그대로 문학이 되었
던시(詩) 몇편을 적어보므로 하여 반공의 정신을 다시 또 새롭게 하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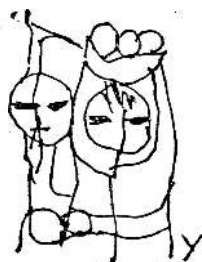
廢墟에 돌아와서

(還都直後) △拙作▽

아비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수두룩 까놓은 농우리마저

낙장송 꼭대기에 남겨둔채
팔간 독사의 이빨이 징그러워
새처럼 울적 떠나간 사나이.

가다가 땀개칠 생명의 파편을
차마 못들어 찾아든 낯서른 할부



反 共 詩

어느 바위틈에 죽지를 쉬이던
 을분처럼 날아오는 불팔매에
 꿈은 들사슴마냥 위태롭기만했다.

악물고 참아오기 실로 세해
 이제 지친 향수의 조각을 모아
 애탈게 돌아와 보는 옛것
 장송은 붙어져 흔적이 없고
 깨어진 질항로엔 불마저 꺼졌는듯
 허무러진 불담밭엔
 아비의 백다귀 어미의 백다귀
 아 어이하리 어이하리.

내 지금 스스로 마음하오
 푸른 창공엔 쉼없이 나태를 털코
 터져라 소리쳐 노래하노니
 구름아래 깔린 허연 피위위에
 아 한그루 장송이어 푸트라.

△一九五三年 환도직후 刑政誌 九월호 所載▽

反 共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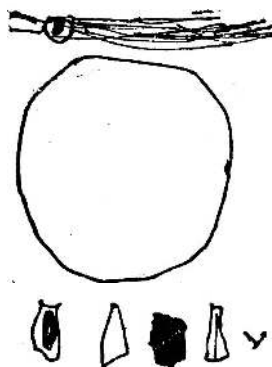
念 題

(還都後 敵愾心이 불타는날) 〱拙作〱

기여이 아껴온 도성이기
하늘이 가을처럼 푸르다
무심코 들담을 헤치면
저기 녹쓰른 파편하나.

엄청난 분노의 기록이었기
오랑캐 피아직 끈적이고
가만이 눈잠으면
가슴을 찢는 벽력 소리.

잡초가 치욕처럼 커간 폐허에서
슬픔을 복수함의 색이본다.



反 共 詩

피 흘려 강산에 꽃밭되어도

의토써 싸워온 민족의 혼이여니

모라 더 천창검 번득이는 정기밀에

복진을 고향치는 용마의 들래임을.

화만치면 내달을 짙은 얼굴들이

푸른 별밀에 찬꿈이 바쁘다.

옥야 친러 남북걸 티는 날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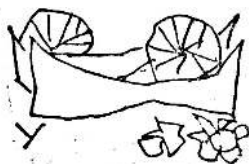
함초록이 은들판 통채로 내 것이니

이젠 우리 아무 앙탈도 잊은채

그저 소처럼 말없이 살고만 싶다.

△一九五四年 六月 義勇誌 창간호 所載▽

이러한 反共노래가 있었다



하 중 희

<HLKA音樂係>

세계 제 2차 대전의 종결은 조국광복의 기쁨을 안겨준 대신 소련의 정치적 야욕은 출저에 한반도를 친리품으로 생각한 나머지 마침내 비운의三八선을 그어 놓기에 이르렀다.

하늘도 하나요, 땅도 하나요, 민족도 하나인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오직 평화만을 사랑해온 백의민족은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처럼 고운 인정이 오손도손 즐거운 삶의 노래를 불러왔다.

그러나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가꾸어 놓은 이 땅에 나도 아니오 너도 아닌 붉은 무리들을 이리베처럼 저 북녘땅을 마구 짓밟아 놓으므로써 민족비운의 역사가 악몽의 주름을 잡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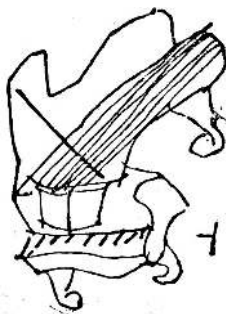
三·八, 六·二五, 一·四, 이것은 무슨 수자를 셈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 수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모두가 슬픈사람들의 일기라고나 할까……

三·八선이 그렇고 六·二五전란이 그렇고 一·四후퇴가 그렇다.

모두가 십여년간의 거치른 물질속에 입은 상처였지만 닳없이 흘러간 세월 속에 이제는 옛날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인류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었던 六·二五참변은 공산주의 침략의 야욕을 폭로했으며, 평화를 사랑하고 전인류의 규탄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동란처럼 동북상쟁의 참혹한 진화를 초래한 예는 없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랴! 소련 공산제국주의의 수구들로 이루어진 괴뢰집단의 끊임없는 파괴공작과 불법침략으로 강토와 삼천만 동족을 소련에 예속시키려는 음



反 共 노 래

모에서 맺어진 결박이 그것이었다.

평화스런 잠에서 깨어난 우리들은 그로부터 공산주의의 무자비한 비인도적 만행,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지각한 그자들을 송두리 채이 강산에서 없애버리자는 힘찬 맥박은 고동쳤다.

音樂家도 美術家도 詩人도 모두 호흡을 같이해서 反共 滅共 勝共의 기치아 태모였던 것이다.

공산국을 부찌르자! 오랑캐를 부찌르자! 너도 나도 외치는 구호는 운가에서 각목에서 등요에서 그리고 대충가요에까지도 물결쳤다.

一、 뭉치어 한덩이된 민주의 세계

외치고 부르짖는 자유와 평화

태양같이 빛나는 정의의 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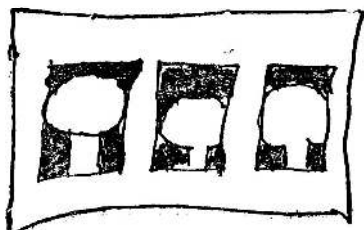
꺾이라 부절라라 반역의 무리

후렴 골수에 사모쳤다 민족의 비원

나가지 반공통일 구국의 길로

二、 조국의 남북강산 피로 불들고

내동포 죽유속을 헤메는 오늘



反 共 노 래

뛰쳐나 건너면 이 그가 누구냐
손 들고 맹세하라 앞을 나서라

三、 우리는 땅도하나 겨레도 하나

나라도 하나 오직 하나뿐이다

원한의三八선을 박차버리고

새역사 바퀴를 떠밀고 가자.

이 「반공통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反共 滅共 勝共으로 통일의 길
을 향해 정신무장을 굳건히 해온 것이다.

멀리고 쫓긴듯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남북에 갈려 있는 형제들 지금은 생
사조차 알지 없는 친구들.....

나만 고향산천을 눈앞에 그럴때마다 떠오르는 어린 시절에 부르던 노래를
합창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 바라면서 힘찬 재건의 메아리가 여울지는 오
늘의 밝힐런 보람으로 영광의 날! 민족의 영광을 노래하는 너와 나의 굳은
신념을 모두어야겠다.

수 필

五년간의 이야기

심 수 명

△공군대위▽

내가 공군본부로 전속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서투르고 분주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도 언덕에 싹터나던 나무들이 어느새 수직은 아가씨처럼 가을 바람에 얼굴을 밝히기 시작했다.

—대위 심수명 편 공중근무—

지금 보고 있는 특명의 이 한줄이 참밖에 찾아온 계절을 느끼게 했다.

올봄에 본부로 오면서 심은 식목일 푸라타나스 잎이 투명해진 하늘에 어울리는 색조를 띄우고 있다.

경비행기의 야무진 폭음이 비행장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옥상에 올라서서 이 일 저 일 비행기 타던 직업의 5년간을 생각해 본다.

관측사 교육을 받으며 사천 비행단에 부임한 것이 5년전 초저울의 일이다. 같이 간 P나 나나 대진의 구대장 경험본

인신업 중위라 두서너달은 정신의 반만을 가지고 산것이 분명하다. 수많은 훈련기의 이착륙 폭음과 「Yes」 「No」만을 말하라는 직수상관 빨간 마후라의 역행 상급자들 틈속에 끼어서 반정신은 이미 잃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六개월의 교육이 전부 끝났을 때는 버럭 소리질러 대화하는 비행단 폭음에 호감이 가고 있었다.

철학이란 것이 비행장에선 너무도 사치한 학문이란 이유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

어느 비행학생의 장례식이 끝난 저녁의 일이다. 전주 시내의 친한 음악실에서 장송곡을 몇번이고 되풀이 하여 들으면서 자신을 잊어 보려던 나에게 낮모르는 조종사가 어깨를 치고 백주침으로 끌고가 남자들의 폭음을 가르쳐 주던 그 소령의 배도가 비행단 인성의 축소라고 느껴졌었다.

그후 서울로 올라온 것이 일년 후의 일이다. 우리에게 맡겨졌던 임무는 주로 동부 산악지대를 중심한 지형관측 훈련이었다. 사진과 좌표로 지시받은 지점을 관

측하는 임무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엔 언제나 흥분한 기분이다.

출격했던 전투기들이 앞쓰를 추면서 돌아왔다는 전제때 얘기는 너무도 그럴수 있는 일이다. 태백산맥의 초가을이면 높은 봉우리에 단풍이 든다. 이 높은 가을의 꽃이 차를 계곡으로 번져 되면 높은 봉우리 위엔 도하나 새로운 계절의 손님이 내려 앉게 마련이다. 이때쯤 시골친인 소풍가는 때때옷 행렬이 늘어난다.

이렇듯 계절은 눈으로 느끼게 되었고 공간에 대한 관념이 전방지게 변화해갔다. 고도 7천, 장승까지 몇분, 춘천까지는 몇분하는 식으로.

이러는 동안에 나는 가끔 생경있는 조국 땅을 의식하곤 했다. 높은 산은 골짜기요, 넓은 평原是 근육이다.

호르는 강은 정맥이요, 마을마다 연결된 도로는 동맥이다. 그 속에서 나는 다정한 고향 땅 한국의 호흡을 들으며 살았다.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해군함과와 공격연습을 하는 임무는 공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었고 무한한 바다의 침묵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강능은 전쟁때의 공군과 같은 인연을 맺은 도사다. 이곳이 우리 임무의 동해안 중심지 오빌 포인트(Ochi point)였다. 강능엔 체포대도 유병하지만 공군의 전설이 일품이라고 한다.

○ 내내장과 동승하여 강능에 들어서면 저은 소나무 밑에 깃든 옛말까지 소개해주었다. 이곳 강능에서 북으로 五분이면 내가 자란 고성 금강곡(金剛谷)이다.

山

金 錫 喆
△空軍兵長▽

산

별정계 벗겨진 알몸들이 인제 피로 울먹이는 파파한 가슴을 열다.

타게 되는 황토 일꾼은

파스란 계절의 源泉을 어디에 놓아두고 저리서 러운 姿勢인가.

千年 읊스배한 孤獨이 살고

떠난지 十五년이된 고향이다.

사변때 모두가 부쳐지고 풀만이 무성했다. 이는 야기는 전해 들었지만 나는 아직 도 어릴날의 고향을 그려보고 있다. 모형 비행기를 띄우면서 하늘을 배웠고 하늘 높이 떠다니는 비행기를 보며 내장내 줄 꿈 꾸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비행기를 다는 직업인이 되었다. 남강과 적벽산 언덕위를 비행하면 서 나는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생각했어

구름이 나고 사슴이 우는 고향.

이제

너부도 먼 清新한 하늘일랑은

안으로만 질누하면서

한줄기 意味깊은 뜻이라도 기다리는 것

일까.

아아

山아 山山.....

그러다가 마침내

파아란 바람 알알이 나뉘를 퍼는속에

昌成하여 和暢할 未來가 있느라.

(기교단 항공병학교)

야 하겠는가.

강능에 서북으로 五분!

가지 못하는 고향 五분의 거리.

이것은 이미 개인 이전의 슬픔이다.

앞으로의 소년들이 이런 슬픔을 모르고

살도록 할 뚜렷한 의무를 내가 느끼고 있

기니. 명공 필승의 신념을 다시 한번 다짐

해 보는 것이다.

금강의 봉우리 봉우리들이 하얗은 변화

물초 일하여서 불상같은 자태로 호미하게

서 있을 뿐이다.

나는 또 보람찬 대일속의 일원이었던

일을 생각해 본다. 五, 一六 군사혁명을

저지하는 공군 사관생도의 시위행진을 호

위 비행 하던 일이다. 현장에서 총신되는

중계방송을 들으면서 웅장한 대일의 상공

을 날아올때 우리 편대의 동차하나 하나

를 중계하던 아나운서의 열띤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부패와 부흥을 무너뜨리고 조국의 장래

를 기약하여 일어난 부사들!

페기에 친 늑대한 행진이 었다.

홍분과 열망속에 가슴 베풀었던 五, 一六

그 후 날로 반신하는 수도 서울의 모습
이 여기저기 빈적었다.

없어진 체계천 위로 달리는 자동차들,
웅장한 보습의 장총체육관, 서울의 밤을
질서있게 장식한 가로등과 비온물.

이렇게 문명화한 외국의 도시가 서울로
서울로 옮겨져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비행사고현장을 수색비행하다
순직한 W대위의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
서늘함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그가 5년을 같이 지나온 동료중의 유
일한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와 내가 같은 비
행기로 비행하였었는가?

언젠가 자기 애인에게 썼노라는 편지초
를 보여주던 일이 되살아와 내 마음을 직
서운다.

—속아 너 이 포근한 구름의 평원에 오
라. 이 아늑다운 신의 낙원에서 우리 한
제 뛰놀아 보자. 제발 내 하이일은 벗어
버려라. 이 은색의 비단 구름에 뽕뽕 구
멍이 풀린 테니까.

아! 이 멋진 구름산을 보렴.
우리 여기서 슬레잡기를 하자. 너는 눈

을 가리고 나는 배 등뒤에서 통통한 땀에
임마주고 숨을 테니까……—

이 어찌 가슴아픈 옛일이 아니겠는가?
소위 중위로 몰려왔던 동료들이 이젠
소령 대위로 전진했다.

어린애를 처럼 요란스레 싸우던 차사주
기 운동시합이 머뭇과 웃음과 낭만을 승
화시키던 「크리스마스 파티」.

이른은 모르고 실천만을 알면 그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흩어져 새로운 직장으
로 영전하여 떠나고 있다.

부디 이디서나 자기들의 내일과 조국의
장래를 미화하면서 다행한 나날들이 계속
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렇듯 많은 옛날들을 삼키고 5년이를
려갔다.

공군본부로 온지 6개월이 되는 오늘날
는 공중근부 해임을 명받았다.

어느때에선 출가분한 마음이 들기도 한
다. 눈아래 여의도 비행장을 내려다 보면
서 나는 더많은 옛인들을 하나 하나 생각
해 보고 있다.

어떤 대목에선 눈감고, 어떤 대목에
선 싱겁게 웃어본다.

비행장에선 육중함 수송기의 이륙 폭음
이 요란하게 들려온다.

앞으로는 부지런한 청성을 배우던 사
료운 업무에 성실하겠다는 자오를 다짐
해 본다. 5년간 六〇〇시간의 관측사생
환이 이제는 끝나 버렸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비행생활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옥상을 내려선다. 짙
은 소매 밑으로 찾아드는 초가을을 만져년

서 나는 이렇게 중얼거리려 본다. —지금쯤
높은 봉우리엔 단풍꽃이 피어나겠구나.
인제 또 가을날이 있을까—라고.

女子가 사랑을 吟 때

金 榮 泰

〈詩 人〉

一년전 사상계 잡지에 어느 공군장교하
분이 불란서에 공무로 갔다가 과리저엔느
들의 여더가져 생태(生態)를 카메라에 포
착하고 일부분은 사상계 지상을 빌려 화
문(畫文)형식으로 화보(畫報)를 만들고
한번은 공보관에서 전시를 가진 인이 있

었다. 주로 파리에 사는 파리지인은, 파리지느의 사랑의 대화, 모습, 고독, 기다림, 희열(喜悅) 같은 것을 예리한 카메라의 각도로 묘사(描寫)한 것이었는데 그 주제를 한말로 붙이면 「女子가 사랑을 할 때」로 일관할 수 있다. 그 분이 미혼이었거나, 혹은 로만티스트인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의 여려장의 「스노」속에서 우아(優雅)하고 향기롭고 감정적인 총용의 포말들을 침사리 발견할 수 있었다.

「女子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영화제목도 같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가장 인생의 감미(甘美)로운 시간이 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 「W. 막시모후」가 그의 소설 「그때도 인간은 산다」를 집필할 때 이런 문장이 있다. 「……그 여자의 손이 장난감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이유없는 일이다. 아니다 라고 여자가 사랑을 할 때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무시될 수도 있다. 단지 흘러가는 시간의 간회, 순간의 변화, 그리고 조용하고 순결한 사랑을 가진 뿐이다. 남자가 동(動)이라면 여자는 정(靜)이다. 사랑도 그렇다. 남자는 동적이고 외향적이

지만 여자는 정적이요 내성적이다. 나는 가끔 「베비」(내 애인의 칭호)를 만날 때마다 여자가 사랑을 할 때를 감지(感知)한다. 그의 웃음은 브드러울고 마치 비단처럼 그의 목소리는 실생활의 어두운 단면이나 구석을 말할 때 주고 남음이 있는 것이다.

여자가 사랑을 할 때는 여백(餘白)이나 질투나 격화된 감정, 고민의 일련들이 모두 해소된다. 그 시간에 충실히 하고 조금의 지하고 절반쯤은 남자를 신뢰(信賴)한다. 아니 아주 신뢰하는지도 모른다. 여자가 사랑을 하고 있는 증거다. 때로 여자는 남자를 악마나, 사기꾼이나, 무죄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상념들은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부터 차츰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공군 장교님이 써온 여려장의 「스노」속에 파리 「세느」장소에서 위로 높은 담장을 배경으로 하고 속삭이는 연인들이 앉아 있다. 담장이가 위로 올라가고 연인들이 앉은 호수 옆에 여자의 힘이 놓여 있다. 남자는 바바리 같은 것을 걸치고 일심히 속삭인다. 「므. 레모. 담색. 아. 파. 화.」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

장의 사진은 젊은 애인들(대학생 차림의 반 코트를 걸친)이 가로수가 많은 거리에서 황혼에 입을술을 대고 있다. 마치 높은 나무의 두리위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새들 같다. 한 노파가 웃으면서 응시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역시 개방적인 나라요 남녀의 사랑이란 이렇게 자연스러울수록 한층 인간의 본연을 보여주는 것 같이 브러운 것 같았다.

한 사진에는 「메트로」라고 쓴 「스메이」앞에서 차크·타이트를 입은 여성이 시계를 들여다 보고 있는 장면이다. 모두 사랑을 주제로 해서 마치 「사랑의 본질」같은 단조하고 파스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있었다. 사실 사랑이란 시(詩)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사랑하고 있는 행동 께속을 울리는 만, 서로 응시하고 있는 눈, 그 눈의 무언(無言)의 언어들은 모두 살아있는 성실한 모습들이 라고 볼 수 있겠다. 「베비」를 만나기 전에는 늘 자정(子正)을 진조하게 보냈다. 밤은 비평(批評)의 시간이고 생략의 순간이 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의지가 없는 밤은 삭막하고 울쳐년 스러

귀영

유수남

△공안병장▽

황혼이 질어가는 무렵

시간에 쫓기는 바쁜 마음을

일요일 오후!

귀영시간이 다가왔다.

함께 지쳐 맛없이 내뱉는

차장의 안내

「의전 동촌 반야월 가요」

귀영하는 군인들로

꽤 드러찬 비좁은 배쓰

시청일구 동인로타리

차안은 갈수록 비좁아 졌다

「아이구 사람은 하나도 없고

군인만 댔네」

큰 고개에서 승차한

어느 할머니의 말

「군인은 사람 아녜지요?」

젖곳은 천우의 반분

차안은 한바탕 웃음이 지나갔다

「아양표 내리소」

황거미가 누리에 깔리고

길 양편의 교목이 된 포푸라에도

어둠이 짙게 걸려있다

「몇시죠?」

「八시十分입니다」

「아직 四十분 남았군」

회끄무레한 모습들

여기

조국을 위하여

몸과 맘을 바치는

수호신들의 안식처

이름하여 내무반

성스러운 보람의 터전들

찾아가는 마음엔

의미모를 안식의 기꺼움이

것들이 있다.

「유병장 반장님께 용무

의출중 이상없이 귀영하였읍니다.

귀영전화 五분전

△七항보 감찰관실▽

운중정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때 쓰시
가 내 생활을 단적으로 말해 주기도 한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의 감정
적인 표현의 반영이다.

사랑하고 싶은 日曜日 子正에
나의 身體는 밝아온다.

音樂은 나직한 傾斜를 유지하고
하부의 은 言語들을
빈싯트로 골라내자

세계의 사람들은 日曜日 子正에
全部들 貴한 사랑의 말을하고 있다.

거리의 나무들도 따뜻하게
몸을 기대이고 있듯이

全部들 貴한 사랑의 말들은
꽃으로 변한다.

어떤 속삭임은 이 순간에
詩가 된다.

내 房의 純粹는

차라리 矛盾으로 떨어져는 日曜日 子正

사랑할 對象도 없이

가장 사랑하고 싶은

허전한 나의 身體는

일제히 癡癡을 일으킨다.

여자가 사랑을 할때... 이때는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고 싶을 때다. 따뜻한 방

따뜻한 시. 그리고 무언으로 미리 칼을 맞

대이고 싶을 때다. 가을이 이 적은 세계

속을 지나가는 바람결 속에서!

碧空의 片想

金玉南

〈家庭主婦〉

타는듯한 싸투리의 다홍이 차츰 스러

질 무렵이면 하늘은 어느듯 적도 아득해

지고 또 몹시 진부는 탐음을 지닌다. 비

룩과 같이 내 몸과 마음은 어느 季節을

찾아 멀리 솟구쳐 치웃아만 가고 이제 나

는 다시 뒤엎은 表情으로 그러나 마음엔

무엇인가 充滿한채 이렇게 앉아 하늘을
우물어고 있다. 오늘날도 바삭 소리 날듯
한 바람이 가볍게 불고 태양은 아직 따갑
다. 그토록 살갓을 不快하게하던 雨期는
잊혀진지 오래다.

새벽엔 서늘해서 숨이 불을 손질했것만
장독대에 바삭 드러왔은 벌은 이마에 탐
방울을 촛게한다. 어디서 비가 익어가고
발구석의 다홍 고추가 늙어나나 보다. 北
岳山의 뭇그림자가 차츰 내房 유리窓에서
두렷해지고 흔어진 싱터가 서늘히 눈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또 연대를 잡고 실을
풀기 始作한다. 묵인 실은 보이지는 않고
연이 아득한 하늘을 向해 헤엄을 친다.
공연히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두손
은 덕을 고이고 눈길은 끝없이 하늘을 쫓
는다.

내 마음에만 잠시 寂寞이 깃든다.

『엄마!』하고 밖에서 퀴어드는 아이들
의 부름이며 구르는 車바퀴소리가 나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두지는 않는다. 허지
만 이런 마음의 不連續線을 타기에 익숙
해진 나의 年輪은 어떤 部分엔 무의
어졌는지 그때로가 버운 마음으로 하늘을

웃음을 알게 되었다. 붉은 점이 나의 눈
을 끈다. 나는 한번 눈을 비볐다. 다시
한번 비빈다. 分明히 붉은 것이다. 실에
뭉이어 끈게 오르는 연은 아니다. 마구
울랐다. 내렸다 또 흔들렸다 하는 풀이
손에 쥐어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 날아
나의 눈길에서 벗어나 버드니 바람이 가볍
게 일어나지 눈에 들어온다. 風船이다.

붉은 風船인 것이다. 일만한 것인지 또
아주 동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가볍게 가
볍게 바람을 타는 것이 어디선가 꼬마 主
인의 손을 벗어났음이 分明하다. 아나
이 수룩한 구멍가개 할머니의 손길에서 벗어
났는지도 모르겠다. 나와같이 질푸른 하
늘이 그리워 떠올랐는지 저곳저도 많은
가을 바람에 타고온 風船은 浪漫이 아닌
鄉愁를 실었다. 내 마음은 少女같이 이를
벗힌 풀실을 헤치는 童心으로 저 風船을
탄다. 붉은 風船이 어찌면 이렇게도 보
랏빛 푸른 鄉愁를 빛어내는 것인가? 멀
고 먼 옛 가을 하늘이 내 마음에 되살아
온다.

보리 이삭이 깨 무거워진 때였으리라.
그러니 깨뚜기가 서늘에 되곤하였다. 마

구간 조약들이 잘린 길을 나는 뵈고 있었다. 아무것도 살필 겨를도 없이 나는 그저 되고 있었다. 조약들이 잘린 그 길은 나의 발을 쉽게 뒤흔어 버린 않았다.

조급한 마음이 울고 싶었다. 밤바다의 아무진해에 잘 뒤흔어 버린 않았다. 짧은 단 말 머리가 이마는 밤에 젖어 붙었고 뒤는 그런대로 바람에 날렸다. 이렇게 '친로' 가 넘는 길을 뒤흔어 집어간 나는 와락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겨우 점심을 먹었으나 하니 하는 짐사람들의 눈을 후궁구렇게 하고 그레도 알아 쉬지도 못하고 나의 적은 책상에서 붓을 꺼내들고는 눈물도 못 씻고 돌아서 나왔다.

『에! 원일이냐?』 하시며 영문을 몰라 애처로워 하시면 어머님의 모습, 나는 또 마구 뛰었다. 學校門을 들어선 나는 그제야 비로소 내가 가슴에서 몹시도 소리내어 뛰는 心臟을 느낄 수가 있었다. 붓을 들고 조심스레 教室門을 들어선 나는 일제히 나에게 쏠리는 級友들의 시선을 몸으로 느끼며 가법계 선생님께만 人事를 하곤 내자리로 갔다. 앉긴 앉았으나 머릿속은 如前히 뛰는 것 같이 비가 마구 추구치

는 것 같고 얼굴이 달아 오른다. 그러나

흔히 모든 다른 것들은 準備되어 있는 벼루의 모습을 같았다. 그리곤 칠판에 써 있는 오글 練習紙를 꺼내 베껴서 몇 번이고 썼다. 練習紙인 新聞紙가 낱게 되도록 써야 한다고 커가 많도록 쓴다는 習字 期間이었기에 나는 까맣게 썼다. 勿論 다른 동부들보다 오늘은 半도 練習을 못했으리라 그레도 어느 程度 인후해 저자나 는 硯半紙이다 淸書를 썼다. 하나를 敎車위에 淸書를 해다 내놓는 아이들이다. 오늘은 비장한 마음이 내 손을 더 멀게 했다.

나는 熱心히 淸書했다. 다른 어느 時間보다 한자 한자에 힘을 넣었다. 마음은 아직도 울고 싶었다. 그때 그 日本人先生은 좀 지나치게 嚴한 것 했으나 卒業에 퍼나를 커여워 해주는 모두가 존경하는 女先生이 었다. 또 習字엔 좀 自信이 있었던 나는 習字 時間이 싫다고 느낀 적은 없었고 오히려 그 時間이면 기를 더 뒀었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習字 道具인 붓을 잡아 있고 집에 든 채 온 것이다. 前에 없던 일이었다. 國民學校學生이면 흔히 하듯이 그 前날 밤이면 으레 모든 準備을 하고

確認을 해서 내리말에 두교자는 벼루의

나에게도 있었다. 分明히 前날 밤은 것으로 알았던 벼루가 그대로 집의 책상 위에 있었던 것이다. 요사이와는 달리 嚴했 던 그때는 그런 道具를 있었을 때는 짐의가서 가져오는 것이 常識으로 되어 있었다. 習字 時間이 되어 당황한 나는 붓을 가져 오겠다고 先生님께 말했더니 뜻밖이타는 表情이었으나 例外는 없었다. 그리고 曠사십년은 눈들이 나와 선생만을 지키고 있었으며 많은 눈이 흘러면서도 어딘가 호기심에 차고 그리고 잠겼다. 하는 눈치

있던 것으로 記憶된다. 그리하여 이를 아물고 나는 그 시골길을 험한 줄도 모르고 달렸던 것이다. 그리질래 나는 또 벼루를 들여 써 냈었다. 어쩌다가 車가 지나가면 또한 먼지가 사정없이 일고 누르러가는 벼이삭과 파수수며 밀밭이 양 옆에 있을 뿐 나무 그늘조차도 찾을 수 없던 그 길은 벼이나 밀고 못속을 스치는 공기는 유난히 달랐었다. 구름 한점 찾을 수 없는 하늘의 햇빛은 한 여름보다 나에겐 더 뜨겁게 느껴졌다. 미칠을不快한채 그 習字 時間을 잊지도 않았는데 어느날 朝會 時間

에 校長先生의 呼名으로 나는 몇몇 上下 級生의 校友들과 함께 앞으로 불리이 나 갔다. 道에서 主催하는 習字大會에 뽑히 었다는 것이다. 우리 學年의 代表가 된 것 이다. 前日 習字時間의 淸書가 이번 選拔 의 키가 된 것을 알게 된 것은 월선 後日 이다. 그러곤 몇일 後 우리는 各學校 代表 들이 모인에서 正말 試合을 하게 된 것이 다. 나는 그 大會場에서도 원지 그 붓을 잊고 갔던 習字時間의 感情이 생자났으며 붓에 힘이 절로 갔다. 全力을 기울려 나는 그날의 글귀를 썼다. 그날 잊고 갔던 바로 그 붓이었다. 그리곤 가을도 깊어지 때 때 로 지곳은 회색하늘이 단풍조차를 붙아치 는 바람을 비와 함께 신고와 옷깃을여미 게 하고 習字大會에 對해선 거의 잊고 있 을 무렵 나는 아주 맛있는 六, 二五前까 지도 내가 지녀오던 그 벼루통과 함께 特 賞을 탔던 것이다. 나의 마음엔 그 푸른 높은 하늘이 되살았다. 이제 거의 건히 어진 눈두막에 벼루만 남았지만 그 목 질하면 벼이삭이 되살아 오른다. 特賞을 탄 그날의 글귀 『가을바람 푸른하늘』 비 록 日本말이었으나 그 글귀와 더불어 그

날 붓을 잊었던 가을하늘이 잊지실 않는 다. 單純히 入賞만을 기뻐할을 앞던 그 마음! 그리고 구름 한점 없던 그 파저운 햇살 조약들이 지평면 아른발! 조금하여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도 못했었지만 지금나 마음엔 그때 그 하늘이 유난히도 푸르 게 유난히도 맑게 또 눈계 記憶된다. 나 이가 먹고 먼 少女時節이 마음은 깊어 파 묻히어 지 靄空이 보다 浪漫의 이고 보다 분홍색이 아닌 이런 鄉愁가 짓드는 것일 까? 어떨는 그 가을별이 獨特한 파저운 햇살로 들관을 덮고 하늘이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의 맑은 푸름과 높음 을 지니면 나는 그 어린 時節의 티 없던 기쁨과 함께 큰 자랑도 못되는 그 붓을 잊었던 일이 옅은 흔자만의 微笑와 함께 鄉愁를 가져다 준다. 지금 나는 나의 房 에 앉아 있다. 그 먼 前日의 나의 공부房 이 아닌 이 집의 가장 中心인 ㅁ房이 나 의 房인 것이다. 붓을 잊어서 그토록 두 근거리면 나의 가슴의 벨이 이제 다시 울 리었고 그 처은 賞이 그토록 나를 기쁘 게 하면 벼찬 感情이 다시 울것 같지 않 것만 그 하늘은 다시 드높이 담게 두르르

며 햇빛은 화사롭다. 그러기에 鄉愁는 밀 물처럼 나의 가슴에 스며드는 것이다. 記 憶의 빛같은 차츰 靄色하렷했지만 鄉愁는 보다 뜻은 보랏빛을 띤다.

『엄마! 연잘오르지』 서부는 달서로 소 리지르는 네살난 아들녀석의 소리에 나는 동 뒤를 보며 먼 前日의 가을 날의 실낱 을 뚝 끊는다. 그리곤 나의 손으로 가꾸 어진 작은 庭園으로 아이들에게 끌리어 나간다. 해바라기가 짙은 노랑색을 더욱 빛내며 해를 쫓고 있고 너무도 붉은 색이 눈길을 물리게 하면 싸루비아는 한볼 갖 으나 아직 그 짙은 녹색의 잎과 함께 밝 게 피고 있다. 유수가 알알이 모두 버져 서 眞紅빛씨가 드러나 노란 껍질을 부색 케 해준다. 국화가 망우리 졌다. 쑤세미 가 넝쿨에서 너부 부겨워졌다. 맨드라미 는 까만 씨가 앉았고 파는 자주, 분홍, 드문 된것, 연분홍이 亂發하여 한창이다. 씨가 좋았던지 접점이 피어 하지않은 菊 花보다 훨씬 찬란하다. 봄엔 焦急한 마음 에 立春이 채 넘기도 前에 씨들을 뿌려 놓고는 늦은 눈보라와 찬 바람에 일이 불

있을까 점이 나서 며칠 잠을 못 자기도 했다. 또 겨울을 求해다 오줌과 섞어 겨울을 해선 그 저독한 악취도 모르고 주긴 했는데 너무 질어서 죽으면 어쩌나 念慮가 되어 그 밤은 잠을 깊이 못 잤다. 아마도 이렇게 小心해진 것은 내가 이미 두아의 의 임마가 되어서 일까? 이럴때면 그單純하면 眞童心이 그리워진다. 하긴 그토록 애태웠던 값으로 모든 花草가 절적한 땅마는 因緣이 먼 우리 석벽의 庭園에서도 倍키가 크고 꽃이 일렀다고 自慰도 해보지 않는가? 아이들은 그 지 꽃사이를 누비며 뛰고 좋아한다. 바람이 차지도 않고 더울지도 않으니 맘껏 뛰게 하여줘야겠다. 現實이 꼭 고달파서가 아니라도 또 現實이 꼭 不滿해서가 아니라도 前日의 季節의 鄉愁나 마음의 鄉愁는 사람을 追憶의 世界에서 즐겁게 해주고 또 어떤 面에선 眞實된 슬픈 즐거움도 알게 해준다. 人間世界는 相對性 原理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거나 孤獨이란 決코 혼자 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群衆속에서 느껴진다는 말이 「健全한 鄉愁나 追憶은 보다 現實을 誠實하게 살찌게 한

다」는 것을 充分히 理解할 것 같다. 저쪽 사이를 누비며 저은 庭園이 나마 즐기는 아이들의 가을 살이를 잘 準備하는 充實한 임마이면서 나는 또 닥아올다음의 가을을 그 질푸른 맑은 하늘을 가버운다음으로 화려하게 맛기 爲해 꽃씨들을 걸우어 드릴 봉투며 또 球根을 걸우어 넣을 앞맛은 교장이며 그리고 짧은 期間이나 마에세 가운 밋심개의 화분들을 爲한 越冬準備를 쟁겨야 하겠다. 北岳山 그림자에 땅거미가 진다.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였다. 하늘은 더 맑아졌으나 서늘해지고 연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쫓긴 꼬리며 동강이 仲天에 떠 다닌다. 바람이 좀 무겁다. 가을의 曠空은 참 즐거움이나에 어떻게 나에게 일깨워 주고 그러도 더 부르게 높아 만장다. 그리곤 다시 來年엔 또 찾아드는 것이다. 슬픔이며 즐거움은 가장 가까운 것이다. 길은 저 속에선 맞닿아 있는 것이다.

명량한 명성 생활

이룩되는 전력 강화

日本 國民性의 이면과도 비교될 만큼 잔손재주에 능난한 日本 科學者가發明하여 노벨 科學賞까지 타게 했다는 이트란지스타가 近東은 勿論 世界的으로 아니 지금은 바다 건너 우리네 상가의 윈드우에 잔뜩 진열된 것을 보면 유행의 물결따라 번천해가는 世上事가 꼭 재미 있다고 하겠다. 國產 트란지스타의 몸은 벌써부터였고 웬만한 가정에선 電氣用 代身이 트란지스타를 소유하지 않은 가정이 없다시피 일반화 되었다. 하기가 간편하고 電氣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전진지만으로 代用되니까 심사리 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야외로 갈때나 운동경기장 중계때의 便利點이나 정전(停電)時는 물론 그 외에 잔편하고 유익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란 것은 누구나가 다 이해할 것이다. 얼마전 매월 봉급에서 淸순히 하여 모은 돈으로 平素 그렇게도 열망했던 이트

트란지스타

오 윤환

〈공군병장〉

란지스타를 사기 위해 어느 상가의 진열
장 앞에서서 이런형 저런형 가격의 차이
동한정 눈독을 올리다가 선풍기 마음에 내
키는 것을 골라 겨우 삼만원 금액에 낙착
이 되어 완전한 내 소유물이 되었다. 물
론 국산이다.

이 순간의 벅찬 기분은 말할 것도 없이
世上에 볼도 없는 진귀한 보물을 득점한
기분 그대로였으며 모든 방종구는 내 것
이고 방종구마다 각종 방종구로도 하나
파트리지 않고甘知할 자신과 한가할 때
나에게 속삭여 줄 벗이요 경기장에서서의
보도원이 될 것들등이 루해아릴 수 없는
利點과 친밀한 벗이 되어 주길 마우속길
이 되새였고 또한 잘 자리 들 때까지 머리
말에나 높고 들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림
으로서 약을 새것으로 잘기가 일수요 심
지어는 「트란지스타전」이란 流行語처럼
길 갈때 까지도 손아귀에 쥐고 다니는 습
성을 잊지 않았으니 미련스러움도 이만
저만이 아닐만큼 지독한 트란지스타 애용
가였고 산 이후로 한번도 내 손에서 떠나
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산저 삼개월 가까이 되어

느날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을 가 회를 얻
어 봄비는 十二열차에 올랐다. 이때도 두
말할 것없이 나의 애완물인 트란지스타도
동반했다. 지친 기차여행의 여독을 풀 겸
해서 거리에 따라 변하는 싸이클을 둘러
가며 이 방종, 저 방종을 골라잡고 가다
가 그만 졸음아닌 깊은 잠이 든 사이에
절찬치 못한 친구가 영원히 실에해 버렸
다. 아쉬움보다 미련이 미련보다 아쉬움
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 뒤
애용했던 모양이다.

그것뿐이라 내 것이면 이후까만 비로
도로 꼭 맞게 걸옷까지 입혀 후시나 다칠
세라 애지중지 손질까지 했던 것을 보면
미련이 가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원래 내 소유물에 대해선
지나친 애착과 애정을 쏟는 과격파의 성
격을 성격에 맞추진 않는다. 월간잡지
한권 사는 것과 영화 한편 본 값을 절약
해가며 문헌히 모아 산 그 돈이 아까워서
가 아니라 그만큼 그물을 사랑했었던 것
이다.

이런일이 있고난 후 타격은 막심하다.
한번은 옷저 못할 일이 있었다.

전 KA 어느 연속 방종구의 몇회짜가 되
는 날 무슨 일로 외출을 했다가 막 저녁
을 먹고난 후 급한 일로 市內에 나갈 일
이 있어 집을 뛰쳐나와 얼마 가지 않아 들
딱 연속방종구 시간이 된 것이 아닌가? 이
연속방종구는 첫회부터 줄곧 한번도 빼놓
지 않고 들은 것은 물론 스토리 전개가
치근덕스럽게 마음을 사로 잡았고 마침
그날은 그 연속극의 크라이막스라고 인정
되자 급한 私務고 무었이고 間에 어디 들
음난한 곳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구찮스
럽게도 떠들석 거리던 저리의 확성기가
그날 따라 한 집도 없다. 마치 보물찾기
라도 하듯이 이리 저리 귀를 기울이고 있는
데 다행이도 어디선가 막 그 연속극의 씨
그날 무적이 새어 나지 않는가? 위선 급
한대로 엄정고 무었이고 견지할 겨를도
없이 남의 商店 窗문에 기대어 바삭 안으
로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듣고 있었다. 한
참 열 번 표정으로 듣고 있는데 주인집에선
몇번인가 의외의 손님의 눈총을 쫓아 놓
고 「이렇게 왔느냐? 누굴 찾느냐?」고 성
화시다. 자세히 보니 아가씨만 상대하는
미장원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무안하기

이름이 없었다. 방울루에 반쯤 미친(실은 그 정도도 않은데) 내 사정을 들은 종업원이나 손님이 배를 뒤고 웃어 제꼈다. 그들은 필시 내 심정을 모를 것이다. 그란지스타를 잃고 부린 자신에게 고소를 담지 못할 만큼 넉넉스까지 부려온 것을 생가하면 한결 그놈의 생각이 잔렬하다.

이제는 트란지스타를 다시 살 여유가 금방 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 그놈이 더욱 아작기만 하다.

지금도 그 습성의 잔상인지 미련의 탓인지 라디오 상점앞을 지나칠때 마다 그 예쁘장한 트란지스타에게 눈짓을 한다. 언제 한번은 또 저놈을 내 손아귀에 넣을 것이냐고.....

(제 107기 지단 인사처)

친구야!

이 창 운

〈공관별장〉

이제 너를 향해 손을 잡았을 때도 요컨대 빛을 기쁘니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젠 집

도나지 않는다. 집이란 것은 처음 시작이 무설지 자꾸 계속되면 무서운대신 생소를 가지게 되는거다. 그러기에 함으로 슬픈 사람은 울지도 않는다는 말이 나온단도하지. 幸福한 사람이 잘 운다고 믿을때가 있는 경우가 신경질을 부린다고, 음은 발을 이다.

오늘 네 書信을 받았다.

보라, 틀림없이 네 편지를 받았다. 너도 틀림없이 나의 편지를 받는다. 世上事 모두가 주면 받는 거라지? 그렇담 우린 아직 나답할때가 아니지 않는가? 우린 現實에 아무것도 존재가 없었다. 우린 사회의 무엇을 주어야 한다. 一生을 울면서 마치고 웃으면서 마치고 그 종말의 추움은 모두 같다고 했다. 無意味은 有意味는 간에 현미 살아있는 동안의 人間の 욕망정의 파괴를 만들어 오는 까닭에 이 생명들이 무숨 하날 가리고 우는구나, 웃는구나 나도 몰라 내 지금 무슨 소릴 지겨워서 지뭇게 손을 마치고 싶고 무어라고 든소리치고 싶다.

그때, 움직이지가 온다. 저 소리 들은 바 韓族民의 苦痛의 소리야.

밤 십시 三十五分

요즘 내 탐독하는 책이 있다. A.S. 파렌(著) 希望遂成의 진이다. 이 책을 읽이 갈수록 나는 위안을 받고 힘을 얻는다. 이 책이 말하는 바를 요약한다면 「누구나 훌륭히 될 수 있다.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욕망(희망)을 강사 지내지 마라. 낙담으로 自信을 죽이지 마라. 성공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自信을 믿는 데 있다!」

이 책을 보고 나서 난 나에게 권하려고 한다.

우선 마음에 상상을 가져라. 노력은 뒤따라 일어날 것이다. 노력하라. 성공은 뒤따라 올 것이다.

구세주는 날때부터 구세주는 아니다. 그것이 역시 노력의 결과이며 그의 사업은 진화 그 마음의 그런 弄想의 實現이었던 것이다.

기억하라 우리가 무려워하고 겁내는데 것은 모두 우리 자신이 불러 들이는 것인바, 造物主는 그 죄를 만들어 놓고 부끄러워하는 바 없다. 영혼도 그 대에게 있어서라 그때는 당연히 부끄러워 할 바 없다. 神은 그 만물의 좋은 바를 음은 것이 아니라

였다.

우리를 창조하고 문명하게 하는 것은 이 심층의 힘이다.

이것은 「希望神成의 길」에 나오는 말이다.

이 시간에 너는 고민하고 있겠지? 너 뿐만 아니라 來日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인간들이.

「사회인이 되는 사회가 닥아온다. 밤도 안주고 웃도 안주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회가……」

네말 엄연한 사실이다.

네가 처음 글에 인대할때 나에게 한말 이 기억난다.

「일찍 군무를 마치고 自由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때의 네 생각과 지금의 네 생각은 차이가 있을테고 그때의 사회와 지금의 사회 역시 차이가 있다.

「빈손으로……」.네말, 누구는 뱃속에서 부터 두손에 무엇을 가득 들고 나왔는가

이런 말은 말아 달라. 自信을 가져라.

하기 싫은 것도 자꾸 하면 자연히 흥미가 분는다고 인젠가 년 말했다.

이디에다 노력하느냐고? 그 노력을 먼

저 내 열등되는 마음을 반대되는 마음으로 바꾸도록 노력하라. 앉아서 공상으로 천하를 뒤집었다 없었다 하는 것 보다 실

지로 돌맹이 하나를 던지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그렇게 느꼈다.

十二시가 다 되어가는군. 가지말라도 잘 붙잡아도 잘 시간, 언제부터 우린 초

주함을 알았는가? 이봐 무슨 즐거운 이야기는 없을까?

너무 고민말라, 아무거나도 할 그런 용

기만을 가져라. 혼잣말이야 못살아 가겠

나. 안 그러나. 응? 간단히 이렇게만 생각해 버려, 다쳐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다. 앉아서 생각하면 도저히 자신없고 열

등감만 느껴져서 안 될 것 같은 것도 실지로 당해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일을 해나

갈 수 있더라. 피로위만 말고 무엇이든 용감히 할 수 있는, 희망을 잃지 않는, 단

념하지 않는 두지와 意志를 길러달라. 十二시다. 이만 붓을 놓는다.

(제10회 평대면)

◇ 옥스포드 名譽博士號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명한 대학 옥스포드와 켈브릿지라 한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옥스포드大學이 희극 배우로 유명한 차푸린에게 명예 문학 박사호를 수여하였다. 이에 앞서 이를 반대한 史學者「트레바레」바」 교수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차푸린을 존경하고 또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예 박사호는 대학에 자가 되지고 있는 學科에 관계 있는 것을 택해야 하는 것이며 옥스포드大學에 유모이 제목은 없다」라 말했다. 그런데 차푸린을 支持하는 「비·모리스·보」學長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옥스포드 大學이 가장 존중하는 것은 常識과 유모이다」라고 말했다.

匿 名

제 四 회

林 語 堂 著

河 正 玉 譯



제 二 장 소련의 정치

자본이 점차로 축적됨에 따라 노동자의 운명은 그들 수입의 多寡를 분문하고 필연적으로 치참하게 된다. 따라서 계산이 축적되는 반면에 불행과 노동자의 고통, 노예화, 無知, 야만, 心智의 퇴보 등이 더욱 극심해진다.

— 칼·맑스 —

(四〇) 裁判 — 자기네들 멋대로 司法過程을 조작할

수 있고, 재판 진행 중에 경찰, 조사관, 검찰관, 변호사, 서기 및 刑執行員들이 事前에 이미 조작된 步調一致를 얻

보게 하는 것이다.

(四一) utes 汽車 — 특권계급만이 專用하는 호화관의 열차다.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되폐한 부르조아적 〰의 一等 汽車와 等級을 거누기나 하자는 듯이 호화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를 一等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一等 汽車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바로 소련의 政治史를 두고 한 말과 같다. 本章 끝에 소련의 정치사 대강을 엮은 〰소련 大事年表 〰를 쳐서 지난 사실로써 앞으로의 그들의 趨勢를 알아 보겠다.

그에 앞서 下記와 같은 〰勞動時計 〰를 가지고 소련의 변천이 직선적이 아니고 순환적임을 밝히고, 一九〇〇년에서 一九六〇년까지 六十년 간의 소련에서 말하는 이른바 〰革命 〰과 〰反革命 〰의 進展相을 보이겠다. 즉 一分을 一년으로 간주한 이 노동시계를 보면 그 바늘은 갈수록 결국 그 바늘이 원래의 起點으로 되돌아옴을 알 수 있다. 사실 맑스主義나 社會主義도 一九三〇년 이후로 이 시계의 바늘처럼 되돌아 그들이 말하는 소위 〰反動 〰即 右翼的인 경향으로 퇴보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맑스主義 목표표상에서 보더라도 一九三〇년을 開始點으로 그들의 혁명 과정이 반혁명적인 방향으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찰이 바로 그들이

헤겔이나 피히테(Johan G. Fichte)가 중국의 儒教哲學을 研究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名題가 反名題로 점차 변한다는 견해는 이미 儒家 및 道家에서 밝힌 바이다. 맑스는 헤겔의 辯證法을 따가지고 \wedge 두 극단의 相同相互의 透人性 \vee 이라 했거늘 이것을 道家의 陰陽圖說로써 밝히면 다음과 같다.

陰陽圖說에서, 맑스主義의 머리가 카르皇帝主義의 공무니에 묻혀 있고, 카르皇帝主義의 머리가 맑스主義 공무니에 묻혀 있음을 알 수 있다. 儒家의 五經의 하나인 \wedge 易經 \vee 은 \wedge 變化的 哲學 \vee 이라고도 이름지을 수 있는 것으로 모든 事態의 變遷을 \wedge 藏 \vee · \wedge 生 \vee · \wedge 現 \vee 三階段으로說明하고 있다.

一 예를 들면, 여름과 겨울의 消長에 대해 겨울에 이미 여름의 陽氣가 묻혀 있고 여름에 이미 겨울의 陰氣가 묻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消長說을 가지고 이제 소련의 이른바 \wedge 革命 \vee · \wedge 反革命 \vee 을 저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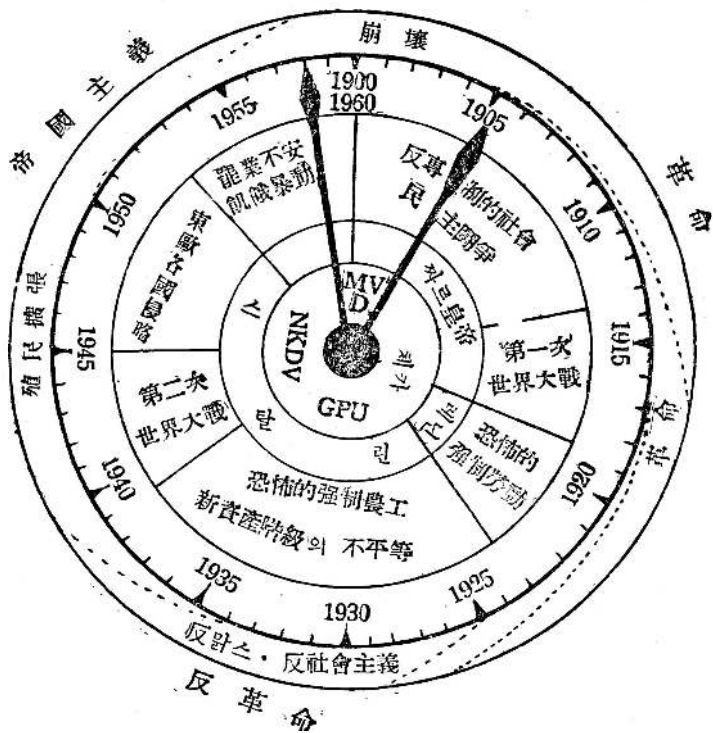
(1) 革命期: 十月革命은 소위 代議政府 · 公民權 · 勞動權 및 勞動法을 위해 투쟁한 그들 力量의 最高潮로서 그 氣勢는 一九〇五年의 전국적 파업으로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레닌이 執政했던 짧은 時期가 동시에 革命에서 反革命으로의 過渡期(勞動時計에서는 極端 \wedge 맑스 \vee

主義 때였다)。바로 이 때에 그들 소련은 革命을 외치면서 사실상 있어서는 민주정치를 버리고 獨裁彈壓政治로 기우러졌고 또한 스탈린이 勞動階級과 黨에 대해 暴政을 시행한 모든 기초도 바로 이 레닌執政期에 마련되었고 소위 \wedge 맑스 · 레닌主義 \vee 의 뜻하는 바 본질은 이러한 것이었다. 결국 \wedge 레닌主義 \vee 는 절대적 힘과 폭력을 가지고 階級獨裁를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쓴 것이다.

레닌은 \wedge 獨裁 \vee 를 다음과 같이 定義했다. (一九二〇年) 『獨裁라고 하는 과학적 관념은 많지도 적지도 않다. 暴力上的 無限度에 寄託되어 그 권력은 何物의 제한도 받지 않고 何等의 法律 또는 절대적인 법칙의 制約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견해는 그대로 레닌의 체카비밀경찰 두목 드제르진스키의 第一次 연설에 인용되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革命의 司法形成을 찾는다 고 생각하지 마시오. 우리는 현재 \wedge 司法 \vee 을 오치 않습니다.』 이쯤 되고 보면 레닌을 魔鬼라고 할 겨를도 없이 한술 더 떴다 하겠다. 하긴 그가 같은 목표 밑에서 애초 社會革命黨員들을 捕殺한 것도 역시 독재와 폭력을 맑스主義 실천상 必需로 한다는 견해에서였고 동시에 이 견해는 맑스 자신이 一八四八年 革命의 실패에 대한 실망에 基因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레닌은 社會民主黨員에 대한 迫害와 대규모의 체

(1900~1960년)



또는 그들의 혁명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인정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十一月선거에 있어 그들은 볼셰비키黨은 총수 三천六백만표 중九백만표 밖에 얻지 못했고 사회혁명당이 二천만표를 얻었던 것이다.

여기서 레닌主義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一、볼셰비키黨원이 아닌 사회주의자 또는 농민 지도자를 잔혹하게 체포해다가 投獄시켰다.

(一九一八—一九二二)

二、노동조합 탄압。(레닌의 말에 의하면, 曰: 「모든 노동자가 일체 단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당 버려야 한다)

三、스트라이크 금지。(一九二〇년, 一九二二년, 一九二二년의 黨代表大會에서 결정)

四、공장의 集中經營管理(一九二二년)。

五、非武装 勞動者의 銃殺。(一九一九年 一월 十

九일)

六、노동자와 船員의 反抗을 탄압。(一九二二년)

七、노동자들의 罷業을 잔침죄로 본다。(一九二

二년)

八、가축을 拘禁하여 人質로 삼는다。(一九二二년)

九, 반대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물론, 黨의 간부급 중에서도 반대세력은 모조리 숙청。(一九二一年)

十, 소비에트 政權의 조직에 위협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인물을 시베리아로 추방하여 강제 노동에 부역토록 한다。

그리하여 이상과 같은 밤스·레닌主義를 행동의 근거로 삼은 스탈린은 극히 손쉽게 모든 공작을 성취할 수 있던 것이다. 하기는 모든 반대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면에서 스탈린은 레닌보다 한층 더 심했다. 그 때문에 흐루시초프 역시 스탈린主義를 비난했던 것이다. 요컨대 레닌主義가,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혁명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措置▽라고 인정한 데에 비해, 스탈린主義는,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완성된 후에도 영구히 지속되어야 할 정책적인 措置▽라고 보고 있다. 이 외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레닌이 그의 저술을 모조리 죽여 버린 데 비해 스탈린은 그의 친구들마저 모조리 죽여 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이 스탈린主義는 카포네主義(Al Caponeism; Al Capone—一八九九—一九四七)는 미국의 유명한 大賊)와도 다르다. 두 가지가 다 자기네 범죄의 목격자를 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같으나 그 중에서도 스탈린은 한술 더 떠 자기의 腹心者 또는 이전부티의 친구까지도 죽여 없애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인

의 손에 의한 專制·獨裁는 결국 그를 소련이 신통하다는 謠言의 犧牲자에도 違背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들의 혁명에도 배척되는 것이다. 흐루시초프조차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스탈린같이 한 개인의 손에 의해 우리들의 정치와 사회질서가 變易되었다는 것을 인정함은 斯主義와 모순되는 것이다』라 하고, 따라서 그들의 中央委員會는 一九五六年 六月 三〇일 그 變易을 어기지 못스탈린의 개인적인 所致가 아니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어쨌든 極端謬斯主義는 반드시 反謬斯主義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二) 反革命期: 反革命 反動期는 一九二四년 레닌이 죽은 이후서부터 一九五三년 스탈린이 죽은 때까지 약 三〇년 간이다. 표면상으로 보아서는 이 시기에 소위 社會主義가 진설▽되었고 동시에 工業化 및 集團化가 강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련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강력한 武力工業國家가 되었다 하겠다. 물론 그들은 일반 생활 소비품 공업에는 그다지 발전한 점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裏面에는 노동자의 구속, 장악에 의한 생산 증가가 있었고, 더우기 일 개인의 독재로 黨內黨外를 막론하고 민주적인 면이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그들 소련이 열었던 소위 全國黨代表大會의 召集時期의 자격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단적인 민주樣式을 포기했었는가를 알 수 있다. 黨代表大會가 召集된 次數와 年代 및 間隔을 보 려 다음과 같다.

全國黨代表大會次數 召集年代 (間隔年)

레닌執政期

第六次	一九一七	—
第七次	一九一八	—
第八次	一九一九	—
第九次	一九二〇	—
第十次	一九二一	—
第十一次	一九二二	—
第十二次	一九二三	—

스탈린執政期

第十三次	一九二四	—
第十四次	一九二五	—
第十五次	一九二七	二
第十六次	一九三〇	三
第十七次	一九三四	四
第十八次	一九三九	五
第十九次	一九五二	十三

호루시츠크執政期

第二十次	一九五六	四
------	------	---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성취한 것은 重工業 방법이라 하겠다. 농업의 집단제도는 실패에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工業化 역시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네들의 社會主義 的 目的에 비추어서 이루어진 것이지, 工業建設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은 결코 아니다. 하기가 이 기간 동안에 있어 그네들이 이룬 소위 발전의 특징은 아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人間性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물론 그들 자신은 이러한 人間性을 否認하려 하지만.....

一、肅清과 審判(제四장에서 詳述) : : 人間性의 하나인 權勢慾에서 나온 것이다.

二、勞働者 拘束과 新資産階級의 興起(제五·六·七장에서 詳述) : : 特權과 安全을 享受하려는 人間性 때문에 저지른 것이다.

三、殖民地 擴張(제八장에서 詳述) : : 國家의 번영과 영광을 企圖하고자 하는 人間性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內部の敵 (上)

유 기 영



치안국 수사계통에 허(許)박사라는 총경이 있었다. 본
 론 별명이며 진짜 박사는 아니다.

허 총경은 때때로 기묘한 수사방법을 써서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하여 동료들로부터 박사라는 별명을 얻어 가지게
 되었는데 간혹 지방경찰에서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허 총
 경을 찾아와서 상의하는 일도 많았다.

한번은 B도(道)경찰국에서 기묘한 자살사건의 해명을
 의뢰해 왔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수수께끼 같은 자살이
 었다. 그 사건을 취급한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그 자살사건
 의 진모는 다음과 같았다.

1

항도, 부산에서 제일을 자랑하는 어느 호텔이.
 밤 九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에 四十一대의로 보이는 실사

가 二층 八호실에 투숙했다. 그는 종절모자를 쓰고 코밑 수염을 기르고 안경에 바바리코트를 입은 어느 회사의 중역으로 보이는 보통 키의 남자였다. 그는 작크가 달린 볼록한 손가방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소중히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 돈이나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였다.

열두시가 가까워져서 八호실 바로 맞은편인 十六호실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四十대의 어수룩한 남자가 투숙했다. 그의 차림은 이같은 일류호텔에 투숙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너주래한 차림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소지품이 없었고 이렇다 할 인상을 주는 용모도 아닌 四十대 전후의 남자였다.

八호실에 투숙한 친사는 서울 말을 하고 있었고 투숙할 때 내일 아침 서울행 규행열차가 몇시에 있는냐고 여관보이에게 물었다. 새벽 六시에 있었던 것이다.

十六호실에 투숙한 손님은 내일, 경주행이 몇시에 있는냐고 물었다. 경주행은 하오 三시만에 있었다. 그는 오전 중에는 꼭 쉬고 싶으니 깨우지 말라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 八호실 친사는 다섯시 반쯤 되어 역으로 나왔다. 그런데 十六호실 손님은 하오 세시가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여관 보이는 경주로 가는 손님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十六호실 도어를 녹시켰다.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十六호실 손님은 아무런 대꾸도 없었

다. 보이는 좀 크게 도어를 두들겼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보이는 도어를 열었다. 그런데 도어는 안에서 잠겨져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보이는 주인에게 말해서 도어를 부시고 들어갔다. 손님은 침대에 으척이 누어 있었다. 그의 머리맡에 있는 조그마한 탁자에 몇개의 수면제와 한장의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누어있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 보았을 때 완전히 죽은 자임을 확인한 뒤였다.

그것이 수면제였음은 물론 의사에 의해 판명되었고 봉투는 그의 유서였다. 유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깨끗이 자살한다.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나에게 돈을 제공해준 분들에게는 미안하기 그지 없다. 유서에는 자살한 자가 말한 사실을 같이한 사발, 자금을 제공해 준 자가 누구인지 전연 이름이 없었고 자살한 당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그의 의복을 살살이 주려 보았으나 신원을 알만한 아무런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그의 포켓에서 나온 것은 十六호실 칫대뿐이었다.

그러나 경찰의(警察廳)는 그가 자살한 것이 아니고 타살이라는 사실을 손쉽게 알아내었다.

수면제는 물론 수면제였다. 그러나 자살자의 위액이나 혈액속에서 수면제는 전연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타살의 뚜렷한 증거는 목이 통통 부어있었다. 이것은 곧
으로 목을 졸랐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며 끈이 아니라도
외부로부터 목을 졸렸을 때 있는 증상이었다.

자살이 아니라라는 증거로

① 자살자 자신이 목을 졸라 죽었다면 목에 끈이 감겨
있어야 한다.

② 나랏의 수면제로 자살했다면 체내에 수면제가 발견
되어야 한다.

③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인
뒤 자살을 가장하기 위하여 수면제와 유서를 위장한
것이다.

경찰은 유숙계에서, 十六호실(자살자)의 주소 성명을 조
사했다. 경주시 X동 XX번지에는 그가 거주했다는 흔적
조차 없었다.

이러년 중 놀라운 사실이 들어났다.

그것은 죽은 자가 十六호실 손님이 아니라 八호실에 투
숙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울에 있는 XX산업주식
회사 전무인 P라는 사람이었다. 하룻만에 돌아올 예정으
로 부산에 출장을 간 P가 사흘이 지나도 북 돌아오지 않
으므로 본사에서서는 부산 지사에 전화로 연락을 했다. P
는 현찰 백만원을 가지고 이른날 아침 차로 상경했다는
회답에 본사에서서는 P가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행방을

잡추어 버린 것이나 아닐까 해서 P의 수색을 경찰에 의뢰
했던 것이다. 이때서 밝혀진 것이 죽은 자는 十六호실 투
숙객이 아니라 八호실에 투숙한 P가 十六호실에서 죽어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이쯤 되면 범인이 누구인가는 자명해진다. 十六호실의
사람이 八호실의 P씨를 어떠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의
증절모자에 그의 안경에 그의 코오트에 그의 돈가방을 들
고 완전히 P를 가장해서 그날 다섯시 반에 호텔을 나설
것이 분명하다.

또하나, 가상범인, 즉 혐의자인 十六호실 남자가 평장
한 지능범임을 알 수 있는 몇가지 사실이 들어났다.

첫째, 그는 八호실 어디에도 그의 지문을 남기지 않았
다. 그는 장갑을 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둘째, 그는 유숙계에 쓴 필적과 유서에 쓴 필적을 완전
히 다르게 썼다.

셋째, 그는 경상도 사투리에 경주라고 했다. 그가 경상
도 사람을 가장한 것이 분명하다.

넷째, 그는 자살을 더욱 가장하기 위하여 유서와 수면
제를 썼고 十六호실 첫대를 P씨의 포켓에 남기두었다.

다섯째, 그는 P씨를 살해한 다음 그 코빌 수염을 깨끗
이 면도해서 十六호실 투숙객으로 보이게 하고 어떠한 방
법으로 그 수염을 자기 코 빌에 붙였다. 이리하여 그는

완전히 P가 되어 유유히 호텔을 나섰던 것이다.

경찰의 수사조절은 물론 十六호실에 투숙한 R라는 사람이 찾아내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 자의 인상은 호텔 보이의 뇌리에 남은 희미한 영상뿐이며 다른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이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졌는가?

2

허 총경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추리했다.

범인(十六호실 투숙객)은 P씨가 기액의 돈을 가져갔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의 뒤를 미행했다. P씨가 八호실에 투숙하자 그는 八호실과 가장 가까운 十六호실에 투숙하면서 한밤중에 P씨가 길에 잠들었을 때 八호실에 침입하여 그를 목졸라 죽이고 죽은 P씨를 十六호실로 옮기 수업을 하고 十六호실 투숙객으로 가장 시켰다.

문제는 돈을 가진 P씨는 도어를 안에서 잠그고 잠을 잤는데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느냐? 또 十六호실 도어의 쇠대를 안에다 두고 어떻게 도어를 잠글 수가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허 총경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즉, 범인은 보통 도어용 쇠대 몇개를 미리 준비해서 가

지고 있었다. 그는 줄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쇠대의 어느 한개를 골라 八호실과 十六호실에 맞는 것으로 쓸어서 만 들었다. 시간이 약간 걸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 총경은, 이것만 가지고서 객실이 나란히 있는 호텔에서 한사람을 죽인 다음 그 시체를 다른 방으로까지 운반할 수는 없다고 단정했다. 다른 방 손님들이 모두가 한잠이 들었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으며 전연 소리없이 시체를 다른 방으로 운반할 수는 없다. 반드시 주위를 감시하고 만일 제 3자에게 보였을 때 그것을 캄푸라쥬랄 또한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리했다.

허 총경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가장 부난한 자가 호텔 종업원 중의 어느 한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그 다음 문제되는 것이 범행 동기였다. 범인은 과연 돈을 훔치기 위하여 그 처럼 대담한 살인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범인은 돈보다 이상가는 그 무엇이 필요했거나 없을까?

이와같은 의문을 풀기 위하여 경찰은 P전부의 가방속에 돈 외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를 추구한 결과 중요한 비밀문서의 사본이 들어 있었음을 알아 내었다. 그것은 XX살업주식회사가 군대에 납품해야 할 모종의 기계의 수량과 성능이었다.

경찰은 허 총경의 지휘하에 범인 수색의 행동을 개시한 지 二十일만에 범인의 단서를 포착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호텔에 종업원인 보이, 박씨를 미행하므로서 알 수가 있었다. 박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일주일 만에 호텔을 그만 두고 같은 호텔의 여자 종업원 김이라는 처녀와 시내에서 집을 빌려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박씨와 김녀와의 동거생활은 매우 호사스러웠다. 매일 같이 식당출입, 영과구경에 좋은 옷을 갈아 입었다.

박씨는 경찰의 신랄한 추구에 마침내 돈의 출처를 자백했다. 그는 범인으로 부터 五十만원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범인의 행방을 박씨는 모르고 있었다. 허 총경은 범인이 간첩임을 단정하면서도 그를 체포하는 묘안을 생각해 내지는 못했다.

이러던 중 어느 날, 허 총경은 F라는 지방 二품 서(署)에 근무하는 한 명의 젊은 형사가 치안국에서 개회한 경찰 교육을 마치고 치안국에 근무하는 동료 한명과 함께 치안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소근거리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허 총경은 이날 휴무였기 때문에 동료와 함께 등산 약속을 했다가 시간을 어기고 다른 동료와 만나기로 되어 구내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다. 때문에 허 총경은 동산차림을 하고 있었다.

F서 형사의 얘기는 주로 자기의 직속 상관인 F시장에

대한 불평과 비난이었다.

F시장은 XX당 국회의원이며 국회 XX분과 위원회 위원장인 三촌을 배경삼아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도 아니요 은인들이 한 투가자가 아니었고 그러한 여타가지의 실에 들 얘기하고 있었다.

당시, 그러한 예는 많았다. 때문에 허 총경도 그러한 얘기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그런데 허 총경이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은 얘기가 있었다. 그것은 젊은 형사가 불평을 터뜨리고 F시장의 대내적 업무수행상에 관한 얘기였다. 특히 허 총경이 관심을 가진 그 젊은 형사의 불평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알 수 있었다.

① XX당 F군 지구당 사무소에는 매일 같이 젊은 당원들이 모여서 정담(政談)을 벌이고 그 화제는 주로 반미(反美)적인 것이었다. 사찰 형사는 그들의 언동이 심상치 않으니 일단 취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번 요구했으나 X시장은 끝내 거부했다.

② ○○신문 F군 지사에 있는 기자는 고의적으로 어당과 야당간의 이간을 불이는 언동이 심했다. 한편은 이 기자가 서울을 다녀와서 ○○당 F군당 정부 위원장에게 즉시 위원장을 그만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권고했는데 그 이유인즉 위원장의 四촌형이 목재상을

정영하고 있으면서, 四촌 동생인 위원장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당이 치안국을 통하여 날조변칙을 꾸며 四촌 형을 수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당은 야당이며 이 정보를 입수한 형사는 기자의 그와 같은 말의 진부를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전연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임을 확인했고 또 평소의 기자의 언동이 수상하니 일단 수사해 볼 것을 요청했으나 F서장은 거절했다.

③ 북한 괴뢰 잔치가 F군에 잠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정보에 의하면 잔치는 二, 三일 전에 서울에서 왔다고 하며 방금 모면장 집에 유숙하고 면장의 이종동생이라는 자가 아닌가 하는 풍설도 있어 그자를 조사해 보자고 주장했으나 F서장은 거절했다.

이상 세가지의 요구를 거절한 F서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 젊은 당원들의 반미언동은 젊은 사람들의 민족적 양심의 발로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못 다루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 二세대의 정열을 길러주지는 못하는 처지에 있다해도 꺾어서는 안된다.

② 기자의 관민이간, 정당간의 이간언동은 기자가 가지는 직업적인 생명이며 그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물

론, 입건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추어 그러한 일은 비밀미제한 사실이며 또 경찰이 지금까지 기자를 입건해서 승소해본 실적이 없다. 잘못 취급하면 오히려 경찰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앞 맞는 일이요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태가 되기 쉬우므로 언론의 창달을 위하여 손대지 말 것이다.

③ 면장집에 잔치가 잠입했다는 정보는 유치한 것이다. 잔치라는 작자가 어디 숨을 곳이 없어서 면장집을 택하겠는가. 그 정보를 믿고 면장집에 손을 댄다는 것은 경찰서의 무능졸렬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며 민중의 공복인 경찰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 것이다. 좀 특별한 정보활동을 하라.

F군은 한때 한국의 모스코바라는 별명을 가질만큼 좌익분자들의 준동이 심했던 곳이다. 六·二五사변이 끝난 후에도 빗해동안은 무장잔치가 있었던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젊은 형사는 현 서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기열을 토했다.

『이사람, 너무 큰소리 치지말게나. 적당히 하게 처당히. 그렇게 불평 부리다간 괜히 자네만 목달아내네. 국회XX분과위원장을 백으로 가진 사람을 누가 손대겠는가?』

듣고 있던 동료는 이렇게 말하면서 흥미 없었다는 듯 일어섰다. 형사도 일어섰다.

식당밖에 나선 그들은 악수를 교환하면서 헤어졌다.

다시 청사로 돌이간 형사는 신배 동료들에게 오늘날로서로 내려가겠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다녔다.

이 때 나타난 것이 허 총경이었다. 허 총경은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형사를 불렀다.

『자네, F에서 왔는지?』

허 총경이 이렇게 묻는 바람에 형사는 눈이 둥그래져서 동산본의 허 총경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만 있었다.

『뵈,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네. 알고 보면 나두 자네의 동료네. 나, 허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허 총경이야.』

하고 싱그레 웃었다. 그러자 형사는 더욱 놀랐다. 그의 머리속에 아까 구내식당 뒷자리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편, 재미나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 얘기 좀더 자세히 들려주게나.』

하고 허 총경은 형사의 소매를 끌어 당겼다. 젊은 형사는 눈이 둥그래져 어리둥절하며 좀체 그 곳에서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3

본서로 내려간다는 그 젊은 형사는 뜻하지 않게도 이

날밤 허박사 집에서 허박사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단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허 총경님, 국회 XX분과위원장이 그 사람의 삼촌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이 F군에서 임후보 했을 때 지금의 서장은 그 곳 경찰에 경위로 있으면서 그분을 당선 시키는데 절대적인 공로가 있었읍니다. 공연히 허 총경님의 목만 날아갑니다.』

하며 젊은 형사는 허 총경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물론 그렇겠지. 내가 그걸 안 믿는다는 게 아니야. 목이 날아가 두 내복이 먼지 날아갈 것이구 박형사 목이 달아 난다면 내가 박형사의 밤먹을 구멍을 마련해 주면 되잖아.』

『허지만!』

허 형사는 반대하는 의사다. 『틀림없어, 내 추리는. 내가 자네 얘기를 들후 왜 그러한 추리를 했는가 그 근거는 나중에 말해 주겠네. 지금 까지 내 추리가 어긋나본 적은 한번도 없었네. 그러니까 박사칭호를 얻어 잡수었지.』

△ 다음호에 계속 ▽

第三帝國의 興亡 (第五部)

W · R 사이러 著

勝利와 敗北

히틀러의 平和提案

一九四〇年六月 불란서가 굴복한 지금에 와서는 영국은 강화를 갈망하리라고 히틀러는 굳게 믿었다. 거대한 독일군은 그에 저항하는 모든 것을 쳐부수고 이제 는 대단한 힘의 유령을 석권했으며 거의 무방비상태인 영국을 침공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어찌서 영국은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을 홀로 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처칠이 공공연하게 영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 을 다짐하기 시작했을 때 도 히틀러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히틀러는 七月十九日 밤 의회에서 영국에 대한 최후의 평화제안을 했다. 연설을 통해서 히틀러는 시종 목소리가 낮았으며 좀처럼 전과 같이 외치지 않았다. 의회연단에서 그는 가끔 히스테리칼하게 절규했지만 그 말만은 끝까지 조용했다.

「지금 이 시간의 英國이 지니고 있을 이성과 상식에 호소한다 는 것은 나 자신의 양심의 비추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 는 敗者로서 好意를 탄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勝者로서 理性的

이름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서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독일의 대부분의 관리와 군인들은 총통의 판단한 평화제안을 英國이 수락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英國은 한사간 도 못되어서 히틀러의 제안에 대한 회답을 BBC 방송을 통해서 보냈다. 그것은 절정적인(No)이었다. 독일의 군인과 관리들은 「자네 영국의 바보네식들을 이해할 수 있나? 녀석들은 미치광이야」라고 외쳤다.

큰 소리는 했지만 사실상 히틀러와 그의 에하 유래공군 장성 들은 對英전쟁은 어떻게 이기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때까지 그들이 지룬 눈부신 성공을 어떻게 지미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歷史上 최대의 군사적 승리를 어떻게 이용하는데 대해 계획도 없었고 그 빌 의사도 없었다. 이것이 제3제국에서의 최대의 모순의 하나였다. 히틀러가 그의 군사력의 절정에 서서 유럽대륙의 태반을 밟고 승리할 자 랑하는 군대는 지금 잠깐 승을 돌린 다음 행동으로 만반의 준비 가 되어 있는 이때 히틀러는 이제부터 어떻게 전쟁을 종결시키 는가 아무런 방안도 없었다. 이 숙명적인 태만이 제3제국과 히틀러의 短命을 제촉한 커다란 원인의 하나였다.

불개작전(영국침공)의 失敗

一九四〇年六月三日 독일의 요들상군은 「영국에 대한 최후적 승리는 지금은 다만 시간문제이다. 그러나 침공에 대해서는



독일이 제공권을 확보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다.」라고日記에 적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독일의 게링이 지휘하는 공군은 八月十五日에 독수리작전을 개시했다. 독수리작전은 영국의 공군을 하늘에서 구축하므로서 영국침공의 절대요체인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對英航空作戰이었다. 게링은 승리에 대해서 자신이 만만했다. 독일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二千三百臺의 항공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방대한 공군력에 대항하는 영국은 八月 12日로 불과 八百臺의 전투기를 가졌을 뿐이었다.

독수리작전의 序幕으로서 八月十二日 독일공군은 영국의 레이더기 및 전투기기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가했다. 八月十五日에는 최초의 大空中戰이 벌어졌다. 독일측은 폭격기 八〇臺, 전투기 一、二四九臺를 출동시켰으며 그중 一개전대는 거의 런던 상공에까지 침입했다. 四개의 비행기공장이 파괴되고 五개의 전투기기가 손해를 입었다. 항공기의 손실은 독일측이 七五臺, 영국측이 三四臺였다. 이러한 비율로서는 수적으로 우세한 독일공군이라도 영국공군을 하늘에서 구축하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었다.

이 대공습에서 게링은 그가 범한 전술적인 二大失策중에서 그 첫번째를 범했다. 영국의 전투기사령부는 레이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세한 공격군에 대전했다. 독일 항공기가 유럽의 기지를 이륙한 순간부터 영국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으며 전투기사령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지점 및 공격시간을 선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게링은 레이더기에 대한 공격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중지시켰던 것이다. 레이더와 함께 영국의 방위를

가능케한 또 하나의 판전은 색토·스테이슈이었다. 이것은 地方에 설치된 신경중추로서 지상장시조 및 전투기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무선전화로서 전투기를 지휘하였다. 독일측은 이들 색토·스테이슈의 중요성을 깨닫고 八月二四日 전술을 바꾸어 이를 파괴하는 데 착수했다. 독일공군의 전술전환은 영국수호의 생명선 바로 그것에 대하여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八月二四일부터 九月六日까지 독일측은 이 목적을 위해서 一日 평균 一千臺의 항공기를 출동시켰으며 영국전선은 결정적 단계에 돌입했다. 월여부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출격을 거듭하여온 영국공군의 조종사들은 지칠대로 지쳤으며 五개의 전투기기가 종대한 손해 입고 기기가 七개의 색토·스테이슈중 六개가 극심한 폭격으로 녹르·아웃에 직면하였다. 그중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조종사의 손실이였다. 영국공군 조종사중 一〇三名이 전사하고 一・二八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그것은 전 보유조종사의 四分之一에 해당하는 것이였다.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 몇주일만 계속되면 영국은 이미 조직적인 공중방위는 불가능했다.

그때 돌연히 계령은 두번째의 전술적실책을 범했으며 타격을 받고 흔들리던 영국공군은 구원되었으며 공중전의 一大轉機의 하나가 되었다. 영국공군이 만신창이가 되어 이상 더 버틸수 없게 되었을때 도이취공군은 九月七日 그 공격의 방향을 돌려 런던의 야간폭격을 시작했다. 영국공군은 잔신히 한숨을 불렀다. 이렇듯 종대한 전술적 전환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잘못은 운명의 착난이었다.

사건의 시초는 八月二十三日晚, 십여대의 도이취공군 조종사들

이 항법의 마스로, 지정된 공격목표를 벗어나 런던시가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획적인 것으로 간주한 영국은 다음날 베르린을 보복폭격했다.

대수로운 것은 없었으며 불계손해는 보잘것 없었다. 그러나 독일국민의 사기에 미친 효과는 심대하였다. 베르린에 폭탄이 떨어졌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라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들의 환멸감을 졌다. 영국공군은 八月二八日과 二九日의 밤 또다시 대규모로 내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독일의 수도에서 독일인들을 살상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담뱃으로서 히틀러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영국공군이 二・三千킬로의 폭탄을 던지면 우리는 하룻밤에 十五만 또는 四十만 킬로의 폭탄을 던져드릴 것이다. 그들의 우리의 도시에 공격을 가하면 우리는 그들의 도시를 뿌리채 뽑아 줄 것이다. 머지않아 때는 온 것이다. 돌출어느 쪽이 패방할 때 가울 것이며 독일은 결코 패방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공군이 영국공군에 대한 주간공격을 런던야간폭격으로 바꾼 운명적인 전환은 히틀러의 신성으로 인한 것이였다. 이 결정은 군사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며 首都를 승부리쳐부서서 영국의 지랑의식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였다. 히틀러와 계령은 이의 성공을 틀림없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되면 침공상륙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九月七日 下午 늦게 런던의 대공습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최초의 이틀밤 동안에 런던의 대도시는 사망자 八四二명 부상자 三四七명을 내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공습은 밤마다 인주일이나 계속되었다.

야간폭격의 성공에 힘입은 독일공군은 불결에 싸인 런던에 대거 주간공습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約二〇〇臺의 폭격기가 세배나 넘는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九月十五日 正午에 런던으로 향하고 있었다. 영국 전투기 사령부에서는 케이다로서 공격군의 편대를 감시하며 반박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가 그들을 요격했다. 대부분의 공격기는 폭탄을投下치도 못하고 산산히 흩어졌으며 혹은 격추당했다. 二시간후 또 다시 강력한 독일군 편대가 내습했으나 이 역시 폐주를 면치 못했다. 이날의 전투는 영국에 대한 대규모 주간공격의 성공이 당분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독일공군에게 깨우쳐 주었다. 그렇다면 영국에 대한 침공상륙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한 것이다. 그리한 의미에서 九月十五日은 영국전선의 하나의 전기였다.

히틀러는 九月十七일에 영국침공의 불개作戰을 무기한 연기했다. 런던 九月七일부터 五七日동안 밤마다 매일 평균 二〇〇臺의 폭격기에 의한 폭격을 받고 파괴된 물이나 기왓장이 11미터까지 떨어졌으나 히틀러가 바라던 것처럼 영국의 士氣가 꺾이지도 않았고 군수생산은 저하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다. 영국폭격에서 독일공군의 항공기 손실은 실로 막대했으며 독일은 그때 받은 타격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내 보충하지 못했다.

독일해군은 이른 봄 노루웨이에서 받은 손실 때문에 불구에 가라앉았으며 영국침공을 위한 해군력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해군력과 공군의 제공권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독일의 육군일지라도 좁은 해협이나 마진에서 영국에 침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히틀러는 전쟁에서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았다.

영국은 서방세계에 의한 유럽 탈환을 가능케 하는 기저로서 보존케 되었으며 히틀러는 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소련과의 對決

一九四〇年 여름 히틀러가 西部정부에 정신을 쏟고 있는 틈을 타서 스탈린은 발칸제국을 엄습하여 南으로 내려와 발칸에 침공의 손을 뻗쳤다.

베르린과 모스크바의 관계는 순조롭지 못했다. 스탈린과 히틀러는 제3자를 속여 넘기는 데는 그 수단울 같이 했으나 피차에 서로를 속이는 마당에 있어서 이야기가가 전혀 달라졌다. 히틀러는 소련이 발칸제국을 위시해서 루마니아, 헝가리, 비아, 북부 빅코비나 지방을 탈취하는 것을 저지하려다 실패하고 분통만 터뜨렸다. 서방 및 루마니아에 대한 소련의 진출은 어떻게든지 해서 막아야만 했다. 그곳의 석유자원은 영국의 봉쇄로서 석유의 해상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독일에게는 死活의 문제였다. 히틀러를 한층 더 궁경에 빠뜨린 것은 항공기 및 불가리아에 의한 루마니아 영토의 분배 요구였다. 이러한 문제로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독일은 가장 중요한 석유자원이 차단 당하고 끝내는 소련이 루마니아 소스를 점령하여 독일의 루마니아 석유권을 영탈히 바탈할 것이라고 히틀러는 생각했다.

八月二八日 히틀러는 독일 및 이대외相을 뵈어나오 규파하여 항공기와 루마니아로 하여금 주축국의 조정을 수락토록 강요

했으니 협박공물로써 이를 달성했다. 그리고 히틀러는 루마니아에 군사사절단의 파견을 명령했다. 이에 소련은 나치·쑸비에트 조약을 들어 독일의 비난했다. 정부자들은 약탈품 분배의 의회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그 뒤 독·소간의 알력이 더욱 격화되자 히틀러는 스타린을 비난했다.

「스타린은 머리가 좋고 교활하다. 점점 더 많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冷血의 인 착취자다. 소련은 독일의 승리를 참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될수록 빨리 끝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군지도자들에게 말했다. 冷血의 인 나치 강탈자는 상대가 好敵手임을 알고 함정의 분노를 솟구쳤다.

一九四〇年十二月十八日 히틀러는 지령 제二十一호를 내렸다. 그것은 파르바투사作戰이라 이름 붙여진 것으로서 지령의 첫부분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極秘

독일 국방군은 對英戰爭 終結이전에 신속한 작전에 의해서 소련을 부패하는 준비를 갖추다.

준비는 一九四一年五月十五日까지 완료한다.」

그러나 파르바투사作戰을 시작하기 전에 발칸제국에 가로놓인 남부축대를 확보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때 못소리니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곤난에 부딪치게 되었다.

히틀러와 못소리니는 十月四日 브란코의 연막에서 회담했다. 히틀러가 거의 혼자서 떠들어대고 황홀한 제세전만을 시도했으며 이베리가 눈독을 드리고 있던 루마니아派兵에 대해서는 一言半句도 없었다. 이에 못소리니는 극도로 분개했다.

「히틀러는 언제나 나에게 기성사실을 내민다. 이번에는 녀석한테 같은 手法으로 모욕을 해야겠다. 그 녀석은 신문물을 보고 내가 그리이스를 점령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못소리니는 후에 지결었다. 十月二日에 못소리니는 十月二八日을 그리이스에 대한 기습공격의 날자로 정해놓고 히틀러에게 통보했으나 그 정확한 日字는 밝히지 않았다. 히틀러가 中止를 命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히틀러는 못소리니에게 즉시 회담할 것을 요구했다. 못소리니는 十月二八日 피렌체에서 회담하자고 했다.

그날 아침 회담장소에 나타나는 히틀러를 맞이하는 못소리니는 확회에 차 있었으며 「종종, 서로 손잡고 진급합시다. 승리를 거듭한 이베리군대는 오늘 아침 새벽 그리이스·알바니아 국경을 넘었습니다.」라고 의쳤다. 못소리니는 이것으로서 히틀러에 보복을 했다고 느꼈으며 히틀러는 불꽃같이 노했다. 히틀러는 一年 중에도 가장 나쁜 시기를 택해서 군세가 이를 깨 없는 저군에 대하여 무모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발칸에 대한 모든 계획을 좌절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못소리니가 자랑하던 이베리군대는 일부일도 못되어 그리이스에서 케텔에 직면했으며 히틀러에게 행동은 강요했다. 영국은 그리이스에 군대를 보내서 발칸에서의 독일의 지위를 송부리채 위

협할 수 있다.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히틀러는 불가리아를 통과해서 그리이스에 침공하는 작전계획을 곧 준비하도록 유근에 명령했다.

발칸의 前奏曲

一九四一年二月의 셋째주에 접어들어 독일은 폴란드국경으로부터 흑해에 이르기까지 三百마일에 걸쳐 六八만의 大軍을 集結시켰다.

二月二八日밤 독일군대는 루마니아에서 다뉴브강을 건너 불가리아의 전략적 지점에 포진하고 불가리아는 다음날 三國同盟에 加入했다.

다루기 힘든 유고인은 그리 만만하게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유고인의 완강한 태도는 히틀러의 의욕을 더욱 돋구었으며 그는 항상 하는 버릇대로 위협을 하고 사탕발림으로 사로니까지 방을 제공해 주었다. 유고의首相과 外相은 三國同盟加入을 히틀러앞에서 調印했으며 히틀러는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加入에 조인한 유고의 장관들이 벨그라드에 몰아오자 공군장부장교에 의해서 저도되고 육군의 지지를 받는 비충용기에 의해서 그들은 타도되고 말았다. 新政權은 독일에 불가침조약의 서명을 요청했으나 히틀러가 강요한 피외적인 위치를 수락할 것 같지는 않았다. 유고인들은 독일公使의 자동차에 침을 뱉고는 세르비아인의 感情을 表現했다.

유고의 쿠데타는 히틀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이르게 했다

으며 그의 치밀이 오히려 걱정은 드디어 결과적으로는 제3제국의 災厄을 招來하는 급속적인 결정을 차례로 내리게 했다.

히틀러는 三月二七日 군수비들을 소집하고 유고에 대한 복수를 의했다. 국가로서의 유고를 사정없이 부자비하게 때려부서야 한다고 했으며 게빙에게는 복지기로서 벨그라드에 공격을 가하여 수도를 송두리채 말살시키라고 지시했다. 동맹회에서 히틀러가 행한 것 중 가장 운명적인 결정은 마르바트사作戰의 개시를 四주일 정도 연기한다는 것이었다.

히틀러가 발칸의 小國인 유고의 반항을 복수하기 위해서 소련 공격까지 연기한 것은 그의 一生一代의 가장 파국적인 실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발작적인 격분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히틀러는 전쟁에 승리하고 제3제국을 독일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며 그 자신이 유럽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최후의 황금같은 기회를 넘겨버렸나 해도 파인이 아닌 것이다. 독일의 군수비들이 그것을 깨닫은 것은 최후의 승리를 三·四주 앞두고 러시아의 광야에 白雪과 霧下の 極寒이 습테했을 때였다. 장군들은 자만심이 강하고 조금만 비다가 사료가 부족한 히틀러의 결정을 길이 비난하게 되었다.

간접 침략을

분쇄 하자!

참여
방표

편 집 후 기



☆:역사적인 대통령선
거를 끌내고 국회의원선
거를 눈앞에 두므로써 바

야호로 자손만대의 번영을 꾸며 갈
第三共和國의 탄생은 목전에 두었다.
다시는 욕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못한 백성으로 손고락
질 받지 않기 위해, 다시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다 같
이 고쳐 앉아 마음을 모아보자.

☆:△사기양양을 위한 케이지를
꾸렸다. 넘치는 사기는 一騎當千의
장군을 만든다. 그러나 사기는 뒷사
람이나, 파랗 사람들과만 높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겠다. 스
스로 자기를 이끌고 열의 천우를 떠
밀므로써 추천하는 사기를 이룰 수 있
는 것이다. 소박한 취미, 건전한 오
락, 가벼운 스포츠, 이 모두가 사

기를 높이는 지름길들이다. 아울러
멋을 아는 군인을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특집 <未來의 生活>은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이긋았다. 따라서 계
획보다 늦게 실체 되는데 대해 필자 세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간 장
병들의 흥미를 모아 오던 반응수기
<육한동포는 나를 살렸다>가 이번
10 회로 끝을 맺었다. 필자 이준수문
관님의 전투를 빌며 독자와 더불어
사의를 표한다.

☆:趙誠植님의 <우리의 직을 안
자> 73 매를 전부 실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작자
들인지 꼭꼭히 알아 두자.

☆:여러면에서 편집이 <만네리즘>
에 빠져 있음을 스스로 느낀다. 구
태어 구차한 변명을 하자면 손도 모
자랐고 계약도 적지 않았다. 구가를
탈피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 장병들의 격려와 성

원을 마담 뿐이다. (현)

☆:이 해도 이미 저물어 간다.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월간
잡지를 만들고 있는 편집관계자들은
벌써 X마스도 지나고 새 해도 지나
六四년에 발을 들여 놓고 있다. 一월
호에 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後記를 쓸때면 언제나 觀念
의 時點에서 二個月은 後退해야 한
다. 이 後退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自省의 기회가 된다. 이 自省에서 느
끼는 것이 또한 언제나 좀더 참신한
내용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지금 國內에는 이나라 歷史의
새로운 運命이 創造되는 참나에 있
다. 第三共和國의 立法議員의 選舉
가 그것이다. 우리는 항상 民族的의 自
覺과 民主主義 理念의 確立에 깊은
關心을 기울여 왔지만 이 重大한 時
點에 특히 軍人으로서의 自覺을 다시
한번 促求하고 다짐하지 않을 수 없
다. (유)



30防空管制團創設

제30방공관제단 창설식이 9월 25일 K-55기지에서 거행되었다.

1萬5千時間無事故飛行記錄

제1조종훈련비행전대에서는 9월 21일 1만5천시간 무사고비행기록을 수립하여 우리 공군의 전력을 또한번 빛냈다. <사진은 동 기념식광경>



우리의 战力

